



2012 사업성과
보고서

All
kids
tra.



올키즈스트라

2012

사립학교
보고서

All
kids
tra.



2012 사업성과
보고서

All
kids
tra.

Contents

I • 올키즈스트라 사업개요 및 진행과정.....	007
1. 올키즈스트라 사업개요	008
2. 올키즈스트라 사업 진행과정	013
II • 유사사업 비교	015
1. 국외 사례	017
2. 국내 사례	022
III • 선행연구고찰.....	027
1. 형식적 측면 : 방과 후 프로그램 관련 문헌.....	028
2. 내용적 측면 : 음악교육 효과 평가 관련 문헌	029
IV • 로직모델 개발	039
1. 개발과정	040
2. 로직모델.....	046
V • 평가연구방법.....	055
1. 평가 방법론의 선택	056
2. 양적 평가	057
3. 질적 평가	068
VI • 양적평가결과.....	071
1. 올키즈스트라 사업과 비교집단 사업성과 비교분석	072
2. 올키즈스트라 사업내부 성과분석	091

VII • 질적 평가 분석.....	117
1. 동기부여	118
2. 개인적인변화	131
3. 친구관계	137
4. 부모님과의 관계	138
5. 장래희망	141
6. 협동심	143
7. 소속감	146
VIII • 울키즈스트라 사업성과 분석의 시사점	149
IX •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방안	157
1. 연구의 제한점	158
2. 연구의 의미	158
3. 향후방안.....	159
첨부목록.....	168
[첨부1]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소개.....	169
[첨부2] 아동 설문지.....	172
[첨부3] 질적평가 _ 음악강사 질문지	180
[첨부4] 질적평가 _ 지역사회 기관 실무자 질문지	184
[첨부5] 질적평가 _ 아동질문지.....	188



올키즈스트라 사업개요 및 진행과정

1. 올키즈스트라 사업개요
2. 올키즈스트라 사업 진행과정

1. 올키즈스트라 사업개요

올키즈스트라(Allkidstra)는 “모든 아이들이(All kids) 희망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라는 의미로,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의 음악교육프로그램이다. 악기제공, 음악교육, 합주, 관악단 활동,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등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음악을 통하여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배우는 것을 본 사업의 목표로 한다.

1) 사업배경

한국사회는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모든 아이들이 학교 성적으로만 평가되고 있으며, 대학입시를 향해 모든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아동·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경험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음악교육을 비롯한 예체능 교육은 축소되고 전공자 양성 위주의 교육만이 남아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음악교육은 1:1의 사교육 중심으로 높은 비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일반가정 아동 청소년 뿐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청소년이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긍정적 경험의 기회가 적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고 오케스트라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여 ‘조화로운 삶’과 ‘배려’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사업이 시작되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아동 청소년 관악 오케스트라’(Community Youth Wind Orchestra)를 운영하였으며, 2012년 현재, 서울 은평, 경기도 안양군포, 김포 3개 지역의 아동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던 아이들 중 오디션을 통하여 정예단원을 선발, 상위관악단(honor Wind Orchestra)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2) 올키즈스트라 사업의 특징

(1) 관악 중심의 오케스트라

한국의 다른 유사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은 대부분 현악기 혹은 관현악 오케스트라인데 반해, 올키즈스트라는 100% 관악 중심이다. 올키즈스트라는 관악기가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한국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의 현실에서 소통과 표현의 도구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으며, 관악단이 주는 경쾌함과 웅장함과 활기참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한다고 보았다.

(2) 사업의 지속성

올키즈스트라는 안정된 재원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음악’이 수단이 되지 않고, 그 자체로서의 목적을 가지며, 한 사람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재생산의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악기경험은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2012년 현재 올키즈스트라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관악단은 4년째 지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1년 단위로 지원하거나 최대 3년의 지원이 대부분인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매우 드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본 사업에 참여한 아이들이 중, 고등학생으로 자라고 중고등학생 때 본 사업에 참여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성인으로 성장하여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입시위주의 교육실정 상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관악단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에 많은 유사기관들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는데 비해, 올키즈스트라는 초, 중, 고등학생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는 서로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선배와 후배 사이의 건강한 역동이 발생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고 있다.

(3) 유연성

아동청소년을 위한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은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꿈의 오케스트라]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우리동네 오케스트라]처럼 대부분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경우가 많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지원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지원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지원금은 그 특성상 매우 경직되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해 올키즈스트라는 순수 민간펀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끊임없이 수정·보완·발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지역협력

올키즈스트라의 4개의 관악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올키즈스트라 소유의 건물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유료로 장소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곳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의 관악단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올키즈스트라 각 관악단의 특성에 맞게 각 지역에서 때때마다 지역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역의 장소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올키즈스트라는 지역의 기업, 기관, 공공기관들의 장소를 활용하고, 지역 내의 사람을 매니저로 활용하여 아이들의 연습지도를 돕는다.

(5) ‘인큐베이팅-자립’ 모델의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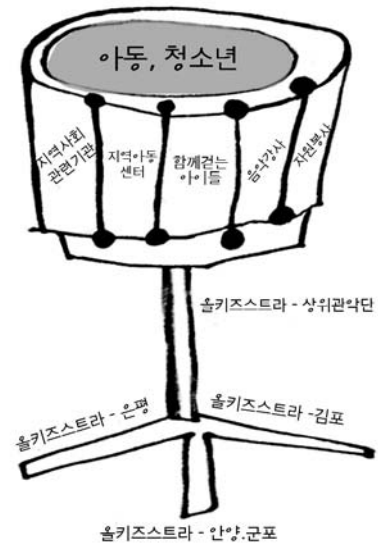
한 관악단이 지역과 긴밀히 협력하고, 아이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긍정적 성장이 가시화 되어 자리잡으면, 지역에서 이 관악단이 자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올키즈스트라는 새로운 지역을 인큐베이팅 하는 사업 모델을 지향한다.

3) 사업개요

(1) 올키즈스트라 구성

올키즈스트라는 2012년 현재 3개의 지역관악단과 1개의 상위관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관악단 별로 40~45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165명의 단원이 참여하고 있다. 단원들은 각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동들로 지역 내의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1 -1] 올키즈스트라 구성



(2) 사업 개요

① 대상

악기연주와 관악단 활동에 관심이 있으나 음악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지역사회 거주 아이들

② 지원 내용

올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에 지원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음악교육에 필요한 악기제공
- 전문레슨강사 지원, 개인 및 그룹레슨진행
- 기초이론 교육
- 윈드오케스트라 단원의 기회 제공
- 앙상블 연습 프로그램, 합주진행

- 초청공연 연주기회제공
- 음악캠프, 정기연주회 개최
- 문화예술 공연관람

③ 사업 흐름도

가. 1단계 _ 음악기초교육

음악교육에 필요한 선행 이론학습으로 악기와 오케스트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도록 한다. 흥미를 유발하여 음악교육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하며, 2012년의 경우 레슨강사 이외의 별도의 음악이론강사가 진행하였다. 기초교육 이후에 레슨강사가 지속적으로 악기 레슨에 음악기초교육 내용을 연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나. 2, 3단계 _ 악기레슨 및 지역합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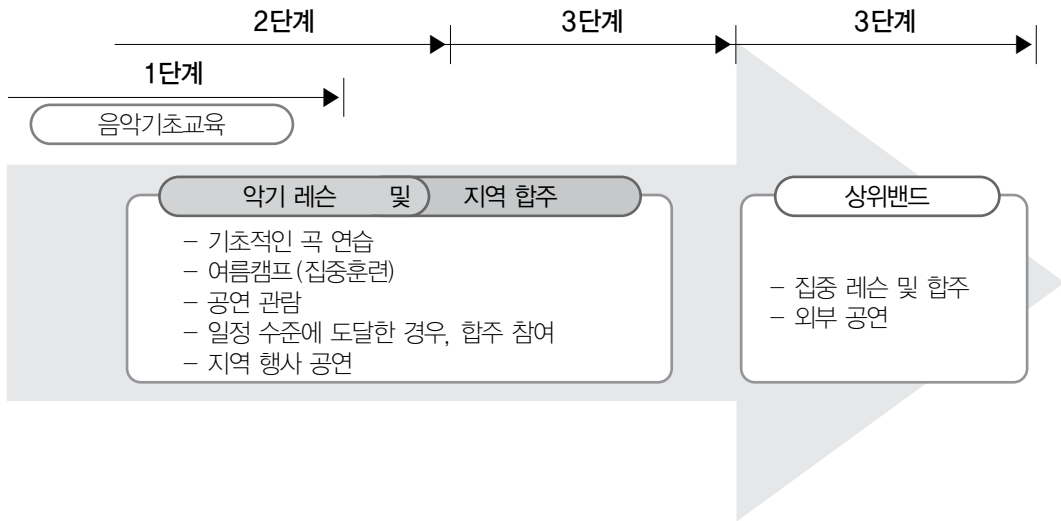
본 사업에 참여하면 2년 동안 악기 레슨을 받게 되며, 주1회는 전문강사레슨, 주1회는 자체 연습으로 진행된다. 2년 이후에는 관악단 합주에만 참여하게 된다.

악기레슨은 올키즈스트라에서 개발한 기본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되며, 기초레슨을 받는 아동 중 일정수준에 도달한 단원들은 합주에 참여하게 된다. 합주는 월2회 악기별 단원들이 다함께 모여 합주곡을 연습하고 지역공연이나 행사에 참여하게 되며, 합주에 참여함으로써 정식으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다. 4단계 _ 상위관악단

상위관악단은 건강한 성장 그 너머에 있는 음악가로서의 '꿈'을 연주하는 올키즈스트라의 대표 관악단이다. 한 단계 높은 연주 실력과 외부 공연활동으로 지역 관악단원들의 롤 모델이 되도록 한다. 매해 지역관악단 단원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통해 연주 실력과 열정을 갖춘 아이들을 선발한다. 선발된 단원들은 매주 1회 레슨과 집중 합주를 진행하며 년1회 단독 연주회를 갖는다.

[그림 1 -2] 올키즈스트라 사업흐름도



2. 올키즈스트라 사업 진행과정

올키즈스트라 사업은 2009년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 사업을 위탁하여 ‘우리동네 베토벤 바이러스를 찾아라’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2009년에는 5개의 관악단과 2개의 합창단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2010년 5월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을 창립하면서 사업명을 [함께 연주하는 아이들]로 바꾸고 4개의 관악단과 2개의 합창단을 지속 운영하였다. 2010년에는 「꿈연아」 빅밴드를 창단하기도 하였다.

2011년에는 4개의 관악단과 1개의 빅밴드, 1개의 합창단을 지속 운영하였으며 11월에 상위관악단 오디션을 시행하여 상위관악단의 설립을 준비하였다.

2012년에는 사업명을 [올키즈스트라]로 정하고, 3개의 지역관악단과 1개의 상위관악단을 운영하였으며, 지역 아동복지시설의 음악사업에 년 500만 원씩 17개소를 지원하였다.

[표 I -1] 올키즈스트라 사업진행과정

2009년	- ‘우리동네 베토벤 바이러스를 찾아라’ 프로그램 창단((사)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위탁) - 발레야반가워, 클래식원정대 등 동기유발 프로그램 시행 - 서울(은평, 서대문, 성북), 경기(안양군포, 김포)지역 5개 관악단, 서울(은평), 경기(성남) 지역 내 2개 합창단 운영, 350명의 아이들 악기 및 합창레슨 - 제1회 음악캠프 시행
2010년	-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창립 및 법인설립 허가 - 사업명을 Music With Us로 전환하면서, 서울(은평, 서대문), 경기(안양군포, 김포)지역 4개 관악단, 서울(은평), 경기(성남) 지역 내 2개 합창단 운영, 270명의 아이들 악기 및 합창레슨 - 제1회 정기연주회 시행 - 제2회 음악캠프 시행 - 들꽃 「꿈연아」 빅밴드 창단 - 초청공연행사 지원(여성단체연합 후원의 밤, 은평사랑나눔대축제 등)
2011년	- 서울(은평, 서대문), 경기(안양군포, 김포)지역 4개 관악단, 들꽃(서울신림, 경기안산그룹홈)1개 빅밴드, 서울(은평) 1개 합창단 운영, 230명의 아이들 악기 및 합창레슨 - 지역별 음악캠프(경기권, 서울권, 들꽃지역) - 제2회 정기 연주회 시행 - 상위관악단 오디션시행
2012년	- 사업명 [올키즈스트라]로 변경 - 서울(은평), 경기(안양군포, 김포), 상위관악단 4개의 관악단을 운영 - 17개 아동복지시설에 음악지원사업(개소당 년 500만 원)을 지원함. - 제3회 연합 음악캠프 시행 - 제3회 정기 연주회 “성장통” 시행(2월) - 제4회 정기 연주회 “히스토리” 시행(11월) - 청와대 어버이날 공연, 한국타이어 신입직원 환영회 축하공연, 지역축제 공연 등 다수의 공연활동 진행

An abstract graphic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consisting of numerous thin, curved lines in shades of gray and white that flow from the top right towards the bottom left, creating a sense of movement and depth.

Ⅱ 유사사업 비교

1. 국외 사례

2. 국내 사례

본 장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오케스트라 사업 중 1개 지역 이상에서 동일한 사업구조와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케스트라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내외 유사사업을 비교해봄으로써 Allkidstra 사업의 방향, 구조,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최근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격차 심화로 왜곡된 아동 개개인 및 집단적인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인지적 측면 뿐만 아니라 인성 지성 감성의 조화로운 발달과 성장을 위한 방법으로 음악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단순히 개개인의 음악기능을 습득하거나 전공을 염두에 둔 엘리트 음악교육에서 아동 청소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오케스트라 교육이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음악적 방법을 통한 개인과 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 오케스트라 사업의 경우 학교 안과 학교 밖의 구분이나 경계 없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학교 교과과정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서로 협력하여 아동에게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제공하여 아동의 극적인 체험(몰입)의 장을 제공하고, 음악적 성장과 변화를 유도한다. 궁극적으로는 참여아동들뿐 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최종 목적으로 하기에 민관이 함께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때문에 사업의 설계와 펀딩의 대부분을 정부가 책임지지만 사업의 실행은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프로그램과 악기는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제공되어 참여하기를 원하는 아동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엘 시스템아식 사회개혁적 음악사업의 경우 소요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며 음악자체의 순수한 목적을 왜곡시키기도 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학령기 아동 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육프로그램¹⁾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프로그램의 형태와 아동복지시설이나 사설학원 등을 통해 실시되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서로 구분되어 있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한국의 학령기 아동의 경우

1) 학교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함

방과 후에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과 오케스트라 합주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 또 방과 후에 학교에서 실시되는 악기를 통한 음악교육의 경우 학생들에게 악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문화소의 계층 아동들이 실제로 참여하기 어렵다. 아동복지 시설에 제공되거나 실시하는 음악프로그램 또한 예산상의 문제로 악기를 마련하기 어렵고 악기를 마련하여도 연속적으로 실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1. 국외 사례²⁾

1) 베네수엘라 사례 [엘 시스템아]

1975년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음악교육프로그램으로 공식명칭은 ‘청소년 어린이오케스트라 전국시스템을 위한 정부재단’으로 ‘페스노히브’라 불린다. 음악 교육적 접근을 넘어서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정부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으로 형성된 326개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지원 관리하고 있다. 사회발전을 위한 혁신적이고 희망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표II -1] 엘시스템마 사업 개요

사업명	엘 시스템마
운영주체	베네수엘라 정부
시작년도	1975년
목적(미션)	- 음악을 위한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시작 -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아실현을 위해 한 발짝 더 나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참여대상	뉴클레오에 속한 2세 이상의 모든 어린이
현황 ³⁾	- 지역교육센터(뉴클레오) 221개 - 청소년오케스트라 145개 - 어린이오케스트라 156개

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1), 인사이더 리포트 2011에서 각 해당 사례 요약 발췌함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2), 2012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평가 효과측정) 2차 연구 p 17

	- 취학전 아동오케스트라 834개 - 입문단계 유아오케스트라 112개 - 체임버 음악앙상블 363개 / 200여만 명의 학생들이 수료를 마쳤고, 현재 총 35여만 명 참여 중임
운영원칙	- 무상교육, 무상악기제공 - 그룹교육, 강도 높은 교육, 집중적 훈련 - 방과 후 3~4시간, 주 6회 연습
교수법 & 커리큘럼	-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전문오케스트라 4단계로 이루어진 커리큘럼 - 커리큘럼에 기초해 본인의 수준에 맞는 연주레퍼토리부여 받음 - 1단계 : 기초학습(노래와 리듬을 통한 음악의 기본을 습득) - 2단계 : 합창, 리코더연주 - 3단계 : 오케스트라활동(본부에서 연주 레퍼토리를 구성, 모든 오케스트라가 같은 시즌동안 동일한 곡 학습함) - 강사가 다양한 교수법을 통해 정신적으로 지지해주고 동기부여 - 엘시스테마를 통해 성장한 강사들이 활동
프로그램	- 개인교습 및 파트연습 - 합창수업, 종이오케스트라, 피어티칭, 마스터클래스, 연주회
추진체계	정부재단(페스노히브) → 2개의 중심교육조직 카라카스 → 뉴클레오
중앙재단의 역할	- 오케스트라교육모델의 개발과 확산 - 세부단위 사업기관들(뉴클레오)에 대한 지원과 관리, 역량개발 - 교수법 개발 및 교강사 교육 - 재무관리시스템 구축 - 커리큘럼 교안 등 교육에 필요한 기본 모듈 제공

2) 미국사례 [하모니 프로그램]⁴⁾

뉴욕시 정부의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비영리음악교육기관으로 법인화되었으며 뉴욕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법률 자문 및 재정 관리를 받고 있다. 음악 전공자들이 주도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전공자 중 하모니의 가치와 철학에 동의하는 강사를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아동들

4) The Harmony Program 2012와 2012년 7월 직접 기관 방문한 내용에서 발췌함

에게 음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강사들의 열의와 열정이 높은 편이다. 학교수업이 끝난 후 바로 학교에서 주 5일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동들의 접근성 및 출석률이 높은 편이다.

[표II-2] 하모니 프로그램 사업 개요

사업명	하모니 프로그램
운영주체	뉴욕시에서 운영하다 단독법인 설립
시작년도	2008년
목적(미션)	-음악을 통한 삶의 변화 -음대생 및 음대를 갓 졸업한 학생들을 강사로 훈련시켜 경제적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매일 음악레슨을 제공
참여대상	-지역 내 소외계층 아동 중 참여의지가 강한 아동 선발. -초등학생과 중학생중심으로 참여아동의 77%가 무상급식대상자임
현황	-2개의 오케스트라와 목금관 앙상블
운영원칙	-무상지원 -매일 레슨 -앙상블 강조, 연주를 통해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경험 제공 -재미강조 ; 즐거우면서 도전적인 맞춤형 레퍼토리 제공 -음악적 다양성 인정 -강사양성과 교육 중시함
교수법 & 커리큘럼	-강사교육과 표준화된 커리큘럼(동일한 교재와 주단위의 road map을 강사들에게 주어 한 사업 내에서 표준화된 교육을 실시) -참여하는 강사들의 피드백을 받아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며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음 -커리큘럼은 physical(악기를 다루는 자세, 합주에 임하는 자세 등), Theory(음악 이론), Sight Reading(악보보기), Repertoire(곡 연주) 측면에서 각 주마다 아이들이 습득해야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이 커리큘럼을 아이들이 잘 습득했는지 평가하는 도구도 자체 개발되어 있음
프로그램	-매일 음악 레슨, 악기제공, 교재, 물품 제공, 문화 활동
추진체계	-중앙경영체계
중앙재단의 역할	-모금, 홍보, 강사교육(프리 트레이닝 프로그램 통한 훈련)
예산(재정)	-정부지원 69%, 개인기부 15%, 재단이나 협회 12%, 기타 수입 4%로 이루어지며 이중 40%는 운영비, 60%는 프로그램 비용으로 쓰임

3) 영국사례 [인하모니 프로젝트 · 시스템아 잉글랜드] [시스템아 스코틀랜드]⁵⁾

영국의 대표적 엘 시스템아 교육 사업으로 영국내 시스템아 잉글랜드와 시스템아 스코틀랜드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시스템아 스코틀랜드는 빅노이즈 오케스트라로 알려져 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3년 글래스고우에 오케스트라를 세우기 위해 1,325백만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각 지역별로 별도의 운영주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운영하고 있다.

[표II-3] 인하모니 프로젝트 · 시스템아 잉글랜드 사업개요

사업명	인하모니 프로젝트 · 시스템아 잉글랜드
운영주체	정부설립기관 '뮤직매니스토' (각 지역의 운영주체 각기 다름)
시작년도	2007년 계획착수, 2009년 사업시작
목적(미션)	- 음악을 통해 어린이들이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추구함 - 목표 : 아이들의 집중력, 창조성, 팀웍, 목표의식 향상과 자부심을 기른다.
참여대상	- 4세 이후부터(지역마다 다름)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현황	- 영국 내 총 3개의 빈민지역 - 인하모니 리버풀, 인하모니 노리치, 인하모니 램베스 운영
운영원칙	- 악기와 모든 수업 무상 - 학교수업과 방과 후 수업의 혼합형태 - 주2회 ~ 4회 레슨, 주 1회 오케스트라와 리허설 - 개인 레슨 및 그룹레슨
교수법 & 커리큘럼	- 스즈키,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등의 교수법을 혼용한 효과적인 교육방식 개발 중 - 지역마다 커리큘럼 다름 - 연령마다 커리큘럼 다름 : 유아(4 ~ 6세) 노래 리듬치기, 7 ~ 9세 드럼 키보드 리코더, 8세부터 악기시작
프로그램	- 챔버 앙상블, 현악4중주단, 타악기수업, 합창, 마스터클래스, 여름학교, 집에서 연주 프로그램
추진체계	- 중앙 뮤직매니페스토 → 3개 지역의 각각 다른 운영주체와 파트너십 맺어 운영 - 공모방식을 통해 운영주체 선정
중앙재단의 역할	- 음악교육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방향제시 - 공통 아젠다 제시 - 음악교육의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Making Evry child's Music Matter교재) 제공
예산(재정)	- 매니페스토 전체예산 : 332백만 파운드 - 정부기금 + 기금보조 + 지방자치단체의 음악교육지원금 + 그 외 파트너십을 통한 자원충당

[표II -4] 시스템아 스코틀랜드 사업개요

사업명	시스템아 스코틀랜드(빅노이즈 라플릭)
운영주체	시스템아 스코틀랜드
시작년도	2008년
목적(미션)	-음악을 통해 삶을 바꾼다. -지역사회를 강하게 한다. -미래 오케스트라를 성장시킨다.
참여대상	-갓 태어난 아동부터 전 지역주민 참여 가능 -400여 명의 아동들 참여
현황	-라플릭 지역 초등학교 중심.
운영원칙	-연령대별 특성화된 교육 실시 -강도 높은 수업
교수법 & 커리큘럼	-베네수엘라에서 사용하는 레퍼토리를 아동들 연령대에 맞춰 분류하여 사용 -종이악기를 사용하여 세션별로 악기 다루는법, 오케스트라를 경험 하는 법을 세션별 개인 별로 레슨 -유아 주1회 수업, 초1학년 주2회 수업, 초2학년 학기 중 주3회, 방학 때 주5회씩 방과 후 오 케스트라 참여 -기초리듬 익히기와 함께 노래 부르기 등을 함께하면서 악기를 접하고 신뢰감과 자신감을 주고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게 함. -부모님이 참여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여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베이비 노이즈, 유아프로그램 -제1초등학교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SEN프로그램, 방과 후 오케스트라 -성인오케스트라, 자원봉사 프로그램, 멘토 프로그램 -집에서 여는 콘서트 프로그램 -부가프로그램 : 공연관람, 지역 및 전국단위공연, 방문강사 및 예술가 프로그램, 특별 이벤 트, 기타 창의적 프로그램 -음악버스 ; 학교로 가서 악기를 가르치고 연주함
중앙재단의 역할	-예산책정, 정책 개발, 조직의 전략적 플랜 운영, 모금, 홍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아 스코틀랜드 팀과 빅노이즈팀으로 나누어져 있음
예산(재정)	-scottish art council 기금 외 민간 재단과 개인기부자 기금으로 운영됨

5) <http://makeabignose.org.uk/sistemascotland/frequent-questions/> 참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1), 한국형 엘시스템아의 개발과 확산 p31

2. 국내 사례

1) 문화체육관광부 [꿈의 오케스트라]⁶⁾

한국형 엘시스테마 모델 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통해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내에 꿈의오케스트라 지원본부를 별도로 설치하여 2010년 8개소, 2011년 9개소(기존6, 신규3), 2012년 19개소(기존신규 포함)를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오케스트라 기초교육 및 합주교육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연간 총 20억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역문화재단과 국공립교향악단, 문예회관 등의 운영주체가 지역을 기반으로 오케스트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 내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그 대상으로 대부분 초등학교생을 단원으로 한다.

[표II-5] 꿈의오케스트라 사업개요

사업명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주체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지역거점형 꿈의 오케스트라는 운영주체가 각각 다름
시작년도	2010년
목적(미션)	- 문화예술 및 오케스트라 교육 전문기관과 전문 강사가 협력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 거점 인큐베이팅 - 오케스트라 특성을 매개로 상호학습과 협력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음악교육방법 실천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다면적 성장 유도
참여대상	- 지역 내 소외계층을 포함한 아동 청소년
현황	- 서울(성동), 원주, 청주, 안동, 전남(목포), 전북(부안), 제주, 경기(평택), 전남(무안), 경기(군포), 대전, 강원(춘천), 부산, 경기(부천), 전북(익산), 경기(화성), 경기(성남), 전북(전주), 전남(광주)
운영원칙	- 지역사회 내 음악교육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 전문 인력(강사), 시스템 구축
교수법 & 커리큘럼	- 지역운영주체의 특성에 따라 운영 - 현악기를 위주로 편성, 교재와 합주용 악보 강사진과 음악감독 통해 선정

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꿈의오케스트라 지식공유세미나 "함께 비상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P 61~ 요약발췌

	- 협력기관의 지역 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강사로 활동
프로그램	- 악기교육준비(악기놀이터), 이론수업 - 기초악기교육, 악기연주교육, 앙상블, 오케스트라합주 - 미디어활용 감상교육 - 음악캠프, 공연관람, 향상음악회, 정기발표회, 봉사연주회 등
추진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꿈의오케스트라지원단 → 20개 지역별 꿈의 오케스트라
중앙재단의 역할	- 중장기방안 마련 - 지역거점형 꿈의 오케스트라지원, 강사 및 관계자연수, 컨설팅 - 기존오케스트라 네트워크 지원 및 특성화 사업지원 - 지역단위 사업 운영기관 평가 및 효과성연구 - 오케스트라 교육관련 교수법 교재 개발, 수석강사 양성 -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국제교류 - 오케스트라 교육 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
예산(재정)	- 지역거점형 “꿈의오케스트라” 육성확대 20억 - 오케스트라 정책지원단 구성 및 운영 8억8백만 원(2012년 예산)

2) 초록우산 문화예술학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지부에서 실시한 ‘드림오케스트라’ 사업의 성과를 전체 지부로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본부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재단 본부를 통해 사업예산을 받고 지부에서 모금과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합창단을 운영하는 곳,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곳,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함께 운영하는 곳 등 지역특성에 따라 운영형태는 다르다. 문화예술학교를 통하여 단순히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음악놀이, 합창, 이론교육, 악기레슨, 합주 등이 연령과 흥미에 따라 이루어진다.

[표II -6] 초록우산 문화예술학교 사업개요

사업명	초록우산 문화예술학교
운영주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지부에서 운영)
시작년도	2012년
목적(미션)	-음악교육의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제시하고 협동 이해 질서 소속감 책임감 등의 가치를 심어주고자 함. -아동의 나이와 경험에 맞는 음악교육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오케스트라 공연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
참여대상 ⁷⁾	-제주지부의 경우 지역 내 12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131명이 참여 (음악놀이 28명, 합창단 27명, 오케스트라 76명)
현황	-합창단 2개, 오케스트라 8개(지역본부운영 5개 지부 내 복지관운영 4개)
교수법 & 커리큘럼	-학년별 구성(제주지부의 경우) • 초등 1, 2학년 : 예비학교(12주) 음악놀이 • 초등 3, 4학년 : 예비학교(12주) 음악놀이, 합창 이후 합창 • 초등 5, 6학년과 중학생 : 예비학교(12주) 합창(뮤지컬포함) → 이후 파트연습, 합주, 오케스트라 활동 -커리큘럼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강사교육은 없음.
프로그램	-음악놀이, 합창단, 오케스트라
추진체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본부 → 지부 → 지부 내 복지관 → 문화예술학교
중앙재단의 역할	-중장기 계획개발 -커리큘럼개발 -모금 및 홍보
예산(재정)	-악기비 포함하여 1억(제주지부) -지역별로 소요예산 다름

7) 초록우산 제주 문화예술학교 참여대상 현황

3) 농어촌 희망재단

한국마사회의 특별 적립금을 출연 받아 2005년 농림수산부 산하 창립된 재단법인이다.

2011년 문화사업으로 일환으로 농어촌 오케스트라 20개 단체를 선정하며 사업을 시작하였다.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운영체는 지역사회 음악전문 청소년 오케스트라, 개별 지역 아동센터 등 다양하다. 1년씩 지원하며 연장하는 형식으로 3년간 지원하며 기관마다 지원 액수는 다르다. 3개년 지원 후의 독립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표II-7] 농어촌 희망청소년 오케스트라 사업개요

사업명	금난새와 함께하는 농어촌 희망청소년 오케스트라 (Korea Young Dream Orchestra)
운영주체	농어촌 희망재단
시작년도	2011년
목적(미션)	-농어촌 지역사회의 청소년 음악교육 지원으로 지역문화 예술을 풍요롭게 하고 오케스트라 질서 배려, 책임과 의무의 가치를 전파하여 성숙한 시민교양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참여대상	-한개 지역에 30~50여 명의 단원을 선발 -초, 중, 고생 모두 참여가능
현황	-문화교실 20개 팀 구성 -강원(양구, 화천) 경기(안성, 양주, 파주) 경남(함양, 합천) 경북(금산, 서천, 연기, 괴산) 충남(서천) 충북(괴산, 단양) 충북(충주)
교수법 & 커리큘럼	-별도의 커리큘럼이나 교수법이 개발되거나 발행되지는 않으나 금난새 지휘자가 현장 지도함 -연 3~4회의 강사 및 대표실무자 워크샵 실시
프로그램 (사업내용)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대해 악기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며 금난새 예술 감독의 지도를 통해 기량 향상을 세종문화회관 합동 연주회 등의 다양한 활동 지원
추진체계	-농어촌희망재단 문화지원사업 → 지역별 대표기관
중앙재단의 역할	-지역기관 선정관리, 지원금 교부 -지속적인 워크샵 -합동 연주회개최
예산(재정)	-1개 기관 1차년도 4,000만 원, 2차년도 2,500~2,800만 원 -2012년도 총예산 8억3천만 원



선행연구고찰

1. 형식적 측면 :
방과 후 프로그램 관련 문헌
2. 내용적 측면 :
음악교육 효과 평가 관련 문헌

올키즈스트라 프로그램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아동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음악교육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형식과 내용 두 가지 측면의 문헌을 조사하였다.

1. 형식적 측면 : 방과 후 프로그램 관련 문헌

Harvard Family Research Project 방과 후 프로그램(<http://www.hfrp.org/out-of-school-time>) 평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54개의 방과 후 프로그램(27 준실험설계, 11 실험설계, 3 준실험설계와 실험설계 모두 사용) 평가 보고서를 메타 분석한 보고서(Little & Harris 2003)는 대부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아동 청소년의 학업태도, 학습열의, 학업성과 그리고 출석률을 제고하는 반면 비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아동 청소년의 사회성, 관계성,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아동 청소년의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을수록 성과도 높음을 보여준다. Durak and Weissberg(2007)가 실시한 73개 방과후 프로그램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은 39개 프로그램들이 자존감, 학업성취, 사회성 등 일곱 분야에 있어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한다. 이와는 반대로 Roth et al.(2010)은 프로그램 참여도와 성과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메타 분석 결과를 보고 한다. 이와 같이 방과 후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상반된 결과는 평가 방법론 상 오류(비교 그룹과의 비교를 하지 않거나 선택 바이어스, 또는 프로그램 도중 탈락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음) 또는 현장 연구 방법론의 현실적 한계(비교집단을 명확하게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있어서의 현실적 어려움 등)에 기인할 수도 있고(Apsler 2009 ; Wright 2007), 성과에 직결된 프로그램 특성(e.g. 뚜렷한 목표 명시 여부, 프로그램이 명확한 형식과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다(Durak & Weissberg 2007; Wright 2007).

2. 내용적 측면 : 음악교육 효과 평가 관련 문헌

Hallam, S.(2010) 이 음악교육이 아동 청소년의 지적, 사회적, 개인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많은 연구에서 음악교육의 기대하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교육에 참여하는 아동 청소년이 자신들이 받는 음악교육이 즐겁고 보람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할 때만 몰입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음악교육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경험적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1) 인지적 효과, (2)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3) 사회, 심리적 효과 등으로 분류된다.

1) 음악교육의 인지적 효과

인지적 효과 중에서 음악교육이 가장 현저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시공간적 추론(spatial - temporal reasoning) 능력이다(Bilhartz,T.D.et al. 1999; Graziano,A.B.et al. 1999; Gromko,J.E.& Poorman,A.S.1998; Rauscher,F.et al.1997). 더불어 음악교육이 언어적 기억력, 어휘력, 독해력 등 언어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Anvari, S. H. et al. 2002; Chan, A. S. et al. 1998; Ho, Y. et al. 2003; Long, M. 2007; Moreno, S. et al. 2011; Register, D. 2001).

[표Ⅲ-1] 음악교육의 인지적 효과 선행연구

저자	년도	제목	출처	종속변수	결론
Anvari, S. H. et al.	2002	Relations among musical skills, phonological processing, and early reading ability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읽기 능력	음악은 4~5세 유아의 읽기능력을 향상시킨다.
Bilhartz, T. D. et al.	1999	The effect of early music training on child cognitive develop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시공간적 추론 능력	음악교육은 4~6세 아동의 시공간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킨다.
Chamberlain, J. R.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beat competency and reading abilities of third-and fifth-grade students	박사학위 논문	읽기 능력	초등학교 학생(3, 5학년)의 박자 능력은 읽기 능력을 예측하지 못한다.

Chan, A. S. et al.	1998	Music training improves verbal memory	Nature	언어적, 시각적 기억능력	음악훈련을 받은 성인들은 그러한 훈련을 받지 않은 성인들에 비해서 언어적 기억 능력은 뛰어나지만 시각적 기억능력에는 차이가 없다.
Costa-Giomi, E.	1999	The effects of three years of piano instruction on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공간 인지 능력	1~2년 동안 피아노 레슨을 받은 초등학교 4~6학년 아동들의 공간 인지 능력은 비교 집단에 비해서 우월하지만 3년 이상 받은 아동들은 비교집단과 차이가 없었다.
Graziano, A. B. et al.	1999	Enhanced learning of proportional math through music training and spatial-temporal training	Neurological Research	시공간적 추론 능력	키보드 레슨을 받은 유아들은 비교집단에 비해서 우월한 시공간적 추론 능력을 보였다. 한편, 키보드 레슨과 시간-공간 수학 교육 비디오 시청을 병행한 2학년 학생들은 키보드 레슨을 받지 않고 시간-공간 수학 교육 비디오만 시청한 비교집단에 비해 분수 / 소수 개념을 더 잘 이해했다.
Gromko, J. E. & Poorman, A. S.	1998	The effect of music training on preschoolers' spatial-temporal task performanc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시공간적 추론 능력	음악 훈련을 받은 유아들은 비교집단에 비해 우월한 시공간적 추론 능력을 보인다.
Ho, Y. et al.	2003	Music training improves verbal but not visual memory :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plorations in children	Neuropsychology	언어적 기억, 시각적 기억 능력	음악 훈련을 받은 6~15세 아동들은 비교 집단 아동들에 비해서 우월한 언어적 기억 능력을 보인 반면, 시각적 기억 능력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다.
Long, M	2007	The effect of a music intervention on the temporal organisation of reading skills	박사학위 논문	독해력	평균 이하의 지적능력을 가진 아동들에게 음악 훈련을 실시한 결과 독해력이 향상되었다.

Moreno, S. et al.	2011	Short –Term Music Training Enhances Verbal Intelligence and Executive Function	Psychological Science	어휘력	짧은 기간 동안의 음악 훈련을 받은 아동들의 언어 능력(어휘력)이 향상되었다.
Portowitz A. et al.	2009	Underlying mechanisms linking music education and cognitive modifiability	Research Studies in Music Education	인지 능력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저학력 아동들에게 음악 훈련(음악감상, 악기레슨, 합주)을 실시한 결과 비교집단 아동들에 비해서 인지 능력 테스트에서 우월한 결과를 보였다.
Rauscher, F. et al.	1997	Music training causes long –term enhancement of preschool children’s spatial –temporal reasoning	Neurological Research	시공간적 추론 능력	키보드 레슨을 받은 아동들은 컴퓨터 레슨을 받은 아동들이나 비교집단 아동들에 비해서 우월한 시공간적 추론 능력을 보였다.
Register, D.	2001	The Effects of an Early Intervention Music Curriculum on Prereading/Writing	Journal of Music Therapy	읽기 쓰기 능력	읽기 / 쓰기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계된 음악 훈련을 받은 4~5세 아동들은 일반적인 읽기/쓰기 훈련을 받은 비교집단 아동들에 보다 읽기 / 쓰기 능력이 뛰어났다.
Rickard, N. et al.	2012	Absence of widespread psychosocial and cognitive effects of school –based music instruction in 10 –13 –year –old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IQ	학교 내에서 음악, 드라마, 미술 과목을 6.5 달 동안 공부한 10~13세 아동들의 IQ 의 변화가 없었다.
Schellenberg, E. G.	2004	Music Lessons Enhance IQ	Psychological Science	IQ	음악(키보드, 성악) 레슨을 1년 동안 받은 6세 아동들은 비교집단 아동들에 비해 레슨 전 후의 IQ 증가가 더 컸다.

2) 음악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음악교육이 아동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Butzlaff, R. 2000 ; Gardiner, M. F. et al. 1996 ; Haley, J. A. 2001 ; Piro, J. M. & Ortiz, C. 2009 ; Ruppert, S. S. 2006, Southgate, D. & Roscigno, V. 2009 ; Vaughn, K. 2000; Waller, G. 2007 ; Whitehead B. J. 2001)과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들(Costa - Giomi, E. 2004 ; Hodges, D. & O'Connell, D. 2005 ; Kemmerer, K. P. 2003)로 구분된다.

[표Ⅲ-2] 음악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선행연구

저자	년도	제목	출처	종속변수	결론
Butzlaff, R.	2000	Can music be used to teach reading?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읽기 표준 점수	24개의 기존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음악 레슨이 읽기 표준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Costa - Giomi, E.	2004	Effects of three years of piano instruction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school performance and self-esteem	Psychology of Music	음악, 읽기, 수학 점수	3년간 피아노 레슨을 받은 4학년 학생들의 음악 점수는 향상되었으나 읽기, 수학 점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Gardiner, M. F. et al.	1996	Learning improved by arts training	Nature	읽기 수학 점수	순차적 능력 개발(sequenced skill development)을 도입한 음악 교육을 7개월 동안 받은 5~7세 아동들은 일반 음악 교육을 받은 비교집단 아동들에 수학 점수는 우월했으나 읽기 점수는 두 집단 아동들 간에 차이가 없었다.
Haley, J. A.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rumental music instru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fourth-grade students	박사 학위 논문	산술, 단어 맞추기, 철자법, 단어 해독	악기합주(밴드 또는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에 참여한 4학년 아동들은 비교집단 아동들에 비해서 산술과 단어 맞추기 능력이 더 뛰어났으나, 철자법이나 단어 해독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Hodges, D. & O'Connell, D.	2005	The impact of music educ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Sounds of Learning from http://performingarts.uncg.edu/sites/default/files/solproject_final.pdf (2012 8/28 발췌)	학업 성취도	음악 교육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였는데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Kemmerer, K. P.	2003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hours spent in general music class and reading skills in kindergarten through grade 3	박사 학위 논문	읽기 언어 점수	유치원~3학년 아동들이 참여하는 음악 시간을 늘리고 4학년이 된 아동들의 읽기, 언어의 표준 성적을 측정해서 비교해 보았지만 차이가 없었다.
Piro, J. M. & Ortiz, C.	2009	The effect of piano lessons on the vocabulary and verbal sequencing skills of primary grade students	Psychology of Music	표준 언어 점수	3년간 피아노 레슨을 받은 초등학교생들이 비교집단 아동들에 비해 표준 언어 점수가 더 높았다.
Ruppert, S. S.	2006	Critical evidence: how the arts benefit student achievement	National Assembly of State Arts Agencies	수학 성적	기존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음악 수업(밴드 또는 오케스트라)을 들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12학년, SAT 수학 성적이 비교 집단 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소외 계층 학생들에게서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Southgate, D. & Roscigno, V.	2009	The impact of music on childhood and adolescent achievement	Social Science Quarterly	수학, 읽기 성적	US Department of Education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악 교육은 그 자체가 학업 성취도의 예측 변수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매개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aughn, K.	2000	Music and mathematics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수학 성적	20개의 상관분석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는 자발적 음악 강습과 수학 성적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6개의 실험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은 학교 내 음악 커리큘럼을 받은 학생들(비자발적 참여도 포함)의 수학 성적이 더 높음을 보여준다.

Waller, G.	2007	The impact of music educ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attendance rate, and student conduct on the 2006 senior class in one southeast virginia public school division	박사 학위 논문	학업 성취도	음악 수업을 들은 고등학생들은 비교집단 학생들에 비해서 학업 성취도가 더 높다.
Whitehead B. J.	2001	The effect of music – intensive intervention on mathematics score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박사 학위 논문	표준 수학 성적	고강도(20주 동안 하루 50분씩 매일 음악 수업을 받음), 중강도(20주 동안 주 1회 50 분간 음악 수업을 받음), 그리고 음악 수업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에 할당된 6~12학년 학생들의 표준 수학 성적을 조사한 결과 고강도 집단이 가장 큰 향상을 보였고 비교집단이 가장 미미한 향상을 보였다.
Whitehead B. J.	2001	The effect of music – intensive intervention on mathematics score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박사 학위 논문	표준 수학 성적	고강도(20주 동안 하루 50분씩 매일 음악 수업을 받음), 중강도(20주 동안 주 1회 50 분간 음악 수업을 받음), 그리고 음악 수업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에 할당된 6~12학년 학생들의 표준 수학 성적을 조사한 결과 고강도 집단이 가장 큰 향상을 보였고 비교집단이 가장 미미한 향상을 보였다.

3) 음악 교육의 심리 사회적 효과

음악 교육이 아동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에서 대부분 뚜렷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사회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충분히 길지 않은 교육 기간(Anderson H. K. & Rickard N. S. 2007 ; Konx – Anderson, H. & Konx – Anderson, H. & Rickard, N. 2007) 이나 충분하지 못한 교육의 강도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추측된다.

[표Ⅲ-3] 음악교육의 심리사회적 효과 선행연구

저자	년도	제목	출처	종속변수	결론
Anderson H. K. & Rickard N. S.	2007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short-term effects of an active class-based music program on young adolescents' self-esteem and anger expression	Australian Journal of Music Education	자존감, 분노의 표현	악기 중심의 음악 수업을 들은 7학년 학생 집단과, 일반 음악 수업을 들은 비교집단 모두 4주의 음악 수업 전후 자존감과 분노의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
Costa-Giomi, E.	2004	Effects of three years of piano instruction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school performance and self-esteem	Psychology of Music	자존감	3년간 피아노 레슨을 받은 4학년 아동들의 자존감이 향상되었다.
Hendricks, C. et al.	1999	Using music techniques to treat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우울감	10주간의 학교 내 음악 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우울감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다.
Konx-Anderson, H. & Rickard, N.	2007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short-term effects of an active class-based music program on young adolescents' self-esteem and anger expression	Australian Journal of Music Education	자존감, 분노의 표현	4주간의 그룹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평균연령 12세)의 자존감과 분노의 표현에 변화가 없었다.

Lindbald, F. et al.	2007	Music intervention for 5th and 6th graders—effects on development and cortisol secretion	Stress and Health	자존감, 불안, 스트레스	주 1시간 음악 치료를 받은 5~6학년 아동들의 생물학적 척도(스트레스 레벨)는 낮아졌지만, 심리학적 척도(자존감, Social Anxiety Scale)에는 차이가 없었다.
Portowitz A. et al.	2009	Underlying mechanisms linking music education and cognitive modifiability	Research Studies in Music Education	자존감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저학력 아동들에게 음악 훈련(음악감상, 악기레슨, 합주)을 실시한 결과 음악 훈련 전후 자존감의 차이 면에서 음악 집단과 비교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Rickard, N. et al.	2012	Absence of widespread psychosocial and cognitive effects of school-based music instruction in 10–13-year-old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동기와 몰입, 자존감, 사회적 능력, 우울감, 분노, 학교에 대한 태도	학교 내에서 음악, 드라마, 과목을 6.5 달 동안 공부한 10~13세 아동들 간에 음악 집단과 드라마 집단 간에 동기와 몰입, 자존감, 사회적 능력, 우울감, 분노, 학교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없었다.
Rickson, D. & Watkins, W.	2003	Music therapy to promote prosocial behaviors in aggressive adolescent boys—a pilot study	Journal of Music Therapy	친사회적 행동	음악 치료가 비행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없었다.
Ruppert, S. S.	2006	Critical evidence: how the arts benefit student achievement	National Assembly of State Arts Agencies	자신감, 자존감	8–19세의 위기 청소년(소년원 거주 포함)들이 기타를 배워서 또래 친구들에게 연주해 주는 일이 자신감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했다. 예술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위기청소년들이 학교를 자퇴하는 것을 막는 수단이 된다.

Waller, G.	2007	The impact of music educ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attendance rate, and student conduct on the 2006 senior class in one southeast virginia public school division	박사 학위 논문	출석률, 학생 행동	음악 수업을 들은 고등학생들은 비교집단 학생들 보다 높은 출석률과 더 나은 행동을 보인다.
---------------	------	---	----------	------------	--

결론적으로 음악 교육이 아동 청소년의 인지적 능력, 학업성취도, 사회 심리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결론은 그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다. Rickard, N. et al.(2012)는 음악 교육의 효과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교습이나 사회 경제적 소외계층의 아동 청소년들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추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배우는 즐거움 자체가 음악 교육 커리큘럼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직모델 개발

1. 개발과정
2. 로직모델

1. 개발과정

1) 평가의 목적

올키즈스트라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목적은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과정(process) 평가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후원자를 비롯한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프로그램을 계속해 나갈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결과(outcome)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Harris, 2011). 특히 오케스트라를 기반으로 하는 아동 청소년 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모델로 사회적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올키즈스트라의 장기적 비전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이 본래 의도했던 결과를 달성했는가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외부와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업무의 효율성을 평가해서 그 실행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과정 역시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평가는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입시 위주의 한국 교육과 고비용의 사교육에 의지해야 하는 음악교육 현실, 특히 기존의 음악교육 프로그램들이 개인연주 기량 향상 바탕으로 엘리트 연주자 양성이 주목적이 되어온 현실에서 올키즈스트라 프로그램 같은 아마추어 지역 오케스트라 중심의 프로그램은 특히 소외계층 아동들의 음악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된 지난 3년간 프로그램이 진행된 지역사회와 프로그램 참여 아동들로부터 그 욕구는 계속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올키즈스트라 프로그램은 2009년 외부기관 위탁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서 2012년까지 매년 과정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내부적 업무를 개선해 왔다. 레슨 합주 장소 섭외와 프로그램 세부일정 등의 협의를 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한 지역의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등 복잡한 프로그램 실행 환경으로 인하여 3년간 많은 시행착오와 개선의 피드백 과정을 거쳤으며 2012년 말에 이르러 프로그램이 안정화 국면에 돌입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참여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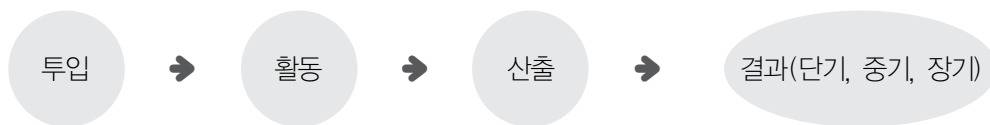
들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과연 미래에 계속적으로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인가에 관련하여 결과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에 2012년에 본격적으로 성과평가를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2) 로직모델의 기본틀

대다수 아동 청소년 예술 프로그램의 평가 방법론으로 사용되고 있는 로직모델(Scottish Government Social Research 2011 ; Wright & Robin 2007)은 서비스의 투입에서 결과까지의 연결고리를 그림의 형태로 표시하여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도록 한 모델이다. 로직모델은 사업의 투입, 과정, 산출, 성과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울키즈스트라 역시 단순히 사업의 결과를 측정하기보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을 검토하고, 관련자들 간에 사업의 목적과 활동, 산출, 결과 등에 대해 논의 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로직모델을 평가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로직모델은 첫째, 사업의 목적과 목표들을 명확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업 관련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둘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의 운영 흐름을 보여주는 편리한 시각적 장치이며, 셋째, 단기와 장기성과를 구별해주고, 사업의 구체적이고 통합적 부분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정익중 외 2008). 일반적으로 로직모델의 양식은 아래와 같다.

[그림Ⅳ-1] 로직모델 양식



그림Ⅳ-2는 Little et al.(2002)가 제안한 틀에 맞추어 구성된 울키즈스트라 사업 평가의 로직모델을 보여준다.

[그림Ⅳ-2] 로직모델 분석틀

Program		Outcomes
① 궁극적인 목적(Desired Results) ▼		⑥ 결과물(Indicators)
② 주요 상황과 요인(Motivating Conditions and Causes) ▼		
③ 전략(Strategies) ▼		⑤ 산출(Performance Measures) ▲
④ 프로그램(Activities) ➡		

자료 : Priscilla M. D. Little , Sharon DuPree, Sharon Deich(2002), Harvard Family Research Projects. p.18

그림 Ⅳ-2에서 제시한 로직모델은 좌측의 ‘프로그램’의 측면과 우측의 ‘결과물’의 측면이 있다. 모델을 만드는 흐름은 ① → ⑥번으로 진행되며, ① 궁극적인 목적(Desired Results) : 본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명확히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② 주요상황과 요인(Motivating Condition and Causes) :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 변수, 사회적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③ 전략(Strategies) : 이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 ④ 프로그램(Activities) :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한다. ⑤ 산출(Performance Measures) : 프로그램의 결과로 나타난 즉각적인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마련하는 것인데, 프로그램 성과 척도에는 프로그램 실행 과정평가에서 나타나는 산출(outputs)을 측정하는 노력 척도(measure of effort)와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결과평가에서 나타나는 결과물(outcomes)을 측정하는 효과 척도(measure of effect)가 있다. ⑥ 결과물(Indicators) : 본 사업의 산출이 좀 더 폭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물을 측정해 내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제시한 모델에 따라 올키즈스트라 사업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초기 모형은 아래와 같다.

[그림Ⅳ-3] 올키즈스트라 로직모델 초기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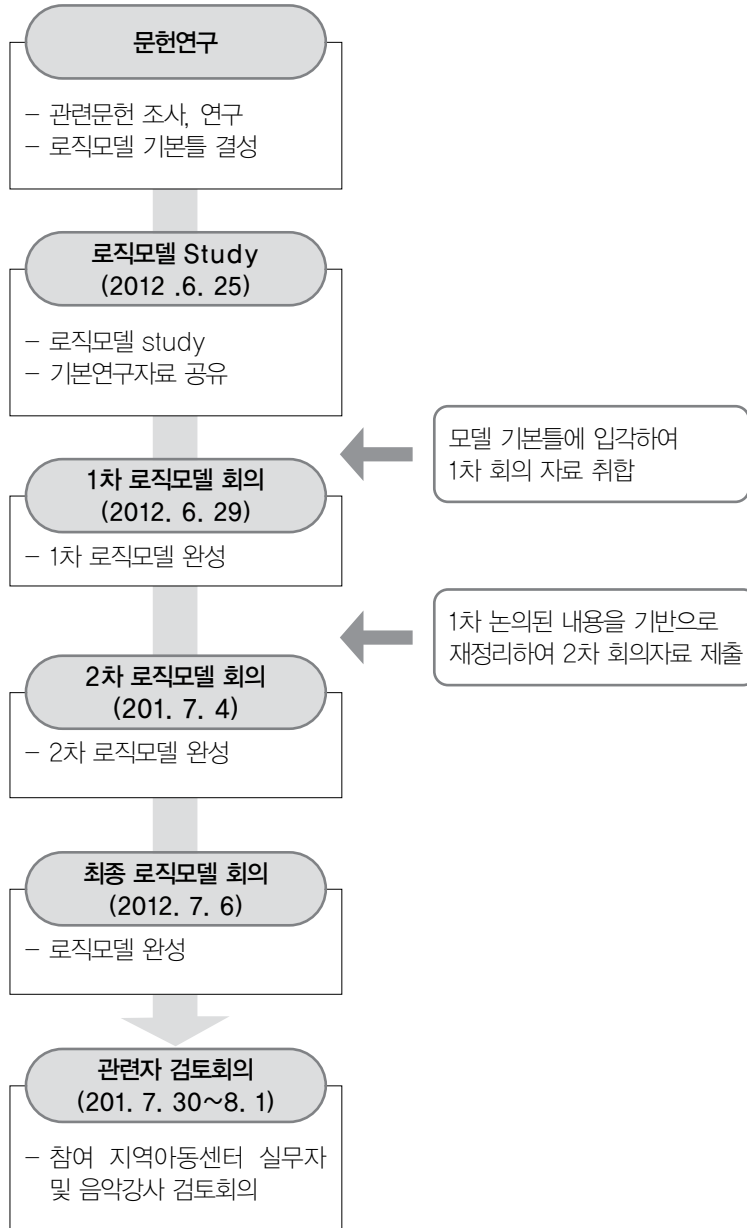
모델의 “Program” 요소부분	“Outcomes” 측정
Desired Results -여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 Motivation Conditions and Causes -저소득층 가정의 가정환경 (보호자의 방임, 낮은 투자 등)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정서적 문제 (낮은 자존감, 무기력감 등) -낮은 학습능력 -낮은 사회성 -문화예술 교육 격차가 심함 (저소득층 소외아동의 예술적 경험 부족) -양적활동 위주의 복지현장 -지역아동센터의 단발적, 획일적 프로그램 -빈곤의 되물림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Indicators Ultimate Indicators -지역사회일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건강한 진로선택 증가) -관계의 향상(친구 관계, 학교생활, 가족관계 등) -관악단에 대한 지역사회 인지도 증가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역사회, 정치, 교육의 관심과 지지율 -다양한 활동을 고려하는 교육제도의 긍정적인 변화 -아동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의 증가 Interim Indicators -참여아동의 자존감, 자아효능감, 자기주도성, 자신감 향상 -장래에 대한 포부, 기대감 -문제행동 수의 감소 -부모, 형제, 의미있는 누군가가 아이들 활동에 대한 관심 및 지지향상 -지역사회 안에서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증가

Program Strategies -저소득 소외가정 아동에게 음악(연주)의 기회 제공(음악교육시스템 구축, 다양한 예술적 경험) -화합능력(하모니, 협동심)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 Program Activities -기초음악교육 -악기레슨 & 연습 -오케스트라 합주 -지역행사 및 초청공연 -다양한 유닛활동 -연주회, 음악캠프 -공연관람 -전문레슨강사 지원(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 -자원봉사자, 매니저 활동 -지역사회연계, 관련기관 미팅, 다양한 전문가 미팅	Program Performance Measures Measures of Effect -동기부여 Motivation, 출석률 / 지속율 향상, 몰입 (관악단 애착증가, 자발적 참여) -개인 연주실력 향상, 관악단 합주실력 향상 -부모(보호자)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Measures of Effort - 참여아동수, 출석율, 변동률 - 레슨, 합주, 연주회 등 프로그램 실행 횟수 - 합주곡 횟수, 커리큘럼 구축 - 연계기관 미팅 횟수 - 만족도
---	---

3) 로직모델 개발 과정

올키즈스트라 로직모델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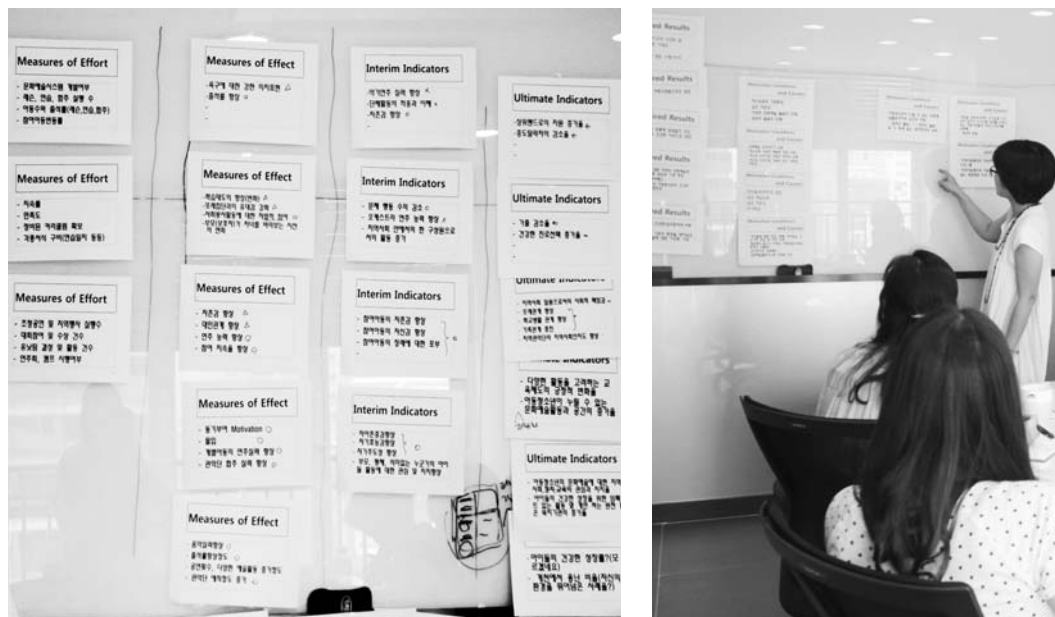
[그림Ⅳ-4] 올키즈스트라 로직모델 개발 절차



올키즈스트라 사업평가에 대한 문헌연구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Ⅲ. 선행연구 고찰 참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로직모델과 기존 문헌연구에 대한 스터디가 진행되었다. 기본틀을 숙지한 상태에서 분석틀에 맞추어 사업 담당자들이 본인의 생각을 1차 정리한 자료를 함께 놓고 Brain Storming을 진행하였다. 특정인의 생각이 주도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작성해온 자료를 함께 놓고 논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같은 방식으로 3차에 걸친 회의과정을 통하여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과 사회적 배경, 사업활동, 결과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술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과정은 단순히 로직모델을 개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주체인 [함께걷는아이들]에서 먼저 본 사업의 목적과 활동, 결과를 충분히 고민하여 숙지하고 이를 분석틀에 맞추어 정리하는 과정을 갖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인지하고, 목적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 등 전반적인 사업 분석의 시간이 되었다. 사무국에서 1차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본 사업의 파트너인 지역아동센터 실무자와 음악강사들에게 공유하여 본 사업의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같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었다.

[그림Ⅳ-5] 로직모델 회의 과정



2. 로직모델

1) 자료 수집(Data Source)

올키즈스트라 로직모델에 의한 결과물(Outcome)에 대한 자료 수집과 자료수집 시기는 아래와 같다.

[표Ⅳ-1] 올키즈스트라 평가 자료수집

시기	Outcome	Data Source	자료수집시기
단기	아동의 음악실력 - 아동연주실력, 기초음악지식 - 합주실력	지휘자 Test 연주회 공연	3월, 8월 연주회시
	아동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아동설문지	연말
	아동의 몰입, 동기부여	아동설문지 Interview, Focus Group	연말
	아동의 자존감		
	아동의 협동심		
	아동의 사회성 : 친구관계, 가족관계		
	오케스트라 인지도 향상	지역사회 관련자 설문 / 행사요청건수	연말
중기	오케스트라 관련 인프라 축적	자원봉사자수, 유관기관수 등	연말
	아동의 진로성숙도, 미래에 대한 생각	아동설문지 Interview, Focus Group	연말
	오케스트라 모델구축	확산모델 여부	사업5년차
장기	음대진학율	음대진학율	5년 이후
	지역사회 내 문화예술활동 관심 증가	설문 / 실태조사	5년 이후
	문화 예술관련 정책 변화	정책관련변화 기술	5년 이후

2) 올키즈스트라 최종 로직모델

(1) 궁극적인 목적

올키즈스트라 사업의 로직모델은 분석틀에 따라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Desired Results)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결정, 합의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올키즈스트라는,

- 1) 모든 아동청소년이 음악을 통하여 심리, 정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며,
- 2)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여건을 조성하는 일
- 3)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공평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2) 사회적 배경

궁극적인 목적을 설정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원인으로는, 저소득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한국 사회의 모든 아동 청소년들이 낮은 자존감, 무기력감, 자신감 결여,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성향 등 전반적으로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 아동 청소년의 높은 자살률, 청소년 비행율과 청소년의 폭력이 나날이 더욱 심각해 저가는 현상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다양한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있는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해, 저소득층의 경우 보호자의 낮은 관심, 정보와 경제력의 문제 등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사회 측면에서 살펴보면, 저소득 가정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역의 교육, 복지 프로그램이 대부분 단발적인 사업으로 그치고 있어 장기적인 지원을 요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어려우며, 전반적으로 비용이 높고 전문성을 요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 전반의 측면에서 보면,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이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현 한국 사회에서는 공교육에서도 음악을 비롯한 예체능 활동이 등한시 되어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전공을 준비하는 입시생 이외에는 음악을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음악교육, 특히 악기교육은 고비용의 일부 전공생만을 위한 교육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음악강사의 경우에도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음악을 통한 아이들의 성장을 지도하는 ‘교사’로서의 강사보다 연주 기술을 가르치는 ‘기능인’ 으로서의 음악강사만이 양성되고 있는 현실이다.

(3) 프로그램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시한 올키즈스트라의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아동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 악기대여, 악기레슨, 악기연습, 오케스트라 합주, 음악이론교육
- 음악캠프, 정기연주회
- 지역행사, 초청공연(관악단, 유닛)
- 문화예술 공연관람
- 음악실력 평가

② 강사, 기관, 지역사회 관련 프로그램

- 음악강사 양성교육, 참여기관 교육
- 지역사회 기관 연계, 미팅
- 레퍼토리, 커리큘럼 개발

- 관련 자문 전문가 미팅
- 부모간담회, 설명회, 가족참여 행사 등
- 자원봉사자, 매니저 활동

(4) 산출

산출은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바로 얻을 수 있는 결과물로 간단하면서도 즉각적인 지표이다. 본 사업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얻을 수 있는 산출은 아래와 같다.

① 아동청소년 관련

- 프로그램 참여아동수, 참여시간, 출석률
- 연주캠프, 연주회 횟수, 참여자수, 만족도
- 지역행사 횟수, 참석자수
- 공연관람 횟수, 참석자수

② 강사, 기관, 지역사회 관련

- 강사, 기관교육 횟수, 참석자수
- 지역사회기관 연계, 미팅 횟수, 연계기관 개수
- 레퍼토리, 커리큘럼 개발 및 실행여부
- 관련자문 전문가 미팅 횟수, 연계전문가 수
- 부모간담회, 설명회, 가족참여행사 등 횟수, 참여자 수
- 자원봉사자, 매니저 활동시간, 지속율 등

(5) 결과물

올키즈스트라 사업의 결과물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었으며, 단기는 3년 이내, 중기는 3~5년 이내, 장기는 5년 이상의 결과로 보았다. 보았다. 결과물은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음악 강사와 지역사회 기관 실무자와의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도출하였다. 문헌연구에 따르면 인지적 부분이나 학업성취도의 향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인지적 부분을 측정하는 데는 별도의 세부 척도와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차후 과제로 미루었다.

① 단기 결과물

단기 결과물은 아동들에게 나타난 변화와 가족과 지역사회에 나타난 변화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아동〉

- 참여아동, 청소년의 음악실력 향상 : 본 사업을 통해 악기를 지원받고 전문가 레슨을 통하여 악기 연주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가장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음악 실력의 향상은 년 초, 연중 2회에 걸친 악기 실력 테스트를 통하여 평가하며 년1회 있는 정기연주회를 통하여 실력을 평가받는 기회로 갖는다.
- 아동의 몰입, 동기부여 향상 : 본 사업에 참여하면서 악기를 배우는 것에 몰입하고 동기부여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것은 기존 개발된 척도와 개별 인터뷰를 통하여 평가한다.
- 자존감 향상 : 기존 연구 결과를 보면, 음악을 통한 자존감 향상을 음악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뽑는 것을 볼 수 있다. 올키즈스트라 사업 역시, 본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존감이 향상 되는 것을 단기 사업성과로 설정하였으며, 기존에 개발된 척도와 개별 인터뷰를 통하여 이를 평가한다.
- 협동심 향상 : 올키즈스트라 사업이 단지 개별적인 악기를 배우는 사업이 아니라 합주를 통하

여 함께 음악을 만드는 오케스트라 사업인 만큼 이를 통한 협동심 증가를 3년 이내의 단기성 과로 잡았다. 협동심 역시 기존에 개발된 척도와 개별 인터뷰를 통하여 평가한다.

-아동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 : 올키즈스트라 사업에 참여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증가하였는지 살펴보고, 설문을 통하여 평가한다.

〈가족 및 지역사회〉

- 단위 가족의 관악단 및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 가족들이 참여아동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관심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는 것을 단기 사업의 성과로 보았으며, 가족 설문과 인터뷰를 통하여 평가한다.
- 본 오케스트라의 인지도 향상 : 올키즈스트라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알려지고 지역 행사에서 공연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등 지역사회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을 3년 이내 단기성과로 잡았으며, 공연횟수 및 지역사회 설문 등을 통하여 평가한다.
- 관련 인프라 축적 : 지역사회 내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지역사회 자원들이 본 사업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축적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② 중기 결과물

단기결과물이 쌓이고 영향을 미쳐서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결과로,

- 사회성(친구관계, 가족관계) 향상 : 사회성을 친구관계와 가족관계로 나누어 중기성과로 살펴 보았으며, 음악 사업에 참여하면서 친구관계가 원만해지고, 가족과의 친밀도와 관계가 향상되었는지를 사업성과로 본다. 사회성도 기존에 개발된 척도와 개별 인터뷰를 통하여 평가한다.
- 아동의 진로성숙도, 미래에 대한 생각 : 음악 사업을 통하여 참여 아동,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포부를 좀 더 가지게 되고 본인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모델 구축 : 올키즈스트라 사업이 지역사회에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여 타 사업의 모델이 되어 벤치마킹 되는 것을 중기 결과물로 보았다.

③ 장기 결과물

5년 이후에 나타나는 장기 결과물로는,

- 음대 진학률 증가 : 본 사업을 통하여 음악을 처음 접하게 된 아동, 청소년 중에 재능을 가진
단원들이 음악을 전공하게 되고 다시 이러한 단원들이 후배를 양성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가
지게 되는 것이다.
- 지역사회 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 : 본 사업의 파급으로 지역사회가 좀 더 문화예
술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 문화예술 관련된 정책의 변화 : 올키즈스트라 사업을 통해 소외된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
술과 관련된 정책이 마련되고 보완되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장기 결과물로 보았다.

[그림Ⅳ-6] 율키즈스트라 로직모델

Desired Results	Motivation Conditions and Causes	Program Activities	Measure of Effort	Outcome
모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심리, 정서, 사회적 성장	(저소득)아동청소년의 정서적 문제 - 낮은 자존감, 무기력감, 자신감 결여, 이기적이고 배려할 줄 모르는 아이들 등 (저소득)아동청소년의 가정의 문제 - 보호자의 관심, 정보, 경제력 문제	<아동관련> - 악기대여, 레슨, 연습, 합주, 이론교육 - 캠프, 연주회 - 지역행사(초청공연)관악단, 유닛 - 문화예술공연관람 - 음악실력 평가	<아동관련> - 참여동수, 참여시간, 출석율 - 캠프, 연주회횟수, 참여자수, 만족도 - 지역행사(초청공연)횟수, 참석자수 - 공연관람횟수, 참석자수 - 음악실력 평가 여부	단기 - 아동의 음악실력 향상(연주실력, 기초음악지식, 합주실력) - 아동의 몰입, 동기부여 - 자존감 - Teamwork(협동심, 화합능력, 하모니) - 아동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 가족의 관악단 및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 오케스트라 인지도 향상 - 인프라 구축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	지역사회관련 - 단발적 프로그램 위주의 복지 - 지 한정,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부족, 활동 부족	<강사, 기관, 지역사회 등> - 강사, 기관교육 - 지역사회기관 연계, 미팅 - 레퍼토리, 커리큘럼 개발 - 관련자문 전문가 미팅 - 부모 간담회, 설명회 가 - 축제 참여 행사 등 - 자원봉사자, 매니저 활동	<강사, 기관, 지역사회 등> - 강사, 기관교육횟수, 참석자수 - 지역사회기관연계, 미팅횟수, 연계기관 갯수 - 레퍼토리, 커리큘럼개발, 실행여부 - 관련자문 전문가 미팅횟수, 연계전문가수 - 부모간담회, 설명회, 가족참여행사 등 횟수, 참석자수 - 자원봉사자, 매니저활동시간, 지 - 수율	중기 - 사회성(친구관계, 가족관계) - 아동의 진로성숙도(미래에대한생각) - 청소년 오케스트라 모델 구축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공평한 문화예술 환경조성	사회전반 - 임시위주의 교육제도 -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고비용, 공공교육에서의 역할등 부재 등) - 올바른 교육관을 가진 문화예술강사 양성 못함			장기 - 음대진학율 - 지역사회 내 문화예술 활동 관심 증가 - 예술관련 정책변화



V 평가연구방법

1. 평가 방법론의 선택
2. 양적 평가
3. 질적 평가

1. 평가 방법론의 선택

올키즈스트라 평가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표 V-1] 프로그램 평가 방법론

	과정(Process) 평가	결과(Outcome) 평가
정성적 (Qualitative) / 기술적 (Descriptive) 데이터	개방형 설문 (Open-Ended Survey)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형태(e.g. 음악 기 초 교육에 대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개방형 설문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기대 되는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보려는 노력의 형태(e.g. 올키즈스트라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아동들 의 협동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정량적 (Quantitative) 데이터	프로그램 과정에 대해서 측정한 수치로 표현된 데이터로, 이 수치는 일정 기간이 나 시점에서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snapshot 이나 변화 추이 (e.g. 분기별 출 석률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형태	실험 또는 준실험 연구를 통해서 프로그램 참여 집단과 비교집단에서 추출한 어떤 호 과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에 대해서 두 집 단이 유의미하게 다른가 하는 여부를 통계 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형태

출처 : Harris (2011) "Afterschool evaluationlol"

Apsler(2009)는 미국에서 최근 10여 년간 실행되어진 대다수의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들의 평가 연구들이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나 도중 탈락자와 관련한 선택 바이어스(selection bias)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비교 집단과의 비교 연구를 하지 않는 등, 그 방법론에 오류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는 대부분 방과 후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연구 환경이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그 환경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필드연구의 한계점에 기인한다.

Apsler(2007)가 지적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실행 전(pre-test)과 프로그램 시행 후(post-test)에 걸쳐서 올키즈스트라 집단과 비교 집단을 비교하는 준실험 연구 디자인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평가 시점에는 두 집단 모두 사업이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사업 전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 시행 전(pre-test) 데이터 없이 음악 프로그램 참여 후(post-test)의 데이터만 서로 비교하는 Static Group Comparison을 본 평가연구의 디자인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디자인의 가장 큰 단점은 프로그램 실행 전에 이미 올키즈스트라 집단과 비교 집단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따라서 프로그램 사업집단과 비교집단에 나타난 결과의 차이가 사업의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들로 인한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전(pre-test) 데이터가 없다는 점은 longitudinal 연구로 보완할 수 있는데 전년도 평가 데이터가 그 다음해 평가의 사전 데이터로 계속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프로그램 요인으로 인한 효과 이외에 대안적 설명(alternative explanation)에 대한 가능성은 정성적(질적) 분석으로 조사하여 보완할 것이다.

2. 양적 평가

1) 연구대상

올키즈스트라 사업의 양적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 ① 올키즈스트라 사업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업 성과 비교 분석
- ② 올키즈스트라 사업 내부 성과 분석
- ③ 올키즈스트라 사업 만족도 분석

세 가지 분석 모두에서 올키즈스트라 사업 평가에 참여한 대상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165명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총 157명의 설문을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올키즈스트라 사업과의 비교집단으로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음악사업(관현악, 실용음악)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에게 동일한 설문을 진행하여 148개를 수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표V-2] 비교집단 구성

지역	기관 / 시설명	음악프로그램	설문참여 아동 수
청주시	청주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관현악 오케스트라	25
포항시	선린애육원	현악 오케스트라	32
대전시	남대전지역아동센터	관현악기	16
삼척시	꿈을이루는지역아동센터	관현악기	20
여주시	삼혜원	실용밴드	12
전남 완도	충도지역아동센터	관현악기	12
충북 청원	월곡지역아동센터	실용밴드 + 관악기	11
충남 아산	해비타트 지역아동센터	현악기	10
충북 제천	도화늘푸른 지역아동센터	관현악기	10
합 계			148

본 비교집단에 참여한 기관들은 관악, 현악, 실용밴드 등의 음악 프로그램을 1년~3년 이상 운영해온 아동복지시설들로서 2012년도 [함께걷는아이들]의 음악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을 기관들이다. 본 올키즈스트라 사업과 동일하게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로서 참여아동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비교집단으로 선정되었다.

본 비교집단의 연령별 분포와, 악기레슨기간별 분포는 올키즈스트라 사업 집단과 통계적으로 동일하지 않게 나타났다⁸⁾. 하지만 현장 연구에서 연령과 악기레슨 등 동일한 집단으로 sampling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비교집단과의 분석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설문은 2012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경까지 진행되었으며, 올키즈스트라 사업 참여 대상 설문은 각 지역관악단 합주 때 진행되었고, 비교집단은 해당 기관에 협조 메일을 보내서 우편과 메일로 수거하였다.

8) VI. 양적평가결과 p.73~74

2) 측정도구

(1) 동기부여 및 몰입 척도

동기부여와 몰입을 측정하는 척도로 [Motivation and Engagement Scale _ Music]을 사용하였으며, 본 척도는 Andrew J. Martin에 의해 개발되어 학습 동기부여 및 몰입, 체육 동기부여 및 몰입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본 사업에서는 음악의 동기부여와 몰입으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다⁹⁾.

본 척도는 동기부여의 하위항목 6개(긍정적 생각 3개, 부정적 행동 3개), 몰입의 하위항목 5개(긍정적 행동 3개, 부정적 생각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총 질문이 4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설문에서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질적 인터뷰에서 음악강사와 기관 선생님들이 본 사업을 통하여 아이들이 ‘동기부여와 몰입’이 된다고 이야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가장 가깝게 언급된 질문 문항을 긍정적 하위영역에서 1개씩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즉, 동기부여의 ‘긍정적 생각’ 하위항목에서 각 1개씩의 질문을 추출하여 총 3개의 질문과 몰입의 ‘긍정적 행동’ 하위항목에서 각 1개씩의 질문을 추출하여 총 3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원문은 번역하여 본 사업 참여아동의 최연소 나이인 10세 여아 1명, 남아 1명에게 사전테스트 진행하여 질문에 대한 이해여부 확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를 수정하여 최종문항을 결정하였다.

9) 본 척도는 <http://www.lifelongachievement.com> 에서 구매함.

[표V-3] 동기부여 및 몰입 최종 문항

영역	하위영역	원문 문항	최종문항
동기부여	자기신념(Self-Belief)	If try hard, I believe I can perform my music well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연주를 잘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학습지향(Learning focus)	I feel very pleased my self when I do well in my music by trying hard.	열심히 노력해서 연주를 잘하게 됐을 때 매우 기쁘다.
	가치(Valuing)	Learning in music is important.	음악(악기)을 배우는 일은 내게 중요하다.
	불안(Anxiety)	×	×
	실패염려(Failure avoidance)	×	×
	불확실한 조절(Uncertain control)	×	×
몰입	끈기(Persistence)	If I can't understand some thing in my music at first, I keep going over it until I do	연주곡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끝까지 노력해서 반드시 해낼 것이다.
	과제수행(Task management)	When I prepare for music performances, I usually prepare in places where I can concentrate.	악기연습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골라서 한다.
	계획(Planning)	I usually stick to a practice/rehearsal time table or plan.	정해진 레슨/연습/합주 스케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비몰입(Disengagement)	×	×
	태만(Self-sabotage)	×	×

(2) 자존감, 사회성 척도

국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척도를 다양하게 검토하였으나, 본 평가가 자아존중감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으면서도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존감 척도로 [Self Description Questionnaire II을 사용하였다¹⁰⁾. 본 척도는 Shavelson 외 2명(Shavelson, Hubner, and Stanton, 1976)이 자아개념 모델에 기초하여 개발한 척도로, 비학습적 부분에 대한 4개의 하위영역_신체적 외모, 신체적 능력, 부모관계, 친구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습적 개념에 대한 3개의 하위영역_일반적 학교생활, 읽기, 셈하기와 자아개념에 대한 1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자존감 측정으로 일반적 자아개념 문항을 본 설문에서 사용하였으며, 사회성 측정으로 부모관계와 친구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V-4] SDQ-I 설문구성

	하위영역	문항수	사용여부
비학습적 영역 (Non-academic Self Concept)	신체적 외모(Physical Appearance)	9	×
	신체적 능력(Physical Ability)	9	×
	부모관계(Parent Relation)	9	○
	친구관계(Peer Relation)	9	○
학습적 영역 (Academic Self Concept)	일반적 학교생활(General School)	10	×
	읽기(Reading)	10	
	셈하기(Mathematics)	10	
일반적 자아개념 (General Self)	자아개념(General-Self)	10	○

본 설문은 영문으로 된 문항을 번역하고, 사전 테스트를 통하여 문구를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설문문항이 결정되었다.

10) 본 척도가 대표적으로 사용된 논문은 아동 청소년들의 예술관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Judith M. Burton, Robert Horowitz, and Hal Abeles(2008) Learning in and through the arts: the question of transfer, Studies in Art Education, Vol. 41, no. 3. 이다.

[표V-5] 자존감 / 사회성 최종 문항

	SDQ-I 원문 문항	최종문항
자존감 문항	I do lots of important things.	나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한다.
	Overall I am no good.	나는 잘 하는 것이 별로 없다.
	In general, I like being the way I am.	나는 그냥 내가 좋다.
	Overall I have a lot to be proud of.	나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I can't do anything right.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I can do things as well as most other people.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의 일은 해낼 수 있다.
	Other people think I am a good person.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애라고 생각한다.
	A lot of things about me are good.	나는 훌륭한 점이 많은 사람이다.
	I am as good as most other people.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훌륭하다.
	When I do something, I do it well.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잘 해낸다.
친구 관계	I have lots of friends.	나는 친구가 많다.
	I make friends easily.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귄다.
	Most kids have more friends than I do.	다른 애들이 나보다 친구가 더 많은거 같다.
	I get along with kids easily.	나는 친구들과 쉽게 친해진다.
	I am easy to like.	친구들이 나를 쉽게 좋아한다.
	Other kids want me to be their friend.	다른 애들이 나랑 친구가 되고 싶어한다.
	I have more friends than most other kids.	내가 다른 애들보다 친구가 더 많은 것 같다.
	I am popular with kids of my own age.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짱이다.
	Most other kids like me.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
	(추가항목)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준다.
가족 관계	My parents understand me.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는 편이다.
	My parents are usually unhappy or disappointed with what I do.	부모님은 내가 뭘 하면 별로 기뻐하지 않고 실망하는 편이다.
	I like my parents.	나는 부모님을 좋아한다.
	My parents like me.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신다.
	If I have children of my own, I want to bring them up like my parents raised me.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시는 것과 비슷하게 미래의 내 자식을 키우고 싶다.
	My parents and I spend a lot of time together.	나는 부모님과 많은 시간 같이 있다.
	My parents are easy to talk to.	부모님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하다.
	I get along well with my parents.	나는 부모님과 잘 지낸다.
	My parents and I have a lot of fun together.	부모님과 같이 있는게 재미있다.
	(추가항목)	부모님은 나를 인정해주시다.

(3) 협동심

협동심은 Horn et al.(1991)이 개발한 협동심 척도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팀으로 일할 때의 책임감 항목 3항목을 추가하여 최종항목을 결정하였다.

[표V-6] 협동심 최종 문항

	협동심 원문	최종문항
협동심 문항	In school, too much time is spent on team "projects."	나는 평소에 친구들이랑 협동해서 뭘 같이하는 게 좀 많은 것 같다.
	I like to cooperate with other students over academic work.	친구들이랑 협동해서 뭘 하는 게 좋다.
	It is often difficult to work together with other people.	친구들이랑 협동해서 뭘 하는 건 참 힘들다.
	It is often more productive to work on your own.	친구들이랑 협동해서 뭘 하는 것보다 나 혼자 하는게 더 잘한다.
	Teamwork is always the best way of getting results.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협동할 때 더 잘한다.
	If the group slows me down, it is better to leave it and work alone.	친구들과 협동해서 일이 늦어지면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다.
	When I am with my colleagues/classmates,	친구들과 협동할 때 내 맡은 부분만 하는 편이다.
	I do my own thing without worrying about them. Classmates' assistance is indispensable for doing well in college.	친구들과 협동할 때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하는 편이다.
	It is more enjoyable to be responsible for your own efforts.	노력한 결과에 대해 같이 책임지는 것보다 혼자 책임지는 편이 더 좋다.
	(추가항목)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우리 팀에 피해가 간다면 꾸욱 참아야 한다.
		친구들과 팀으로 무언가를 할 때, 나는 맡은 부분을 잘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친구들과 팀으로 무언가를 할 때, 나는 친구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준다.

(4) 진로성숙도와 미래에 대한 생각

진로성숙도 척도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하여 타당화한 한국형 진로성숙도검사(장석민, 임두순, 송병구, 1991) 중 한국 청소년패널에서 선별한 7개의 문항 중 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미래에 대한 생각은 박성옥, 기현주, 신귀순(2004)가 아동용 성취동기 척도로 개발한 척도의 하위영역 중 “미래지향적 사고” 6항목 중 4항목을 사용하였다.

[표V-7] 진로성숙도 / 미래에 대한 생각 최종 문항

분류	항목
진로성숙도	나는 아직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른다.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결정하기 어렵다.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를 선택하기는 힘들다. 나는 미래의 진로가 자주 바뀐다.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의 차이가 커서 결정하기 힘들다. 미래 진로 선택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미래에 대한 생각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은 편이다. 나는 지나간 일보다 미래의 일에 더 관심이 간다. 나는 나의 장래 직업에 대해 자주 상상한다.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고 상상하곤 한다.

(5) 소속감

위의 (1)~(4)번 척도들은 비교집단과 울키즈스트라 사업 참여 모두에게 질문한 척도들이며, '소속감' 과 아래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과 '강사만족도' 문항은 울키즈스트라 사업 참여아동에게만 진행하였다.

관악단에 대한 소속감은 Blanchard (Blanchard, 2007)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본 관악단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표V-8] 소속감 최종 문항

원문	최종항목
Members of this group do not share the same.	우리 관악단은 공동의 목표가 있다.
Other members and I want the same thing from this group.	내가 '우리 관악단이 이랬으면...' 하는 점을 다른 단원들도 똑같이 생각한다.
I can recognize the names most members in this group.	나는 관악단 친구들의 이름을 거의 다 안다.
I feel at home in this group.	나는 관악단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I care about what other group members think of my actions.	관악단 친구들이 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인다.
I have no influence over what this group is like.	나는 우리 관악단에 거의 있으나마나한 사람이다.
If there is a problem in this group, there are members here who can solve it.	우리 관악단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다.
It is very important to me to be a member of this group.	나에게 관악단의 멤버가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Members of this group generally don't get along with each other.	우리 관악단원들은 서로 잘 못 지내는 편이다.
I expect to stay in this group for a long time.	나는 우리 관악단 활동을 오래도록 하고 싶다.
I get a lot out of being in this group.	나는 우리 관악단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I've gotten support from this group.	나는 관악단으로부터 칭찬과 지지를 느낀다.
Some members of this group have friendships with each other.	우리 관악단원들은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
I have friends in this group.	나는 우리 관악단 내에 친구가 있다.
Some members of this group can be counted on to help others.	우리 관악단원들은 서로 도움을 준다.

(6)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본 사업의 로직모델에 의거하여 참여아동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개발된 척도를 찾기 어려워 본 사업과 관련하여 3개의 질문 문항으로 구성하여 올키즈스트라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에게만 설문을 진행하였다.

[표V-9]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최종 문항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1	나는 악기를 배운 이후, 전보다 오케스트라 공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2	나는 악기를 배운 이후, 공연을 관람하거나 참여하는 횟수가 증가하였다.
3	나는 악기를 배운 이후, 전보다 클래식 음악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7) 강사만족도

올키즈스트라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에게 음악강사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본 설문 역시 내부에서 개발하여 진행하였으며 올키즈스트라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에게만 진행하였다.

[표V-10] 강사만족도 최종 문항

	강사만족도
1	선생님은 레슨 전에 시간 맞춰서 잘 오신다.
2	선생님은 개인 혹은 그룹별로 정해진 레슨시간을 다 채워서 레슨 하신다.
3	선생님은 레슨 요일이나 시간을 자주 변경하신다.
4	선생님은 레슨할 때 전화통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많이 하는 편이다
5	선생님은 내가 잘 연주되지 않는 부분을 반복하거나, 짚어서 꼼꼼하게 레슨한다
6	선생님은 한 주간 연습할 분량의 과제를 내주고 레슨 시 꼭 확인한다.
7	나는 레슨 선생님의 가르치는 방식이 좋다
8	나는 레슨 선생님과 같이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9	나는 레슨 선생님에 대해 만족한다.

3) 분석방법

양적연구 분석방법은 SPSS 20.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째, 요인분석을 통하여 변수별로 공통적 요인으로 분석되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항목 제거

둘 째,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값 확인

셋 째, 데이터의 정규분포 여부(Normality Test)와 편차의 동질성(Homogeneity of Variance) 확인

넷 째, 주요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다섯째, 비교집단과 올키즈스트라 사업집단간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비모수 검정(Non-parametric Test)

여섯째, 올키즈스트라 사업 내부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간(지역관악단별, 참여기간별, 연습횟수별 등) 성과 차이를 비모수 검정(Non-parametric Test)으로 비교 분석

일곱째, 올키즈스트라 사업 만족도 분석

3. 질적 평가

1) 연구대상

올키즈스트라 사업에 참여하는 음악강사, 지역사회 참여기관, 참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음악강사와 지역사회 참여기관은 Focus Group으로 진행하여 음악강사 12명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지역사회 참여기관 담당자는 1회 3명의 담당자가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음악강사와 지역사회 참여기관 담당자 인터뷰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본 사업이 영향을 미치는 종속변수를 최종 확정하여 양적설문지 구성하였고, 참여아동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질적 평가의 아동 인터뷰는 양적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의 해석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키즈스트라 사업 참여아동만 진행하였다. 참여아동 인터뷰 대상은 연령별, 사업참여기간별, 악기별, 성별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총 16명의 아동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4회에 걸친 음악강사와 참여기관 담당자 그룹 인터뷰는 2012년 8월 29일~9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아동 인터뷰는 양적 설문이 완료된 이후 2012년 12월 13일~2013년 1월 11일까지 진행되었다.

[표V-11] 질적연구 인터뷰 대상

	상위	안양군포	은평	김포	합계
1기	지현○ (트럼펫) 허영○ (클라) 정은○ (색소폰) 김현○ (트롬본)		김제○ (트롬본)	이다○ (드럼) 김지○ (드럼)	7명
2기		이진○ (튜바)	김수○ (플룻)	이준○ (클라)	3명
3기		김한○ (호른) 백가○ (플룻)	양주○ (색소폰)	이현○ (트럼펫)	4명
3-1기			안석○ (클라리넷) 이기○ (드럼)		2명
합계	4명	3명	5명	4명	16명

* 1기: 사업참여 3년 이상, 2기: 사업참여 2년~3년 미만, 3기: 사업참여 6개월~1년 미만, 3-1기: 사업참여 6개월 미만

	클라리넷	플룻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튜바	호른	드럼
명수	3명	2명	2명	2명	2명	1명	1명	3명

- 남녀비율 : 여 8명, 남 8명

- 연령비율 : 초등생 7명, 중등생 6명, 고등생 2명, 졸업생 1명

2) 측정도구

질적연구는 1차 양적연구의 설문이 진행되기 이전에 음악강사와 지역사회 참여기관 실무자에 대한 Focus Group을 진행하였다. Focus Group의 주된 질문은 음악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에 대한 경험적 질문을 통하여 본 사업의 결과물로 측정할 종속변수들을 확정하고 아동 인터뷰에서 중점적으로 물어볼 대상과 질문을 추출하였다.〈첨부3, 4 참고〉

이를 통하여 양적 연구의 종속변수를 확정하였으며, 양적 연구의 설문을 진행하였고, 설문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을 보완하여 아동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하였다.〈첨부1 참고〉

3) 분석방법

질적연구 분석방법은 본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이혜진 박사(Columbia University 예술교육학 박사)가 질문지 작성부터 분석까지 사무국 사업 담당자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Focus Group 인터뷰는 첫번째 음악 강사 그룹 인터뷰를 이혜진 박사가 진행하고 이후 3회에 걸친 그룹 인터뷰는 유원선 연구원이 진행하였다.

그룹 인터뷰는 대부분 1시간 ~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으며, 녹음 파일을 녹취 기록하여 귀납적 방법 즉, 인터뷰에서 나오는 주제들을 찾아서 주제별로 정리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아동 인터뷰 역시 첫 번째 아동 인터뷰를 이혜진 박사가 진행한 이후, 본 내용을 습득한 후

에 동일한 질문지를 가지고 유원선 연구원, 본 사무국 허인영 국장, 김현주 간사, 변지선 간사로 이상 5명이 진행하였다. 아동 인터뷰는 대부분 30분~1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녹음된 파일을 녹취 기록하여 이 역시 그룹 인터뷰와 동일한 귀납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양적평가결과

1. 올키즈스트라 사업과 비교집단 사업성과
비교분석
2. 올키즈스트라 사업내부 성과분석

1. 올키즈스트라 사업과 비교집단 사업성과 비교분석

1) 일반현황

(1) 연령별

올키즈스트라 사업에 참여한 아동과 비교집단 아동의 일반현황에 대한 분석을 먼저 진행하였다. 비교집단은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 중 음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나이별로 살펴보았을 때, 올키즈스트라 사업 참여아동들은 13~16세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비교집단의 경우 10~14세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연령대별로 다시 살펴보면, 올키즈스트라 사업 참여아동들은 중학생이 가장 많고 비교집단의 경우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Ⅵ-1] 올키즈스트라 / 비교집단의 일반현황 _ 나이

		올키즈스트라		비교집단	
		빈도	%	빈도	%
나이	8세			4	2.7
	9세			9	6.1
	10세	7	4.5	15	10.2
	11세	9	5.7	14	9.5
	12세	18	11.5	16	10.9
	13세	28	17.8	36	24.5
	14세	25	15.9	14	9.5
	15세	20	12.7	9	6.1
	16세	26	16.6	12	8.2
	17세	14	8.9	5	3.4
	18세	8	5.1	7	4.8
	19세	1	.6	5	3.4
	20세	1	.6	1	.7
	합계	157	100.0	147	100.0

[표VI-2] 올키즈스트라 / 비교집단의 일반현황 _ 연령대

		올키즈		지원기관		합계
		빈도	%	빈도	%	
연령대	초등학생	62	39.5	94	63.9	156
	중학생	71	45.2	35	23.8	106
	고등학생이상	24	15.3	18	12.2	42
전체		157	100	147	100	304

올키즈스트라 사업 집단과 비교집단의 설문 참여 아동의 나이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나이’가 명목 변수가 아니라 순서형 변수이기 때문에 카이제곱이 아닌 감마, Somers’s d로 분석하였다. 두 그룹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올키즈스트라 집단과 비교집단의 나이분포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집단을 선정할 때 어떠한 형태의 음악사업에도 참여하지 않는 아동 집단과 올키즈스트라 아닌 다른 어떤 형태의 음악사업에 참여하는 아동 집단 중 어떠한 집단과 비교할 것인가에 대한 토의를 한 결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악기 레슨 등의 음악사업이 보편화 되어있는 현실에서 올키즈스트라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는데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아동 집단과의 비교가 더 의미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재단의 음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아동들과 비교하게 되었던 것이며, 비교집단의 경우 현장의 협조를 구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음악사업에 참여하는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올키즈스트라와 비교 집단 간에 나이분포에 있어서의 차이의 통제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었다.

[표VI-3] 올키즈스트라 / 비교집단의 그룹간 차이 _ 나이분포

			방향성 측도			
			값	점근표준오차a	근사T값b	근사 유의확률
순서척도 대 순서척도	Somers의 d	대칭적	-.197	.046	-4.297	.000
		비교집단 종속	-.154	.036	-4.297	.000
		나이 종속	-.273	.064	-4.297	.000

a. 영가설을 가정하지 않음.

b. 영가설을 가정하는 점근 표준오차 사용

대칭적 측도					
		값	점근표준오차a	근사T값b	근사 유의확률
순서척도 대 순서척도	감마	-.306	.070	-4.297	.000
유효 케이스 수		304			

a. 영가설을 가정하지 않음.

b. 영가설을 가정하는 점근 표준오차 사용

(2) 사업참여기간

사업에 참여하여 악기를 배운 기간을 살펴보면, 올키즈스트라 사업의 경우, 사업 시작 후 2차년도에 신규 단원을 선발하지 않아 2년 이상 ~ 3년 미만 기간의 아동이 없으며, 1년 미만 아동의 경우는 비교집단이 조금 더 많고, 2년 이상 아동의 경우 올키즈스트라가 32.1%, 비교집단이 31.1%로 비슷한 분포를 볼 수 있다.

[표Ⅵ-4] 올키즈스트라 / 비교집단의 일반현황 _ 사업참여 기간별

	올키즈스트라		비교집단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1년 미만	70	44.9	75	51.7
1년 이상~2년 미만	36	23.1	25	17.2
2년 이상~3년 미만	-	-	21	14.5
3년 이상	50	32.1	24	16.6
합계	156	100.0	145	100.0

올키즈스트라 사업 집단과 비교집단의 설문 참여 아동의 사업참여기간의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사업참여기간’ 역시 순서형 변수이기 때문에 카이제곱이 아니라 감마, Somers’s d로 분석하였다. ‘사업참여기간’ 역시 두 그룹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올키즈스트라 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업 레슨기간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VI-5] 울키즈스트라 / 비교집단의 그룹간 차이 _ 레슨기간 분포

방향성 측도						
			값	점근표준오차a	근사T값b	근사 유의확률
순서척도 대 순서척도	Somers의 d	대칭적	-.110	.051	-2.143	.032
		비교집단 종속	-.093	.043	-2.143	.032
		레슨기간 종속	-.135	.063	-2.143	.032

a. 영가설을 가정하지 않음.

b. 영가설을 가정하는 점근 표준오차 사용

대칭적 측도					
		값	점근표준오차a	근사T값b	근사 유의확률
순서척도 대 순서척도	감마	-.183	.085	-2.143	.032
유효 케이스 수		301			

a. 영가설을 가정하지 않음.

b. 영가설을 가정하는 점근 표준오차 사용

(3) 성별 및 악기별

[표VI-6] 성별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두 그룹 모두 여자가 다소 높게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VI-7] 악기별로 살펴보면, 본 사업은 관악단 사업으로 관악단 구성악기로만 이루어져 있다. 비교집단의 경우 현악기(바이올린, 첼로)가 가장 많았으며, 실용악기, 플룻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울키즈스트라 사업의 경우, 전체가 참여아동이 오케스트라 합주에 참여하고 있으며, 비교집단의 경우, 오케스트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참여아동은 38.5%이고 악기별 합주만 진행하고 있는 아동은 61.5%로 나타났다.

[표VI-6] 울키즈스트라 / 비교집단의 일반현황 _ 성별

		울키즈스트라		비교집단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65	41.4	68	45.9
	여자	92	58.6	80	54.1
	합계	157	100.0	148	100.0

[표VI-7] 올키즈스트라 / 비교집단의 일반현황 _ 악기별

	올키즈스트라		비교집단	
	빈도	%	빈도	%
클라리넷	41	26.1	2	1.6
플룻	26	16.6	16	12.6
색소폰	16	10.2	-	-
트럼펫	24	15.3	-	-
트롬본	22	14.0	-	-
튜바	5	3.2	-	-
호른	9	5.7	-	-
타악기	14	8.9	10	7.9
현악기	-	-	73	57.5
실용악기	-	-	26	20.5
합계	157	100.0	127	100

* 비교집단 오케스트라 구성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오케스트라	57	38.5	38.5
악기별합주만	91	61.5	100.0
합계	148	100.0	

2) 요인분석

올키즈스트라 사업 참여아동과 비교집단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측정한 변수들은 자존감, 몰입과 동기부여, 사회성, 협동심, 진로성숙, 미래에 대한 생각이다. 각 변수들의 척도는 이미 검증된 척도를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척도가 외국 연구자들에 의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이기 때문에 번역상의 문제나 문화적 격차, 그리고 아동들을 설문 대상으로 하는 본 평가 연구의 성격으로 인해서 개발 시점에서의 타당도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① 협동심 척도가 동일한 요인으로 분석되지 않아 전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Ⅵ-8 참고)

협동심 척도의 경우, 척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협동심’의 개념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실제로 경험한 협동심의 개념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척도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협동’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가 아이들마다 서로 달랐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본 척도가 개발된 외국의 경우 아동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협동의 형태를 경험하는 반면 우리나라 아동들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② 요인분석의 결과 각 요인의 타당도를 저해하는 자존감 1개, 몰입 1개, 친구관계 2개, 부모관계 2개 문항 등, 총 6개의 문항이 제외되었다.

• 제외 문항 •

- 자존감 3번 : 나는 그냥 내가 좋다.
- 몰입 15번 : 악기연습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골라서 한다.
- 친구관계 1번 : 나는 친구가 많다.
- 친구관계 3번 : 다른 애들이 나보다 친구가 더 많은거 같다.
- 부모님과의 관계 2번 : 부모님은 내가 뭘하면 별로 기뻐하지 않고 실망하는 편이다.
- 부모님과의 관계 6번 : 나는 부모님과 많은 시간 같이 있다.

제외된 6개의 문항의 경우, 아이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맞지 않는 질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몰입 15번의 경우 ‘악기연습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골라서 한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면 몰입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의 경우 악기를 연습 할 장소가 지역아동센터로 제한되어 있고 본인들이 장소와 시간을 골라서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경우가 많아 질문의 의도와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모님과의 관계 6번에도 부모와의 관계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부모님들이 생계의 문제로 가정에서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은 경우가 많아 이 역시 질문의 본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것으로 보인다.

③ 몰입과 동기부여는 같은 요인으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몰입과 동기부여는 같은 척도에서 나온 문항으로 동일한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④ 진로성숙은 부모님과 관련된 문항과 그렇지 않은 문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진로성숙은 부모와 관련된 2개의 문항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4개의 문항이 서로 다른 요인으로 구분 되었다.

[표VI-8] 초기 요인분석 결과

	성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자존감 1			.586										
자존감 2			.569										
자존감 3													.752
자존감 4			.826										
자존감 5			.615										
자존감 6			.592										
자존감 7			.713										
자존감 8			.878										
자존감 9			.869										
자존감 10			.807										
동기부여 1				.564									
동기부여 2				.726									
동기부여 3				.902									
몰입 1				.876									
몰입 2				.422								.787	
몰입 3				.597									
친구관계 1		.651											
친구관계 2		.713											
친구관계 3											.852		
친구관계 4		.619											
친구관계 5		.730											
친구관계 6		.747											
친구관계 7		.812											
친구관계 8		.812											
친구관계 9		.730											
친구관계 10		.665											

부모관계 1	.746												
부모관계 2													
부모관계 3	.850												
부모관계 4	.885												
부모관계 5	.553												
부모관계 6	.454												
부모관계 7	.587												
부모관계 8	.859												
부모관계 9	.874												
부모관계10	.878												
진로성숙 1						.843							
진로성숙 2						.896							
진로성숙3						.791							
진로성숙4						.564							
진로성숙5										.756			
진로성숙6										.806			
미래생각 1					.687								
미래생각 2					.728								
미래생각 3					.853								
미래생각 4					.844								
협동심 1								.747					
협동심 2								.698					
협동심 3													
협동심 4							.767						
협동심 5								.782					
협동심 6							.808						
협동심 7										.706			
협동심 8								.401					
협동심 9						.714							
협동심 10									.716				
협동심 11									.722				
협동심 12									.677				

[표VI-9] 최종 요인분석 결과

	성분						
	1	2	3	4	5	6	7
자존감 1			.502				
자존감 2			.730				
자존감 4			.789				
자존감 5			.722				
자존감 6			.585				
자존감 7			.708				
자존감 8			.853				
자존감 9			.884				
자존감 10			.802				
동기부여 1				.638			
동기부여 2				.775			
동기부여 3				.867			
몰입1				.899			
몰입3				.641			
친구관계 2		.727					
친구관계 4		.657					
친구관계 5		.778					
친구관계 6		.784					
친구관계 7		.865					
친구관계 8		.849					
친구관계 9		.774					
친구관계 10		.731					
부모관계 1	.729						
부모관계 3	.837						
부모관계 4	.865						
부모관계 5	.586						
부모관계 7	.665						
부모관계 8	.844						
부모관계 9	.888						
부모관계 10	.830						

진로성숙 1						.759	
진로성숙 2						.823	
진로성숙 3						.782	
진로성숙 4						.556	
진로성숙 5							.763
진로성숙 6							.805
미래생각 1					.750		
미래생각 2					.748		
미래생각 3					.865		
미래생각 4					.833		

요인추출방법 : 주성분분석.

회전 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프로맥스.

a. 7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3)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아래 [표VI-10]와 같다.

대부분의 변수가 높은 Cronbach's α 값을 보이고 있으나 ($\alpha > 0.7$) '진로성숙부모'의 경우 기준치 α 값 0.7 보다 낮게 나타났으므로 '진로성숙'과 '진로성숙부모'를 통합한 변수인 '진로성숙 통합 6개 문항' ($\alpha = .782 > 0.7$)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표VI-10] 신뢰도 분석

변수	문항수 ¹¹⁾	Cronbach's α
자존감	9	.906
동기부여와 몰입	5	.833
친구관계	8	.916
부모관계	8	.900
진로성숙	4	.797
진로성숙부모	2	.684
진로성숙 통합	6	.782
미래생각	4	.824

11) 요인분석한 이후 제외된 항목을 뺀 문항수 임.

4) 정규분포 여부 분석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T-test의 경우 data가 정규분포일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T-test 분석 이전에 data의 정규 분포 여부(Normality Test)를 먼저 확인하였다. 정규성 검정과 분산의 동질성을 검사해본 결과, 분석결과 5점 척도로 진행된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정규분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변환(data transformation)을 시도해보았으나 이 역시 정규분포가 되지 않아 모수검정(Parametric T-test)으로 분석하지 않고 비모수검정(Non-parametric Test)로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VI-11] 정규성 검정

비교집단		Kolmogorov-Smirnova			Shapiro-Wilk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자존감	올키즈	.080	153	.018	.981	153	.036
	지원기관	.137	148	.000	.918	148	.000
동기부여몰입	올키즈	.133	153	.000	.956	153	.000
	지원기관	.153	148	.000	.867	148	.000
또래관계	올키즈	.106	153	.000	.964	153	.000
	지원기관	.167	148	.000	.896	148	.000
부모관계	올키즈	.113	153	.000	.915	153	.000
	지원기관	.165	148	.000	.799	148	.000
진로성숙	올키즈	.084	153	.010	.981	153	.032
	지원기관	.133	148	.000	.936	148	.000
진로성숙부모	올키즈	.105	153	.000	.938	153	.000
	지원기관	.162	148	.000	.899	148	.000
미래생각	올키즈	.110	153	.000	.960	153	.000
	지원기관	.139	148	.000	.881	148	.000

a. Lilliefors 유의확률 수정

[표Ⅵ-12] 분산의 동질성 검정

		Levene 통계량	자유도 1	자유도 2	유의 확률
자존감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1.801	1	299	.181
	중위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886	1	299	.171
	자유도를 조정한 상태에서 중위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886	1	277.797	.171
	절삭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1.856	1	299	.174
동기 부여 몰입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19.897	1	299	.000
	중위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7.290	1	299	.000
	자유도를 조정한 상태에서 중위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7.290	1	218.437	.000
	절삭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18.312	1	299	.000
또래 관계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5.414	1	299	.021
	중위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5.242	1	299	.023
	자유도를 조정한 상태에서 중위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5.242	1	259.652	.023
	절삭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5.131	1	299	.024
부모 관계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9.913	1	299	.002
	중위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8.336	1	299	.004
	자유도를 조정한 상태에서 중위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8.336	1	251.711	.004
	절삭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8.958	1	299	.003
진로 성숙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4.177	1	299	.042
	중위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4.267	1	299	.040
	자유도를 조정한 상태에서 중위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4.267	1	273.223	.040
	절삭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4.441	1	299	.036
진로 성숙 부모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884	1	299	.348
	중위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993	1	299	.320
	자유도를 조정한 상태에서 중위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993	1	288.157	.320
	절삭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885	1	299	.348
미래 생각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6.556	1	299	.011
	중위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5.541	1	299	.019
	자유도를 조정한 상태에서 중위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5.541	1	254.803	.019
	절삭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5.722	1	299	.017

5) 상관관계 분석

사업성과를 측정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니, 변수들 간에 대체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변수별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를 정리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VI - 13]와 같다.

[표VI - 13] 변수간 상관관계 정리표

자존감과 연관성이 높은 변수는	친구관계(0.634), 동기부여몰입(0.497)
동기부여몰입과 연관성이 높은 변수는	자존감(0.497), 부모관계(0.338), 미래생각(0.337)
친구관계와 연관성이 높은 변수는	자존감(0.634), 동기부여몰입(0.321)
부모관계와 연관성 높은 변수는	동기부여몰입(0.338), 미래생각(0.275)
진로성숙과 연관성 높은 변수는	자존감(0.204), 친구관계(0.124)
진로성숙부모와 연관성이 높은 변수는	자존감(0.186)
진로성숙통합과 연관성이 높은 변수는	자존감(0.234), 친구관계(0.141)
미래생각과 연관성 높은 변수는,	동기부여몰입(0.337), 자존감(0.324)

※ 진로성숙과 관련된 문항이, '진로성숙' '진로성숙부모' '진로성숙통합' 으로 이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제외하였음.

‘동기부여와 몰입’ 이 ‘진로성숙’ 과 관련된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과의 전체적으로 모두 상관관계가 높아 본 사업에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동기부여와 몰입’ 은 자존감, 부모관계, 미래생각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아이들의 동기부여와 몰입을 높이는 것이 자존감, 부모관계, 미래생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눈여겨 볼 것은 ‘진로성숙’ 과 관련된 문항이 상대적으로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존감’ 과 약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만을 보이고 있다.

[표VI-14] 변수간 상관관계

		자존감	동기부여 몰입	또래 관계	부모 관계	진로 성숙	진로성숙 부모	진로성숙 통합	미래 생각
자존감	Pearson 상관계수	1	.497**	.634**	.265**	.204**	.186**	.234**	.324**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1	.000	.000
	N	300	300	295	295	297	297	297	297
동기 부여 몰입	Pearson 상관계수	.497**	1	.321**	.338**	.038	.089	.065	.337**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518	.127	.262	.000
	N	300	300	295	295	297	297	297	297
또래 관계	Pearson 상관계수	.634**	.321**	1	.258**	.124*	.107	.141*	.295**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33	.066	.015	.000
	N	295	295	296	295	294	294	294	294
부모 관계	Pearson 상관계수	.265**	.338**	.258**	1	.080	-.005	.059	.275**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172	.929	.314	.000
	N	295	295	295	295	294	294	294	294
진로 성숙	Pearson 상관계수	.204**	.038	.124*	.080	1	.385**	.926**	.007
	유의확률 (양쪽)	.000	.518	.033	.172		.000	.000	.904
	N	297	297	294	294	297	297	297	297
진로 성숙 부모	Pearson 상관계수	.186**	.089	.107	-.005	.385**	1	.705**	.029
	유의확률 (양쪽)	.001	.127	.066	.929	.000		.000	.619
	N	297	297	294	294	297	297	297	297
진로 성숙 통합	Pearson 상관계수	.234**	.065	.141**	.059	.926**	.705**	1	.017
	유의확률 (양쪽)	.000	.262	.015	.314	.000	.000		.770
	N	297	297	294	294	297	297	297	297
미래 생각	Pearson 상관계수	.324**	.337**	.295**	.275**	.007	.029	.017	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904	.619	.770	
	N	297	297	294	294	297	297	297	297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6) 올키즈스트라 사업과 비교집단의 사업성과 비교 분석

(1) 비교집단과의 차이

올키즈스트라 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업 성과를 비교해 본 결과, 자존감, 동기부여와 몰입, 친구관계, 부모관계, 진로성숙부모, 미래생각에서 차이 없게 나타났으며, '진로성숙'과 '진로성숙통합'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표VI-15]

[표VI-15] 비교집단과의 사업성과 변수의 차이 분석 결과

	널가설	검정	유의수준	의사결정
1	자존감의 분포가 비교집단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Mann - Whitney의 U검정	.682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2	동기부여몰입의 분포가 비교집단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Mann - Whitney의 U검정	.507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3	친구관계의 분포가 비교집단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Mann - Whitney의 U검정	.341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4	부모관계의 분포가 비교집단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Mann - Whitney의 U검정	.702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5	진로성숙의 분포가 비교집단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Mann - Whitney의 U검정	.001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6	진로성숙부모의 분포가 비교집단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Mann - Whitney의 U검정	.544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7	진로성숙통합의 분포가 비교집단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Mann - Whitney의 U검정	.008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8	미래생각의 분포가 비교집단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Mann - Whitney의 U검정	.985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근사 유의수준이 표시됩니다. 유의수준이 .05입니다.

두 집단의 평균을 살펴보면, 올키즈스트라 집단이 진로성숙, 진로성숙통합, 부모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금씩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진로성숙의 경우 비교집단이 5점 만점에 3.42점, 올키즈스트라 집단이 3.05점으로 비교집단이 더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고 이 차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진로성숙통합

역시 비교집단이 3.49점, 올키즈스트라 집단이 3.22로 나타났고 이 차이는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진로성숙 변수는 사업 참여아동들이 음악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본인들의 진로를 잘 결정할 수 있게 되는지의 여부를 보기 위하여 넣은 변수이다. 올키즈스트라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서 진로성숙도가 낮은 것은 올키즈스트라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들이 집중적인 악기레슨과 합주의 체험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고려해 보지 않았던 음악 방면의 다양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인 진로성숙도 결과의 해석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VI-16] 비교집단과의 사업성과 변수의 평균 비교

비교집단		자존감	동기부여 몰입	친구관계	부모관계	진로성숙	진로성숙 부모	진로성숙 통합	미래 생각
올키즈	평균	3.53	4.06	3.46	4.08	3.05	3.56	3.22	3.79
	N	155.00	155.00	153.00	153.00	155.00	155.00	155.00	155.00
	표준편차	0.71	0.59	0.68	0.73	0.91	1.04	0.78	0.80
지원 기관	평균	3.48	3.92	3.38	4.11	3.42	3.64	3.49	3.78
	N	145.00	145.00	143.00	142.00	142.00	142.00	142.00	142.00
	표준편차	0.74	0.88	0.76	0.73	0.95	0.96	0.85	0.88
합계	평균	3.51	3.99	3.43	4.10	3.23	3.60	3.35	3.78
	N	300.00	300.00	296.00	295.00	297.00	297.00	297.00	297.00
	표준편차	0.72	0.75	0.72	0.73	0.95	1.00	0.82	0.84

앞의 ‘1) 일반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올키즈스트라 집단과 비교집단간의 나이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동일한 집단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혹시 연령대별 집단간의 유의미한 변수들이 있는지, 즉 사업에 의한 영향이 아니라 두 집단간에 연령대 분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로성숙 변수가 비교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다.

연령대별로 8세~13세(초등생), 14~16세(중학생), 17세 이상(고등생 이상)으로 그룹을 나누어서 그룹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들을 살펴보니, ‘부모관계’ ‘진로성숙’ ‘진로성숙

통합'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관계' '진로성숙' '진로성숙통합' 모두 초등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나 어릴수록 부모관계가 좋고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의 올키즈스트라 사업과 비교집단간의 비교에서 '진로성숙'이 비교집단이 더 높은 것은 사업의 효과라기보다는 비교집단이 초등생 분포가 더 많아 '진로성숙'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도 추측해볼 수 있다.

[표Ⅵ-17] 연령대별로 사업성과 변수의 차이 분석 결과

	널가설	검정	유의수준	의사결정
1	자존감의 분포가 연령대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889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2	동기부여몰입의 분포가 연령대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95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3	친구관계의 분포가 연령대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223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4	부모관계의 분포가 연령대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00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5	진로성숙의 분포가 연령대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01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6	진로성숙부모의 분포가 연령대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231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7	진로성숙통합의 분포가 연령대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22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8	미래생각의 분포가 연령대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658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근사 유의수준이 표시됩니다. 유의수준이 .05입니다.

[표VI-18] 연령대별로 사업성과 변수의 평균 비교

연령대		자존감	동기부여 몰입	도래관계	부모관계	진로성숙	진로성숙 부모	진로성숙 통합	미래 생각
초등학생	평균	3.49	4.01	3.41	4.26	3.42	3.58	3.47	3.76
	N	152	152	152	151	151	151	151	151
	표준편차	0.76	0.78	0.75	0.69	0.94	1.02	0.82	0.91
중학생	평균	3.51	3.90	3.49	3.94	3.00	3.56	3.18	3.79
	N	105	105	103	103	103	103	103	103
	표준편차	0.68	0.72	0.66	0.73	0.91	0.94	0.78	0.74
고등학생 이상	평균	3.54	4.15	3.33	3.92	3.09	3.80	3.33	3.87
	N	42	42	40	40	42	42	42	42
	표준편차	0.72	0.71	0.77	0.74	0.94	1.09	0.88	0.80
합계	평균	3.51	3.99	3.43	4.10	3.23	3.60	3.35	3.79
	N	299	299	295	294	296	296	296	296
	표준편차	0.72	0.75	0.72	0.73	0.95	1.00	0.82	0.84

(2) 참여기간이 3년 이상인 아동간의 비교

음악 교육이 아동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문헌 연구에서 보았듯이, 음악사업의 성격상 1년 참여한 아동이 성과를 보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사업에 가장 장기간 참여한 아동의 성과를 비교해보기 위해 각 사업에 3년 이상 참여한 아동만 따로 구분하여 올키즈스트라 집단과 비교집단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업 참여 기간에 따른 아동 분포가 비교집단과 올키즈스트라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3년 이상 그룹만 따로 비교하여 사업 참여기간이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분석하였다.

올키즈스트라 사업 참여아동 중 3년 이상 참여한 아동 50명과 비교집단에서 3년 이상 참여한 아동 23명을 비교하였더니, ‘동기부여와 몰입’과 ‘미래생각’ 척도에서 올키즈스트라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동기부여와 몰입’과 ‘미래생각’은 연령별 집단으로 분석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변수이기 때문에(표VI-17 참고) 두 집단 간의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는 유사한 타 음악사업과 비교하여 올키즈스트라 사업의 우월한

효과를 나타낸 결과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동기부여와 몰입’은 5점 만점에 올키즈스트라 참여아동이 4.27점, 비교집단이 3.43점이며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차이), ‘미래생각’은 올키즈스트라 참여아동이 5점 만점에 3.96점, 비교집단이 3.61점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 또한 두 집단 간의 다른 변수들의 평균을 비교하여 보면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평균 점수의 차이가 좀 더 크게 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는 유사한 타 음악사업과 비교하여 올키즈스트라 사업에 오래 참여할수록 아이들에게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특히 ‘동기부여와 몰입’과 ‘미래에 대한 생각’에 비교적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VI-19] 참여기간 3년 이상인 아동의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널가설	검정	유의수준	의사결정
1	자존감의 분포가 비교집단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Mann – Whitney의 U검정	.251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2	동기부여몰입의 분포가 비교집단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Mann – Whitney의 U검정	.003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3	친구관계의 분포가 비교집단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Mann – Whitney의 U검정	.469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4	부모관계의 분포가 비교집단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Mann – Whitney의 U검정	.088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5	진로성숙의 분포가 비교집단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Mann – Whitney의 U검정	.383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6	진로성숙부모의 분포가 비교집단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Mann – Whitney의 U검정	.458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7	진로성숙통합의 분포가 비교집단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Mann – Whitney의 U검정	.980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8	미래생각의 분포가 비교집단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Mann – Whitney의 U검정	.043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근사 유의수준이 표시됩니다. 유의수준이 .05입니다.

[표Ⅵ-20] 참여기간 3년 이상인 아동의 집단간 변수의 평균 비교

비교집단		자존감	동기부여 몰입	친구관계	부모관계	진로성숙	진로성숙 부모	진로성숙 통합	미래 생각
올키즈	평균	3.70	4.27	3.57	4.11	2.93	3.59	3.15	3.96
	N	50	50	50	50	50	50	50	50
	표준편차	0.69	0.46	0.67	0.65	0.87	1.14	0.76	0.75
지원 기관	평균	3.42	3.43	3.36	3.78	3.13	3.50	3.25	3.61
	N	23	23	22	22	22	22	22	22
	표준편차	0.79	1.17	0.69	0.76	0.80	0.80	0.70	0.68
합계	평균	3.61	4.01	3.51	4.01	2.99	3.56	3.18	3.85
	N	73	73	72	72	72	72	72	72
	표준편차	0.73	0.85	0.68	0.70	0.85	1.04	0.74	0.74

2. 올키즈스트라 사업내부 성과분석

1) 추진실적

(1) 참여인원 현황

올키즈스트라 사업 참여인원 현황은 4개의 지역관악단별로 남자 68명, 여자 97명으로 총 16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Ⅵ-21]과 같다.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Ⅵ-22]) 중학생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76명(46%)이며, 초등학생이 64명(38.8%)이다. 상위관악단의 경우, 본 사업에 오래 참여한 아이들이 많아 고등학생의 비율이 높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단원이 2명 참여하고 있다. 악기별로 살펴보면, 총 8개 파트의 악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라리넷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플루트, 트럼펫, 트롬본의 순서로 악기배치가 이루어져 있다.

[표Ⅵ-21] 올키즈스트라 성별 현황

	남	여	합계
상위관악단	12	28	40
은평	14	31	45
안양군포	25	15	40
김포	17	23	40
합계	68(41.2%)	97(58.8%)	165

[표Ⅵ-22] 올키즈스트라 연령별 현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탈학교 및 졸업생)	합계
상위관악단	4	18	16	2	40
은평	21	21	3		45
안양군포	21	15	4		40
김포	18	22	-		40
합계	64(38.8%)	76(46%)	23(14%)	2(1.2%)	165(100%)

[표Ⅵ-23] 올키즈스트라 악기별 현황

	클라리넷	플루트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튜바/뉴포늄	호른	드럼	합계
상위관악단	12	5	2	7	7	1	3	3	40
은평	12	9	5	7	5	2	1	4	45
안양군포	9	5	4	6	7	2	2	5	40
김포	9	8	4	5	4	2	2	6	40
합계	42	27	15	25	23	7	8	18	165
	25.5%	16.4%	9%	15.2%	14%	4.2%	4.8%	10.9%	100%

(2) 참여기관 현황

올키즈스트라는 지역관악단별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아래 [표Ⅵ-24]와 같다.

[표Ⅵ-24] 올키즈스트라 참여기관 현황

	참여 기관	개수
은평관악단	유스광현, 광현, 조은아이들, 갈현, 꿈이있는푸른학교, 오고싶은, 성산, 그루터기, 은광, 진관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안양군포관악단	기쁨, 한무리, 동안, 해밀 지역아동센터	4개소
김포관악단	하성제일, 하성, 월곶 지역아동센터	3개소
합계	17개소	

(3) 음악 강사 현황

올키즈스트라에서 악기를 가르치는 음악강사들은 총 16명으로 모두 해당 악기를 전공하고 지휘, 연주, 교육을 하고 있는 현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Ⅵ-25] 올키즈스트라 음악 강사 현황

	클라리넷	플루트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튜바 / 뉴포늄	호른	드럼	상반지휘	합계
인원	3	2	3	2	2	1	1	1	1	16

(4) 참여아동 프로그램 참여도

방과 후 프로그램의 아동 참여도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절대적 출석률(absolute attendance), 참여강도(participation intensity), 지속기간(participation duration), 그리고 참여범위(participation breadth) 등이 있다(Weiss, 2004).

그 중 절대적 출석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참여도의 지표로서 본 평가에서는 악기 레슨 출석률로, 지속기간은 중도탈락율로 측정하였다.

① 악기 레슨 출석률

참여아동의 악기 레슨 출석률을 살펴보면, 김포와 안양군포 관악단이 95%에 달하는 상당히

높은 출석률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은평관악단과 상위관악단은 80%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포와 안양군포의 경우 대부분 1개 악기가 1개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아동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아동들을 관리할 수 있는데 반해, 은평과 상위관악단의 경우, 지정된 악기레슨 장소에 다양한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레슨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출석률이 88.9%로 매우 높은 출석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VI-26] 올키즈스트라 참여아동 악기레슨 출석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상위관악단	98.9	99.0	85.3	85.9	67.6	80.8	79	76	97	-	85.5
은평		81.7	85.5	80.2	81.7	72.7	89	82.3	85.0	63.1	80.1
안양군포		87	96	96	97	95	94	94	89.7	94.0	93.6
김포		96.7	97.8	96.7	96.5	91.5	99.3	96.4	92.4	98.9	96.2
평균		91.1	91.2	89.7	85.7	85.0	90.3	87.2	91.0	85.3	88.9

※ 본사업의 2011년 사업이 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2013년 3월의 재정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작되었음. 상위관악단만 3월에 시작하여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지역관악단은 4월에 시작되어 12월까지 진행되었음.

② 중도탈락율

본 사업에 참여하다가 다양한 사정으로 인하여 종결한 아동 현황은 아래 [표VI-27]과 같다. 6월의 경우, 안양군포 지역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던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사업참여를 종결함에 따라 해당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전체가 종결되면서 많은 인원수가 사업에서 빠져나가게 되었다. 그 외에는 이어나 전학, 가정상황의 변화 등 개인사정에 의하여 종결된 아이들이다.

전체 참여아동 중 중도탈락인원 비율을 살펴보면, 대략 17% 정도이며, 지역아동센터 전체가 빠진 경우를 제외하면 11.5% 정도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탈락 한다고 볼 수 있다. 음악사업의 경우, 참여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지가 사업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요인으로 최대한 중도탈락 인원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본 사업 성공의 핵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VI-27] 울키즈스트라 참여아동 중도탈락 현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탈락총인원(전체인원)	탈락률
상위관악단	-	-	2명	-	-	-	-	-	-	2명(42)	4.7%
은평	-	1명	4명	-	-	-	5명	-	-	10명(55)	18%
안양군포	2명	3명	10명	-	-	1명	2명	-	-	18명(58)	31%
김포	-	1명	1명	1명	1명	1명	-	-	-	5명(45)	11.1%

(5) 2012년 서비스 제공 실적

2012년 사업계획으로 세웠던 내용에 대한 진행과 세부사항은 아래 [표VI-28]과 같다.

[표VI-28] 2012년 울키즈스트라 서비스 제공 실적

	계획	실적	세부내용
1단계, 음악기초교육	8회	지역별 5회 진행	- 오르프뮤직센터와 협력하여 진행 - 8회 진행이 아이들이 별도로 모이는 시간을 내기에 무리라 판단되어 5회로 진행
2단계, 기초레슨	1학기 17주, 2학기 22주 = 총78회	계획대로 진행	- 주1회 레슨 진행 - 자체연습진행 : 지역별로 연습 선생님을 따로 두거나 센터실무자가 주도하여 연습진행
3단계, 지역합주	월2회, 총19회	계획대로 진행	- 월2회 합주 진행 - 3기는 캠프 이후 합주 참여
4단계, 상위관악단	주1회레슨, 주1회합주	계획대로 진행	-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레슨, 오후에는 합주로 진행
여름음악캠프	2박 3일	계획대로 진행	- 7월 30일~8월 1일 2박 3일 전체캠프로 진행
연주회	2월 / 11월	계획대로 진행	- 2012년 2월에 전체지역연합 연주회 진행 - 2013년 11월 상위관악단 단독연주회
문화공연	년2회	3회	- 중앙대학교 기악과 공연관람 - 한양대학교 기악과 공연관람 - 금관5중주 공연 관람

외부행사	- (지역마다차이)	13회	-김포 : 2월 3일 한국타이어 신입직원 환영회 -은평합창단 : 2월 28일 아동청소년보아스 상담센터 음악회 초청공연 -은평 : 5월 5일 지역축제 오프닝공연 -상위 : 5월 8일 청와대 어버이날공연 -상위(유닛) : 6월 16일 드림톡콘서트 -안군 : 7월 21일 We Start 당동마을축제 '작은음악회' 초청 공연 -김포 : 10월 6일 지역축제오프닝 공연 -상위(유닛): 10월 13일부스리기 CD녹음 -안군 : 11월 1일 난치병아동돕기운동본부 '나무콘서트' 초청 공연 -안군 : 11월 10일 한무리사랑나눔회 '담쟁이문화제' 초청 공연 -상반(유닛) : 12월 8일 부스리기 20주년 기념행사공연 -안군 : 12월 22일 군포지역아동센터 연합 성탄잔치 공연 -상위(유닛) : 12월 27일 한국타이어 기부행사 공연
강사모임 및 교육	분기별 1회 / 10시간	교육 2회 모임 5회 (평가인터뷰포함) 1박 워크샵 1회	-4월 7일 음악강사교육(4시간) -8월 1일 음악강사교육(3시간) -11월 5~6일 워크샵 _ 커리큘럼개발 -강사모임 _ 평가관련 8~9월 3회 _ 전체모임 9.24 _ 지휘자모임 7.5
지역기관모임 및 회의	-	기관회의 25회 기관방문 수시	-은평기관회의 4회, 매니저회의 3회 -안군 회의 12회(월1회) -김포 회의 3회 -기관전체회의 1회 -안군 기관실무자 공연관람 1회 -안군 실무자 평가 인터뷰 1회

지역행사	-	9회	-상위관악단 창단식(1. 30) -은평 부모사업설명회(9. 13) -상위 연주캠프(10. 27~28) -은평 악기별 단합대회 4회(10~11월) -상위 부모간담회(11. 3) -상위 악기별단합대회(11. 24) -상위 쏘파티및시상식(12. 1) -은평 쏘파티(12. 20) 안군쏘파티(12. 27) -안양군포 관악단 부모간담회 사업 설명(2.16, 2. 17)
부모면담		은평 27명 (부모만남 10명, 전화면담 17명)	-은평지역의 경우, 본 사업참여 아동의 부모님과의 직접적인 상담을 진행함.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관기관미팅)		수시	-은평지부 개소 (유스광현 지역아동센터 내 2층 연습실) 6. 29 -꿈의오케스트라 세미나 참석 2회 -국제관악제 마스터클래스참석 3회 -꿈의오케스트라 대전지역 방문 -은평지역 관련단체 미팅 : 시민넷대표, 마을엔도서관대표 미팅(1. 7), 은광지역아동센터 개소식, 구청담당자 미팅 등 -부스러그이사랑나눔회 20주년 글그림잔치 기념 CD 제작 후원 및 Intro 곡 녹음, 기념음악회 연주

(7) 음악교육 지원사업

올키즈스트라 사업 중 관악단 사업과 별도로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에 음악교육을 1개 기관
년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기간은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
되었으며, 192개소가 신청하여 최종 17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사업의 지역별
현황은 서울(2), 전북(1), 경기(1), 전남(3), 대전(1), 강원(2), 충북(3), 경북(1), 충남(1), 제주
(2)로 총 10개 지역이며, 사업별로는 관현악에 12개소, 실용밴드 3개소, 합창 2개소가 참여하
였다.

[표Ⅵ-29] 2012년 음악교육 지원사업 현황

NO	기관명	지역	사업지원금	사업구분	참여 아동수
1	강원 꿈나무 지역아동센터	강원도 동해	4,995,000	관악	17
2	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연합팀	서울시 관악구	5,000,000	합창	30
3	남대전지역아동센터	대전 중구	5,000,000	관현악	17
4	도화늘푸른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	4,765,000	관현악	13
5	사회복지법인 경애원	전라남도 목포	5,000,000	관현악	33
6	삼척꿈을아르는 지역아동센터	강원도 삼척	5,000,000	관현악	19
7	아동복지시설삼해원	전남 여수	5,000,000	밴드	14
8	여수열린 지역아동센터	전남 여수	5,000,000	관현악	15
9	들꽃청소년세상 서울연합팀	서울	9,690,000	밴드	12
10	월곡 지역아동센터	충북 청원	5,000,000	밴드 + 관악	17
11	제주꿈쟁이지역아동센터	제주시	5,000,000	관현악 + 합창	33
12	제주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제주도	5,000,000	관현악	17
13	청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팀	충북 청주시	14,287,000	관현악+합창	63
14	충도 지역아동센터	전남 완도	5,000,000	관현악상블	12
15	포항선린애육원	경상북도 포항	4,820,000	오케스트라 (현악+퍼커션)	33
16	한꿈학교	경기 의정부시	4,100,000	합창	31
17	해비타드 지역아동센터	충남 아산	5,000,000	현악	10
합 계			97,657,000		386

2) 올키즈스트라 사업내부 성과 분석

올키즈스트라 사업에 참여한 아동의 설문결과만을 분석한 내용으로, 참여기간별, 지역관악 단별, 연습횟수별, 연령별로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본 사업에 참여한 아동 설문에는 비교집단 설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음악연주실력 향상과 관악단예의 소속감,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 강사에 대한 만족도 등이 포함되었다.

(1) 음악 연주 실력 향상 정도

2012년 올키즈스트라 사업이 시작되는 4월에 참여아동(신규참여 및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아동을 포함) 전원에 대한 인터뷰와 연주실력 평가를 진행하였다. 심사자는 각 지역 지휘자와 강사1명으로 2명의 음악강사가 연주실력을 악보, 박자, 연주실력으로 나누어서 평가하였고, 사무국 담당자가 아동의 참여의지와 태도에 대해 질문하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평가한 내용을 사전 평가 점수로 하고, 4개월 후인 8월 음악캠프 진행시 다시 음악실력을 평가하여 사후 평가로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점수는 악보 실력에 20점, 박자에 20점, 연주실력에 3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참여의지와 태도에 30점을 배점하였다. 여기에서는 참여의지와 태도에 대한 점수를 배제하고 70점 만점으로 2명의 음악강사의 평가를 평균 낸 점수로 분석하였다.

지역 관악단별로 살펴보면 1차 평가와 2차 평가의 향상 점수가 김포 관악단이 19점으로 가장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는 70점 만점에 15.4점씩 평균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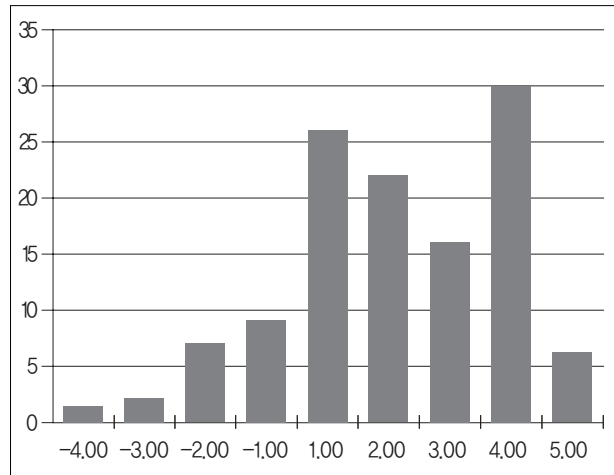
[표VI-30] 사전-사후 연주실력 점수 차이

	평균향상점수 (70점만점)	전체평균
은평 관악단	10.85점	15.4점
안양군포 관악단	17.01점	
김포 관악단	19.0점	

음악실력 향상 정도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표VI-31]과 같다. 사업초기보다 30~39점 오른 아이들이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급격한 실력 상승은 대부분 3기 아이들로 사업 시작 초기에 악기를 전혀 연주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하게 됨으로 인한 급격한 향상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0~9점 향상된 아동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전-사후 측정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악보, 박자, 연주면에서 조금씩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표VI-31] 사전-사후 연주실력 점수대별 분포

	빈도	퍼센트
-30~-39점	1	.8
-20~-29점	2	1.7
-10~-19점	7	5.9
-1~-9점	9	7.6
0~9점	26	21.8
10~19점	22	18.5
20~29점	16	13.4
30~39점	30	25.2
40~49점	6	5.0
합계	119	100.0



※ 1 : 0~9점 향상, 2 : 10~19점 향상, 3 : 20~29점 향상,
4 : 30~39점 향상, 5 : 40~49점 향상, -1 : -1~-9점 하락,
-2 : -10~-19점 하락, -3 : -20~-29점, -4 : -30~-39점

악기실력 향상을 악기별로 살펴보면, 불기 어려운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튜바와 호른이 가장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트롬본과 트럼펫이 다소 저조한 향상을 보였다.

[표VI-32] 사전-사후 연주실력 점수대별 분포

	클라리넷	플루트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튜바 / 뉴포늄	호른	드럼	합계
향상점수	14.07	15.79	18.89	12.82	10.13	25.41	25.0	15.9	15.4

(2) 참여기간별 성과 비교

올키즈스트라 사업의 경우 시작한 첫해인 2009년에 선발한 참여아동을 1기로 하여 2011년에 2기를 선발하였고, 2012년에 3기를 선발하였다. 따라서 3기가 1년 미만 참여아동, 2기가 1년~2년 미만 참여 아동, 1기는 3년 이상 참여한 아동이다.

참여기간별 각 3개의 집단에 대한 사업성과를 비교하였더니,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동기부여와 몰입, 미래생각, 소속감,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 강사에 대한 만족감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VI-33 참고)

[표VI-33] 참여기간별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널가설	검정	유의수준	의사결정
1	자존감의 분포가 레슨기간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74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2	동기부여몰입의 분포가 레슨기간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03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3	친구관계의 분포가 레슨기간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217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4	부모관계의 분포가 레슨기간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337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5	진로성숙의 분포가 레슨기간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333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6	진로성숙부모의 분포가 레슨기간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830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7	진로성숙통합 평균의 분포가 레슨기간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755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8	미래생각의 분포가 레슨기간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49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9	소속감의 분포가 레슨기간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01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10	문화예술관심의 분포가 레슨기간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14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11	강사만족도 분포가 레슨기간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00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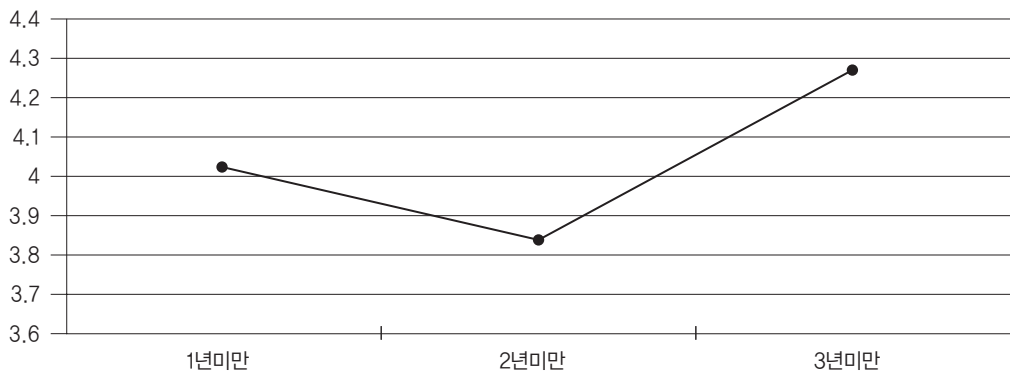
근사 유의수준이 표시됩니다. 유의수준이 .05입니다.

집단 간의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유의미하게 나타난 ‘동기부여와 몰입’은 3년 이상 참여한 아동 그룹이 5점 만점에 4.27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년 미만인 집단이 3.96점, 2년 미만인 집단이 3.83점으로 나타났다. 뒤에 질적연구에서도 나타나지만 동기부여와 몰입은 사업 초기에 높았다가 1년이 넘어가면서 오히려 낮아져서 참여아동들이 슬럼프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3년이 지나면 다시 상승하여 오히려 처음보다 더 높은 동기부여와 몰입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VI-1] 참고) 따라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아이들이 본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3

년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동기부여와 몰입’ 변수의 경우 5점 만점에 평균 4.01점으로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더욱이 3년 이상 참여한 아동의 경우 4.27점으로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동기부여와 몰입’이 앞의 비교집단과의 비교분석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등 본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림Ⅵ-1] 참여기간별 동기부여와 몰입의 변화



[표Ⅵ-34] 참여기간별 변수의 평균 비교

레슨기간		자존감	동기부여 몰입	친구관계	부모관계	진로성숙 부모	진로성숙 통합	미래생각	소속감	문화예술 관심	강사 만족도
1년 미만	평균	3.46	4.02	3.47	4.14	3.14	3.54	3.27	3.64	3.39	3.98
	N	69	69	68	68	69	69	69	69	58	66
	표준편차	0.76	0.64	0.73	0.76	0.97	0.99	0.82	0.77	0.57	0.50
2년 미만	평균	3.40	3.84	3.30	3.94	3.03	3.56	3.21	3.84	3.47	3.76
	N	36	36	35	35	36	36	36	36	34	36
	표준편차	0.61	0.58	0.58	0.79	0.84	1.01	0.75	0.90	0.43	0.46
3년 이상	평균	3.70	4.27	3.57	4.11	2.93	3.59	3.15	3.96	3.78	4.17
	N	50	50	50	50	50	50	50	50	48	49
	표준편차	0.69	0.46	0.67	0.65	0.87	1.14	0.76	0.75	0.48	0.53
합계	평균	3.53	4.06	3.46	4.08	3.05	3.56	3.22	3.79	3.54	3.99
	N	155	155	153	153	155	155	155	155	140	151
	표준편차	0.71	0.59	0.68	0.73	0.91	1.04	0.78	0.80	0.53	0.52

‘미래생각’의 경우에도 역시 3년 이상 참여한 아동이 5점 만점에 3.96점으로 가장 높고 2년 미만인 집단이 3.84점, 1년 미만인 집단이 3.58점으로 나타났다.

‘소속감’의 경우 오케스트라에 대한 소속감을 물어본 문항이었는데, 사업에 오래 참여한 3년 이상 집단이 3.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 역시 3년 이상 참여한 집단이 가장 높아 사업에 오래 참여할수록 클래식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강사에 대한 만족도’도 3년 이상 된 집단이 강사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변수들에서 사업에 오래 참여한 3년 이상 집단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부모관계’와 ‘진로성숙’만 유의미하진 않으나 1년 미만인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1년 미만 참여자 중에 초등학생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VI-35] 참고). 뒤에 연령별 집단 비교에서도 나타나듯이 초등학생이 ‘부모관계’와 ‘진로성숙’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보다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진로에 대해서도 중고등학생이 오히려 결정 내리기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표VI-35] 참여기간별 연령분포

		레슨기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이상	무응답	
연령대	초등학생	42	18	1	1	62
	중학생	27	13	31	0	71
	고등학생이상	1	5	18	0	24
전체		70	36	50	1	157

(3) 관악단별 성과 비교

올키즈스트라에 속해있는 관악단은 서울 은평, 경기 안양군포, 경기 김포 지역의 3개의 관악단과 각 관악단에서 잘하는 단원을 선발하여 구성한 상위관악단으로 총 4개이다. 각 관악단별로 사업성과를 비교하였다. 각 관악단별로 설문에 참여한 아동 수는 [표VI-36]와 같다.

[표Ⅵ-36] 지역관악단별 설문참여 아동

	빈도	퍼센트
상위관악단	40	25.5
은평	36	22.9
안양군포	41	26.1
김포	40	25.5
합계	157	100.0

지역관악단별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인 변수는 동기부여와 몰입, 진로성숙, 소속감,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 강사에 대한 만족도로 나타났다. ‘진로성숙’ 변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변수들은 모두 상위관악단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표Ⅵ-37] 관악단별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널가설	검정	유의수준	의사결정
1	자존감의 분포가 레슨기간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538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2	동기부여몰입의 분포가 지역관악단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29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3	친구관계의 분포가 지역관악단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732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4	부모관계의 분포가 지역관악단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980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5	진로성숙의 분포가 지역관악단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11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6	진로성숙부모의 분포가 지역관악단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116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7	진로성숙통합 평균의 분포가 레슨기간 2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156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8	미래생각의 분포가 레슨기간 2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109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9	소속감의 분포가 레슨기간 2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10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10	문화예술관심의 분포가 레슨기간 2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01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11	강사만족도 분포가 레슨기간 2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09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근사 유의수준이 표시됩니다. 유의수준이 .05입니다.

‘동기부여와 몰입’은 상위관악단(4.22점), 은평관악단(4.19점), 김포관악단(3.93점)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진로성숙’은 김포관악단(3.42점), 상위관악단(2.97점), 안양군포 관악단(2.83점)으로, 김포관악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골에 사는 김포관악단 아이들이 도시에 사는 다른 지역관악단 아이들에 비해 다양한 진로 정보에 노출되는 기회가 비교적 적으므로 자신의 진로를 비교적 이른 시점에 확고하게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여러 다양한 정보에 노출되는 서울에 위치한 은평 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난 사실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인다.

‘소속감’의 경우 상위관악단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아이들이 모인 관악단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합주를 진행하고 11월에 별도의 연주회를 갖는 등 좀 더 집중도 높게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높은 소속감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소속감은 상위관악단(3.76점), 은평관악단(3.54점), 안양군포관악단(3.4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5점 만점에 4.17점으로 상위관악단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절대적 수치로도 매우 높게 나타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강사에 대한 만족도’ 역시 4.15점으로 상위관악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흥미 있는 사실은, 상위관악단과 안양군포 지역은 거의 동일한 강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관악단의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안양군포 지역의 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같은 강사에게 배우더라도 배우는 아이들의 연주 실력이나 동기부여의 정도에 따라 강사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표Ⅵ-38] 관악단별 변수의 평균 비교

지역관악단		지존감	동기 부여 몰입	친구 관계	부모 관계	진로 성숙	진로 성숙 부모	진로 성숙 통합	미래 생각	소속감	문화 예술 관심	강사 만족도
상위 관악단	평균	3.52	4.22	3.43	4.11	2.98	3.68	3.21	3.98	3.76	4.17	4.15
	N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표준편차	0.76	0.51	0.76	0.67	0.90	1.20	0.85	0.79	0.54	0.85	0.51
은평 관악단	평균	3.57	4.19	3.58	4.03	2.79	3.79	3.13	3.86	3.54	3.60	4.13
	N	36	36	35	35	36	36	36	36	27	35	35
	표준편차	0.65	0.61	0.63	0.80	0.92	1.05	0.84	0.59	0.53	0.84	0.47
안양 군포 관악단	평균	3.38	3.91	3.40	4.12	2.98	3.35	3.10	3.74	3.44	3.80	3.81
	N	39	39	38	38	39	39	39	39	37	38	38
	표준편차	0.69	0.64	0.52	0.72	0.86	0.92	0.64	0.88	0.50	0.97	0.51
김포 관악단	평균	3.63	3.93	3.46	4.07	3.43	3.44	3.43	3.59	3.40	3.41	3.87
	N	40	40	40	40	40	40	40	40	36	38	38
	표준편차	0.73	0.55	0.79	0.77	0.88	0.93	0.77	0.87	0.51	0.81	0.52
	평균	3.53	4.06	3.46	4.08	3.05	3.56	3.22	3.79	3.54	3.75	3.99
합계	N	155	155	153	153	155	155	155	155	140	151	151
	표준편차	0.71	0.59	0.68	0.73	0.91	1.04	0.78	0.80	0.53	0.91	0.52

(4) 연습횟수별 성과 비교

올키즈스트라 사업에 참여하면서 악기연습을 얼마나 했는지를 질문하였다. 뒤에 나오는 질적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습이 아이들의 동기부여와 슬럼프 극복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습횟수에 따라 사업성과를 비교해보았다. 연습을 매일하는 집단, 주1~3회 하는 집단, 레슨받기 전후에 하는 집단, 연주회가 있을 때 등 비정기적으로 하는 집단, 연습없이 레슨만 받는 집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연습횟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의 보인 변수는 ‘동기부여와 몰입’, ‘미래생각’, ‘소속감’,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다.

[표VI-39] 연습횟수별 집단간 차이 분석 결과

	널가설	검정	유의수준	의사결정
1	자존감의 분포가 연습횟수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198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2	동기부여몰입의 분포가 연습 횟수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01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3	친구관계의 분포가 연습횟수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442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4	부모관계의 분포가 연습횟수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876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5	진로성숙의 분포가 연습횟수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292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6	진로성숙부모의 분포가 연습횟수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693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7	진로성숙통합 평균의 분포가 연습횟수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439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8	미래생각의 분포가 연습횟수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24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9	소속감의 분포가 연습횟수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10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10	문화예술관심의 분포가 연습횟수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01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11	강사만족도 분포가 연습횟수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73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근사 유의수준이 표시됩니다. 유의수준이 .05입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의 평균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상대로 연습을 많이 할수록 동기 부여와 몰입이 높고 미래생각, 소속감,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사업에 있어서 참여 아동들이 레슨 이외에도 정기적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VI-40] 연습횟수별 변수의 평균 비교

연습횟수		지존감	동기부여 몰입	친구관계	부모관계	진로성숙	진로성숙 부모	진로성숙 통합	미래생각	소속감	문화예술 관심	강사 만족도
매일	평균	3.37	4.48	3.38	4.20	3.23	3.46	3.31	4.33	3.95	4.39	4.37
	N	13	13	13	13	13	13	13	13	13	12	12
	표준편차	0.77	0.38	0.62	0.83	0.97	1.14	0.81	0.63	0.44	0.76	0.39
주 1~3	평균	3.58	4.18	3.55	4.09	2.97	3.44	3.13	3.91	3.58	3.86	4.00
	N	76	76	76	76	76	76	76	76	69	75	75
	표준편차	0.61	0.52	0.54	0.67	0.91	1.09	0.79	0.72	0.49	0.78	0.48
회 레슨 받기 전후	평균	3.32	3.73	3.28	4.21	2.90	3.61	3.14	3.48	3.32	3.18	3.98
	N	22	22	22	22	22	22	22	22	19	22	22
	표준편차	0.59	0.67	0.75	0.56	0.73	0.99	0.68	0.78	0.47	0.87	0.57
비 장착	평균	3.77	3.92	3.60	4.13	3.39	3.81	3.53	3.60	3.61	3.93	4.02
	N	21	21	21	21	21	21	21	21	18	20	20
	표준편차	0.57	0.41	0.64	0.74	0.88	0.84	0.64	1.09	0.50	0.67	0.46
연습 없이	평균	3.54	3.98	3.38	3.99	3.02	3.69	3.24	3.75	3.34	3.35	3.72
	N	16	16	16	16	16	16	16	16	15	16	16
	표준편차	1.14	0.74	1.05	0.86	1.12	1.03	0.99	0.63	0.70	1.11	0.64
합계	평균	3.55	4.08	3.48	4.11	3.05	3.55	3.21	3.82	3.56	3.75	4.00
	N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34	145	145
	표준편차	0.70	0.58	0.66	0.70	0.91	1.04	0.78	0.80	0.53	0.87	0.52

(5) 연령별 성과 비교

올키즈스트라에 참여하는 아동 중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집단으로 나누어 사업성과를 살펴보았다.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동기부여와 몰입’, ‘부모관계’, ‘소속감’,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 ‘강사에 대한 만족’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난 변수들의 집단간 평균을 살펴보면, 동기부여와 몰입, 소속감,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 강사에 대한 만족도 모두 고등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등학생 중에 사업에 오래 참여한 단원들이 많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결과로 보인다. 단지, 유의하여 볼 것은 부모관계가 초등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업의 효과라기보다는

연령대의 특성으로 판단되며, 앞의 ‘사업 참여 기간’ 별 분석에서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1년 미만 사업 참여자’의 부모관계가 높은 것이 연령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 것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표VI-41] 연령대별 집단간 차이 분석 결과

	널가설	검정	유의수준	의사결정
1	자존감의 분포가 연령대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503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2	동기부여몰입의 분포가 연령대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20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3	친구관계의 분포가 연령대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213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4	부모관계의 분포가 연령대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17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5	진로성숙의 분포가 연령대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139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6	진로성숙부모의 분포가 연령대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58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7	진로성숙통합 평균의 분포가 연령대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160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8	미래생각의 분포가 연령대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256	널 가설을 유지합니다.
9	소속감의 분포가 연령대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02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10	문화관심의 분포가 연령대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15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11	강사만족도 분포가 연령대의 범주에서 같습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037	널 가설을 거부합니다.

근사 유의수준이 표시됩니다. 유의수준이 .05입니다.

[표Ⅵ-42] 연령대별 변수의 평균 비교

연령대		자존감	동기 부여 몰입	친구 관계	부모 관계	진로 성숙	진로 성숙 부모	진로 성숙 통합	미래 생각	소속감	문화 예술 관심	강사 만족도
초등 학생	평균	3.46	3.99	3.46	4.24	3.21	3.53	3.32	3.75	3.49	3.81	3.89
	N	60	60	60	60	60	60	60	60	51	57	57
	표준편차	0.70	0.67	0.71	0.75	0.88	1.05	0.75	0.82	0.55	0.90	0.58
중학생	평균	3.56	4.02	3.53	3.98	2.92	3.46	3.10	3.76	3.46	3.58	3.98
	N	71	71	71	71	71	71	71	71	66	70	70
	표준편차	0.67	0.52	0.64	0.71	0.90	0.95	0.74	0.77	0.48	0.84	0.48
고등 학생 이상	평균	3.56	4.34	3.27	4.00	3.04	3.92	3.33	3.97	3.88	4.14	4.23
	N	24	24	22	22	24	24	24	24	23	24	24
	표준편차	0.86	0.54	0.73	0.71	0.99	1.22	0.94	0.87	0.54	1.01	0.44
합계	평균	3.53	4.06	3.46	4.08	3.05	3.56	3.22	3.79	3.54	3.75	3.99
	N	155	155	153	153	155	155	155	155	140	151	151
	표준편차	0.71	0.59	0.68	0.73	0.91	1.04	0.78	0.80	0.53	0.91	0.52

(6) 올키즈스트라 사업내부 상관관계 분석

올키즈스트라 집단의 설문결과만을 가지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비교 집단을 포함해서 함께 분석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올키즈스트라 참여 집단에서는 진로성숙과 관련된 변수가 미래생각과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동기부여와 몰입, 친구관계, 부모관계,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강사만족도와 모두 음(-)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변수들이 높아질수록 진로성숙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교집단 포함 전체 집단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진로성숙' 과 관련 변수가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 대조되며, 이러한 경향을 사업 참여 기간에 따른 효과와 관련해서 재해석 해보면 올키즈스트라 사업에 오래 참여한 아동들 일수록 음악을 접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할수록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비교집단에서는 이러

한 경향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올키즈스트라 사업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동기부여와 몰입과 소속감이 다른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높은 중요한 변수들임을 알 수 있다.

[표VI-43] 올키즈스트라 사업내부 변수간 상관관계 정리

자존감과 연관성이 높은 변수는	친구관계(0.604), 동기부여(0.453), 소속감(0.470)
동기부여몰입과 연관성이 높은 변수는	자존감(0.453), 강사만족도(0.434), 소속감(0.521)
친구관계와 연관성이 높은 변수는	자존감(0.604), 동기부여몰입(0.312)
부모관계와 연관성 높은 변수는	소속감(0.311), 문화 예술관심(0.278)
진로성숙도와 연관성 높은 변수는	미래생각(-0.196)
진로성숙부모와 연관성이 높은 변수는	-
진로성숙통합과 연관성이 높은 변수는	미래생각(-0.179)
미래생각과 연관성 높은 변수는	동기부여몰입(0.358), 문화 예술관심(0.342)
소속감과 연관성이 높은 변수는	동기부여몰입(0.521), 문화 예술관심(0.521)
강사에 대한 만족도와 연관성이 높은 변수는	소속감(0.498), 동기부여몰입(0.434)
문화 예술관심과 연관성이 높은 변수는	소속감(0.521), 동기부여몰입(0.402)

[표Ⅵ-44] 올키즈스트라 사업내부 변수간 상관관계

	자존감		동기 부여 몰입	친구 관계	부모 관계	진로 성숙	진로 성숙 부모	진로 성숙 통합	미래 생각	소속감	문화 예술 관심	강사 만족도
자 존 감	Pearson 상관계수	1	.453**	.604**	.237**	.120	.116	.144	.284**	.470**	.275**	.239**
	유의확률(양쪽)		.000	.000	.003	.136	.152	.074	.000	.000	.001	.003
	N	155	155	153	153	155	155	155	155	140	151	151
동기 부여 몰입	Pearson 상관계수	.453**	1	.312**	.199*	-.030	.118	.028	.358**	.521**	.402**	.434**
	유의확률(양쪽).000		.000	.014	.714	.144	.725	.000	.000	.000	.000	
	N	155	155	153	153	155	155	155	155	140	151	151
친구 관계	Pearson 상관계수	.604**	.312**	1	.148	-.050	-.018	-.047	.241**	.330**	.241**	.260**
	유의확률(양쪽)	.000	.000		.067	.542	.827	.560	.003	.000	.003	.001
	N	153	153	153	153	153	153	153	153	139	149	149
부모 관계	Pearson 상관계수	.237**	.199*	.148	1	-.043	-.127	-.091	.224**	.311**	.278**	.233**
	유의확률(양쪽)	.003	.014	.067		.595	.118	.261	.005	.000	.001	.004
	N	153	153	153	153	153	153	153	153	139	149	149
진로 성숙	Pearson 상관계수	.120	-.030	-.050	-.043	1	.283**	.905**	-.196*	.012	-.079	-.110
	유의확률(양쪽)	.136	.714	.542	.595		.000	.000	.015	.886	.338	.180
	N	155	155	153	153	155	155	155	155	140	151	151
진로 성숙 부모	Pearson 상관계수	.116	.118	-.018	-.127	.283**	1	.665**	-.057	.058	-.023	.107
	유의확률(양쪽)	.152	.144	.827	.118	.000		.000	.477	.495	.776	.189
	N	155	155	153	153	155	155	155	155	140	151	151
진로 성숙 통합	Pearson 상관계수	.144	.028	-.047	-.091	.905**	.665**	1	-.179**	.035	-.071	-.037
	유의확률(양쪽)	.074	.725	.560	.261	.000	.000		.026	.678	.385	.655
	N	155	155	153	153	155	155	155	155	140	151	151
미래 생각	Pearson 상관계수	.284**	.358**	.241**	.224**	-.196*	-.057	-.179*	1	.289**	.342**	.162*
	유의확률(양쪽)	.000	.000	.003	.005	.015	.477	.026		.001	.000	.046
	N	155	155	153	153	155	155	155	155	140	151	151
소 속 감	Pearson 상관계수	.470**	.521**	.330**	.311**	.012	.058	.035	.289**	1	.521**	.498**
	유의확률(양쪽)	.000	.000	.000	.000	.886	.495	.678	.001		.000	.000
	N	140	140	139	139	140	140	140	140	140	137	137
문화 예술 관심	Pearson 상관계수	.275**	.402**	.241**	.278**	-.079	-.023	-.071	.342**	.521**	1	.207*
	유의확률(양쪽)	.001	.000	.003	.001	.338	.776	.385	.000	.000		.011
	N	151	151	149	149	151	151	151	151	137	151	151
강사 만족 도	Pearson 상관계수	.239**	.434**	.260**	.233**	-.110	.107	-.037	.162*.498**	.207*	1	
	유의확률(양쪽)	.003	.000	.001	.004	.180	.189	.655	.046	.000	.011	
	N	151	151	149	149	151	151	151	151	137	151	151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3) 올키즈스트라 사업만족도 분석

올키즈스트라 사업 참여아동들에게 본 사업 참여의 만족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5점 만점에 평균 4.26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85.4%의 아동이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였다.

[표Ⅵ-45] 올키즈스트라 사업 만족도

		빈도	유효 퍼센트
사업만족도	매우불만족	1	.7
	불만족	1	.7
	보통	20	13.2
	만족	64	42.4
	매우만족	65	43.0
	합계	151	100.0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에 62.3%가 '본인이 원해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25.3%가 '지역아동센터에서 권하여' 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Ⅵ-46] 올키즈스트라 참여 계기

		빈도	유효 퍼센트
참여계기	본인이 원해서	91	62.3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라고 해서	37	25.3
	가족이 하라고 해서	13	8.9
	기타	5	3.4
	합계	146	100.0

주 1회 1~2시간 진행되는 악기 레슨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71.5%, 조금 길다는 응답이 13.2%로 레슨시간이 짧다는 의견보다 오히려 길다는 응답이 다소 높았다.

[표Ⅵ-47] 올키즈스트라 악기레슨시간

		빈도	유효 퍼센트
레슨시간	너무길다	4	2.6
	조금길다	20	13.2
	적절하다	108	71.5
	다소짧다	18	11.9
	매우짧다	1	.7
	합계	151	100.0

악기를 배우면서 가장 힘든 순간에 대한 질문에는 ‘실력이 늘지 않을 때’ 45.5%가 가장 힘들다고 했으며, ‘놀고 싶을 때’가 35.1%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본 결과는 질적연구에서도 아이들이 동일하게 실력이 늘지 않을 때 가장 힘들다고 대답한 경우와 일치한다. 아이들이 슬럼프를 겪는 시기가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시기와 동일하게 1년~2년 사이 인 것으로 양적평가 결과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실력이 늘지 않은 것’을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악기를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여 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Ⅵ-48] 악기를 배우면서 가장 힘든 순간

		빈도	유효 퍼센트
힘든 순간	실력이늘지않을때	61	45.5
	놀고싶을때	47	35.1
	꾸준히하는것자체	3	2.2
	재미없을때	6	4.5
	장소없을때	7	5.2
	기타	10	7.5
	합계	134	100.0

악기 연습에 대한 질문에는 주1~3회 연습하는 아동이 5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레슨받기전후, 비정기적으로 연습한다는 아동 순으로 나타났다. 연습을 못하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다는 답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의지가 약하다는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Ⅵ-49] 연습횟수

		빈도	유효 퍼센트
연습횟수	매일	13	8.8
	주 1~3회	76	51.4
	레슨받기 전후	22	14.9
	비정기적	21	14.2
	연습없이	16	10.8
	합계	148	100.0

[표Ⅵ-50] 연습을 못하는 이유

		빈도	유효 퍼센트
연습 못하는 이유	공간이없어서	7	10.4
	시간이없어서	27	40.3
	필요를못느껴서	5	7.5
	의지가약해서	19	28.4
	기타	9	13.4
	합계	67	100.0

본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은지를 묻은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가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위에 본 사업을 권유하겠다’는 아동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합하여 70.2%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관악단에 신청하고 싶은 아동이 59.6%, 약 90명가량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상위관악단에 신청한 아동은 50명가량으로 신청하지 않은 아동 중에도 약 40명가량이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VI-51] 본 사업 지속 참여

		빈도	유효 퍼센트
지속참여	전혀그렇지않다	3	2.0
	대체로그렇지않다	5	3.3
	그저그렇다	21	13.9
	대체로그렇다	50	33.1
	정말로그렇다	72	47.7
	합계	151	100.0

[표VI-52] 주위에 권유

		빈도	유효 퍼센트
주위에 권유	전혀 그렇지않다	3	2.0
	대체로 그렇지않다	2	1.3
	그저 그렇다	40	26.5
	대체로 그렇다	53	35.1
	정말로 그렇다	53	35.1
	합계	151	100.0

[표VI-53] 상위관악단 지원

		빈도	유효 퍼센트
상위 관악단 지원	전혀그렇지않다	10	6.6
	대체로그렇지않다	15	9.9
	그저그렇다	36	23.8
	대체로그렇다	40	26.5
	정말로그렇다	50	33.1
	합계	151	100.0

VII

질적 평가 분석

1. 동기부여
2. 개인적인변화
3. 친구관계
4. 부모님과의 관계
5. 장래희망
6. 협동심
7. 소속감

1. 동기부여

1) 개인적인 재미¹²⁾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데 개인적인 욕구가 중요하다 : 처음부터 악기에 대한 호기심이나, 혹은 책임감으로 연습을 하게 되었고, 음악감상, 합주 등으로 자신감과 실력이 향상되면서 재미를 느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도 몇몇 아이들(지현○, 김제○)은 연주 실력에 한계를 느낀다고 대답했다.

(1) 연주 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동기에 관한 아동들의 반응

①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재미를 느끼는 아동

다음의 아이들은 악기에 애초부터 관심이 있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주 활동을 좋아하고 있다.

- 허영○ (클라리넷) : 합주하는 것도 재미있고, 아, 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악기를 배우고 싶어는 했는데, 악기가 뭐 있는지도 몰랐고 피아노만 배우다가 센터에서 아는 언니가 악기 하는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계속 졸라서 저도 시켜달라고 해서 하게 되었어요.
- 김한○ (호른) : (언제부터 배웠는지) 몇 월 달부터 배웠는지 까먹었어요. 재미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 처음에 튜바인지 알고 싶었는데요. (호른을 처음보고) 보니까요. 좋았어요. / 살짝 힘들었을 때는 입술이 터져가지고, 부를 때 따가워요.
- 백가○ (플룻) : (언제부터 배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연주하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힘든 적은) 별로 없었어요.

12) Interviewer가 '재미' 있느냐고 물었다. 이기○이의 경우만 제외

- 이기○ (드럼) : (악기배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미있어요. (처음 했을 때랑 지금이랑
쪽 재미있냐?) 네. (재미없거나 가기 싫거나 피곤하거나 그랬던 적이 있는지?) 아니요.
- 정은○ (색소폰) : (4년 동안 악기 배우면서 힘들거나 재미있었던 적은) 없는데요. 힘들었던거요?
없는데요. (중간에 그만둔) 용현이 오빠는 싫다 그랬어요. 악기 하는 게.
- 이현○ (트럼펫) : 아직까지 힘든 적은 없었어요. 처음보다 지금이 좀 더 재밌는거 같아요.
(처음에는) 잘 안 되가지고 힘든 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볼 줄 아는게 있으니까. 심
심해도 혼자 볼 수 있고. 악보를 받았을 때도 옛날보다는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서.
- 양주○ (색소폰) : 처음에 보면 악기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 새로운 악기 부니까 신기해서
처음에 제일 높았던거 같아요. 그래프 그리면. 그리고 중간쯤가면 이제 불기도 하고 실력
도 느니까 거기서도 재미있었던거 같아요…….
- 안석○ (클라리넷) : (클라리넷 배우는 건) 괜찮아요. 손가락 운동하고. 그런거라…. / 재미없
어진 경우는 없었어요. (재미도가 상승했나?) 그냥. 약간. 조금. 45도 각도? (상승했다.) / (하
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냥 좀 있다가 내가 해야될 거고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월
요일 몇 시에 해라, 연습해야 된다. 그런 거 있으면 원래 학기 중에는 그냥 좀 있다가 저녁
이고 하니까 학교에서 좀 늦게 끝나고 많이 힘들었는데 좀 쉬다가 그냥 조금이라도 불지
뭐 해가지고.

슬럼프를 겪지 않은 아동들을 살펴보면, 허영○이와 정은○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3기 즉 1
년 미만인 아이들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아이들은 아직 슬럼프를 경험하는 시기가 오지 않
은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주하기 쉬운 악기(예. 플룻, 타악기)의 경우 학생들이 슬
럼프를 덜 겪고 어려운 악기의 경우는 더 힘들어 하는지는 앞으로 주시해볼 만하다.

② 슬럼프를 경험한 아동

처음에는 호기심에 관심을 가졌지만, 연주 실력 향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힘들어 하다가
어느 순간 재미를 느꼈다(지현○, 김제○, 김현○, 준위, 이진○, 이다○).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연주
활동을 좋아하지는 않았더라도, 인터뷰에 응한 아이들은 대부분 결국 슬럼프를 이겨내고 난 다

음에는 연주활동이 재미있어지고 현재 즐겁게 올키즈스트라 활동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 지현○ (트럼펫) : 처음 배울 때는 그래도 한 세달? 정도까지는 이게 신기하고 처음 보는 악기니까 부는 것도 신기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재미있었는데. 배우고 나서. 이제 악기를 알고 나서 실력이 안 느는 걸 아니까 그러고 나서 좀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 2년 지난 후부터 연주회 같은거 하면서 곡 난이도가 더 높아지고 그렇게 연습을 해야 하나까. 거기에 맞춰 연습하느라고…… / 배우는 시간이 좀 아깝다고 생각되서 제대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선생님하고 애들하고도 같이 연습하면서 좀…… (흥미를 느끼게 됐어요.)
- 김제○ (트롬본) : (언제가 제일 힘들었던거 같아?) 2년 정도 지났을 때? (왜?) 모르겠어요. 그냥 음악이 별로 재미없었던거 같아요.(다시 재미있어진 계기를 묻자) 그 재밌다고 생각을 하면서 재밌어 진거 같아요. 안하기에는 좀 아까워서? / (연습은) 시간날때마다 집에서 일주일에 한 3번. 재밌어서 연습하고.
- 김현○ (트롬본) : 지금 엄청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재미있다가 이제 점점 재미가 없어지면서 작년에는 (학교) 동아리가 재밌어가지고 악기 그만두었다가 (센터)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올해 상밴¹³⁾에 들어갔다가 상밴 (연주회) 준비하면서 재미가 느껴지면서 지금 한달전 정도부터 엄청 재밌게 하고 있어요. / 재미없었을 때는, 선생님이 계속 연습하라고 그러는 억압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게 안 붙어지니까 엄청 싫었었고. 연습도 안해가지고 그래서. / 다시 좋아진 거는 일단은 처음에 상밴 다시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서는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다가 일주일 연습하고 일이주 계속 연습하면서 상밴 애들 이랑 합주하면서 노래가 막 나오잖아요. 이제는 연습한 만큼 나오고 하나까. 솔직히 소리도 괜찮아지면서. 그때부터는 재미가 확 붙었다가 지금은 아예 너무 재미있어져버렸죠. / 학교에서도 아, 이거(트롬본) 연습하고 싶다, 연주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들고.
- 이준○ (클라리넷) : (클라리넷 배우는 건) 재밌기는 해요. (1년 배우고 나서) 연습을 해도 실력이 늘지 않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하기 싫어질 때가 간혹 있었어요. (극복하게 된 계기) 한번

13) 상위관악단을 아이들이 줄여서 부르는 말. 상위관악단의 줄임말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되던 게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력이 좀 느는 거 같아요.

● 이진○ (튜바) : 처음에는 짜증났는데요,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아진 계기는?) 어. 계속 안 되는 거를 연습하다 보니까요.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가 좋아가지고 계속하게 되다 보니까 재밌어 졌어요.

● 이다○ (타악기) : (힘들었던 시기는) 배운지 2년쯤. 진짜 하기 싫었을 때는 엄마한테 그만두면 안되냐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드림을 나갔는데 그 마음이 없는거예요. 어제가지만 해도 내가 이걸 꼭 나가야 되는가, 뭐. 그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진 거 같아요.

슬럼프를 겪은 아이들은 모두 처음 1~2년 간이 연주 실력이 잘 늘지 않아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양적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1년~2년 기간의 아이들이 동기부여와 몰입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결과와 동일하다.¹⁴⁾

(2) 슬럼프의 극복

슬럼프를 경험한 아동들의 인터뷰 내용에서 나오듯이, 많은 아이들이 슬럼프의 극복 방법으로 “꾸준한 연습”을 꼽았으며, 주위의 격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① 스스로 극복하도록 두라는 아동

● 김제○ (트롬본) : (연주가 힘들고 지겨워졌을 때) 좀 쉬는 시간을 주면 되지 않을까요? 방학 같이.

② 슬럼프 극복을 교사가 도와줬으면 하는 아동

● 김현○ (트롬본) : (슬럼프에) 좌두는 것보다는 옆에서 누가 뭘 해라 이러는 선생님이 한분

14) 참고 p. 102

정도 있어야 자극받으면서 하긴 하고 그러니까. 그게 더 나은 거 같아요.

● 이진○ (튜바) : (선생님이) 그냥 말이라도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 김지○ (타악) : 만약에 누군가 나는 요즘 이게 슬럼프가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악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논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앞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살펴보면¹⁵⁾, ‘힘든 순간’에 대해서 ‘실력이 늘지 않아서’ 힘들다는 아이들이 45.5%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1년~2년 사이에 악기 실력이 늘지 않아서 슬럼프를 겪고 이것을 연습으로 극복하는 경우가 있음을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또한 상대적으로 연주하기 쉬운 악기(예. 플룻, 타악기)의 경우 학생들이 슬럼프를 덜 겪고 어려운 악기의 경우는 더 힘들어 하는지는 앞으로 주시해볼 만하다.

시작한지 1년 미만인 어린 아이들(3기, 초등학교생 - 김한○, 백가○)은 흥미롭게도 언제부터 배웠는지 기억을 하지 못했다.

2) 연습

(1) 연습의 필요성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은 대부분 연습은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현○이와 김한○, 이기○, 김현○, 이진○, 이준○, 양주○이는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실력이 느는 것을 느꼈다고 하였고, 허영○이도 연습을 안 하면 확 느껴진다고 했으며, 김제○이도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진○는 공연보다는 연습을 통해서 자신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김현○이는 특히 전공을 생각하면서 공연 3주전부터 하루 두세 시간씩 연습하면서 어느 날 소

15) 사업 만족도 조사 p. 114

리가 좋아진 것을 느꼈고 악보를 보면서 실력 향상을 느껴서 뿌듯했다라고 했다. 양주○이의 경우는 강사선생님과 친구들하고 같이 연습하는 것이 색소폰을 부는 것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현○이와 백가○이도 연습시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고 말함으로써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말했다. 김현○이도 동생들을 가르치면서 애들 못하는 것을 자신이 한다는 사실에 재미있고 실력 향상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백가○이의 경우는 연습을 해서 잘 되는 것 같다고 느낀 것이 조금이라고 대답했다.

(2) 연습시간과 장소

연습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김현○이의 경우는 공부방에 가면 의례 악기를 꺼낸다고 한다. 단, 이기○이는 드럼을 연주함에도 시간과 장소를 가린다기보다는 아무데서나 손동작을 함으로써 연습을 한다고 말했다. 타악기가 개인 악기가 없어서 연습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단점을 극복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정은○이는 연습일지를 쓰는 것이 연습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였지만, 연습을 더 하고 싶는데 시간과 장소 때문에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고도 했다. 주로 집에서 연습을 하는 이준○은 일주일에 한 번 레슨 시간은 부족하고, 혼자 연습할 시간이 학원 등으로 턱없이 부족해서 아예 오케스트라 활동에 따로 연습 시간, 개인 연습 시간까지 넣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3) 난이도가 높은 곡에 대한 선호

많은 학생들이 난이도가 높은 곡이 주어지면 더 열심히 연주하게 되었다고 말했고 어려운 곡을 연주해야하는 상위관악단 활동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지현○ : 상위밴드는 연습해야 될게 많고 곡들도 많아지고.. 그게 더 재미있어요.
- 허영○ : 어려운 과제를 받았을 때 오히려 더 도전하고 싶어지는. 맨 처음에 ‘엘까미노 리얼’ 곡 받았을 때 어, 이게 뭐야 이랬는데 그래도 하고 나서 ‘이런걸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뭔가 도전하고 싶은게 생겨야지 연습을 하는 편이라서…… 뭔가 재밌어 보이고, 그리고 하고나서 신기했어요. 아, 이거 할 수 있구나. 어려운 걸 보면 아, 하고 싶다. 이렇게 있어요.

- 김한○ : (상위관악단은) 멋있어요. 어려운 곡하니까. / 어려운 곡을 하니까 점점 이게 더 재밌어요.
- 김현○ : 일단은 한 곡 갖고 연습하면서 잘되면 다른 것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악보를 받으면 더 욕심이 계속 생겨요.
- 이준○ : 어려운 곡을 받으면 제가 이 곡을 마스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인지 그 어려운 부분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실력이 느는 거 같아요.
- 이현○ : 좀 어려운 거를 하면 하나를 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성취감이 좀 더 있어서.
- 김지○ : 너무 쉬우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치기만 되는 거면 그러니까 내가 왜 하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어려우면서 조금 도전쉽이 있으면서…….
- 양주○ : 집중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더 높지 않을까요? 자기가 원하는걸 하니까.
- 이진○ : 자유롭게 하는 게 더 좋죠. (상위관악단 지원이유) 곡을 좀 더 배울 수 있을 거 같아요. 더.
- 안석○ : 제가 연주하고 싶은 곡 할 때(더 재미있어요.)
- 김제○ : (상위관악단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힘들어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 이준○ : (상위관악단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들 것 같고……. 별로 그렇게 많이 갈 생각은 없거든요.

학생들은 자유롭게 연주하는 것이 좋지만, 어려운 곡을 받는 것이 연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으며,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열심히 연습해서 상위관악단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 상위관악단의 존재가 아이들에게 어떠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제○이와 이준○처럼 상위관악단보다는 지역에서 너무 힘들지 않게 배우고 싶은 아이들도 있었다.

3) 합주

(1) 합주 선호

학생들은 레슨과 합주 중에는 합주를 선호하는 것이 뚜렷이 보였다. 합주를 선호하는 이유에는 함께 연주해서 음악이 된다는 점,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아는 계기가 되거나, 동기 부여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 지현○ : 합주를 하면 다 같이 모여서 맞게 연주하는 거니까. 뭐 이런 화음 같은 거 들으면 재미있고, 지휘에 맞춰서 연주할 수 있다는 것도 재미있고.
- 허영○ : 합주가 더 재밌어요. 클라리넷 소리밖에 레슨 때는 못 듣잖아요. 근데 합주할 때는 다양한 악기소리가 어울려져서 저희가 막 멜로디만 나오는 때도 있고 반주만 나오는 때도 있다가 다른 멜로디랑 합쳐져서 전체가 되는 게.
- 양주○ : 합주를 하면 다른 악기소리도 같이 나오니까 그걸 들으면서 하면 더 재미있는 거 같아요.
- 김한○ : (언제부터 연주가 재미있었어?) 합주 들어가고부터 더 재밌었어요. (캠프 때 재미있는 거는) 악기 합주하고. 그게 재밌었어요. / 한 악기로 하면 곡이 뭔지 모르는데 다른 악기까지 있으니까. 그거 곡이 뭔지 알고 더 재미있어요.
- 김제○ : (합주는) 다같이 맞추니까 진짜 노래 같아요.
- 김현○ : 합주는 다 모든 악기들이 같이 하는 거라서 저 혼자가 아니라 전체 애들이 노래가 나오잖아요.
- 김수○ : 합주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대화도 하고 좋은데 나쁜 점은 다른 사람만 혼자 자기 잘났다면서 빨리 하는 게 나뻐던 거 같아요.
- 백가○ : 합주하는 거(가 더 재미있다.)
- 이기○ : 합주 가는 게 (레슨보다) 더 재미있는 거 같은데……. 어. 거기 있는 형이랑도 좀 친하고 어… 그냥 음악을 좀 더 알아서 칠 수 있어서 재밌어요.

- 정은○ : 레슨은……. 좀 모르는걸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아요. 혼자 (연주)하면 좀 그래요. 그래서 합주가 좋은거 같아요. / (상위관악단 와서) 레슨이랑 합주시간이 좀 길어서 좋아요.
- 이준○ : 합주가 더 재미있어요. 왜냐면은 그 레슨은 그냥 자기 부족한 것만 채우잖아요. 그런데 합주를 하면은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붙여야 되고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어디가 어떻게 부족한지 잘 알 수 있어가지고 고치기 쉬운 거 같아서 합주가 더 좋아요.

(2) 레슨 선호

일부 학생들은 합주를 선호하면서도 레슨이 자기연습과 실력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의 학생들은 합주보다는 레슨이 더 좋다고 말했다.

- 이현○ : 레슨 때는 곡을 더 잘할 수 있는 게 좋구요, 합주할 때는 저, 잘 모를 때가 많아가지고. 그게 좀 힘든게 있어요.
- 이진○ : 합주할 때는요. 못하면은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개인 레슨을 할 때에는 아무리 틀려도 선생님이 가르쳐주시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거 같아요.
- 안석○ : 저는 레슨이 더 좋은거 같아요. / 레슨은 클라리넷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시니까.
- 이다○ : (레슨이 더 좋아요.) 선생님이 있으니까. 배울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합주 가면은 그냥 여태껏 가르쳐 주신 걸로 제가 악보보고 치는 건데 그러다가 또 뭐 이거 잘 모르겠으면 어디다 물어볼 때도 없고. 좀 그래요.

레슨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친구들의 연주에 맞추어야 하는 합주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레슨은 선생님이 틀린 것을 가르쳐주시지만, 합주 때는 스스로 맞추어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단, 레슨은 혼자해서 지루하고, 합주는 즐겁다는 것은 모두 동의했다.

4) 연주회

연주회는 모든 아이들이 일관적으로 좋아했다.

- 지현○ : 배우고 나서 3년차쯤 될 때 지역에서 공연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솔로로 한번 하라고……. 그것 때문에 선생님과 연습하면서 (악기가 재미있어졌다.)
- 허영○ :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표정 있잖아요. 앞에 있으면 다 보여요. 그러는게.
- 김제○ : 재밌었어요. .
- 백가○ : (공연할 때 어떤 느낌이었어?) 음. 기분 좋은.
- 김한○ : (악기가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아, 더 큰 무대에 설 수 있게 됐어요. 용기를 주고, (공연하고 나서는) 뿌듯해요. 사람들이 박수쳐주니까.
- 김현○ : 이번에 상뎌 연주회 할 때 제가 울 뻔 했어요. 딱 하면서 불다가 마지막 즈음에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 이준○ : (공연에서) 막 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정말 잘 분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 정은○ : (공연할 때 뿌듯함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네. 맨날 느껴요. (어떤 부분이?) 그냥 우리가 악기 한다는걸 보여줘서?
- 이현○ : (공연할 때) 잘 안되가지고 좀 떨리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왜지 기분은 좋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같이 부는 게 좋았어요.
- 이다○ : 거기 부대 위에서 제가 (드럼을) 칠 때 긴장하다 보니까 어디 어디가 부족한지 제가 다 알겠는 거예요. 평생 아무리 쳐도 잘 모르던 게. 내려가서 선생님한테 여기 잘 안된다 가르쳐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느는 게.
- 김지○ : (공연도) 추억이 되고 경험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이 공연이 누군가 앞에 서가지고 친다는 게 뭔가 멋있어 보이고 아, 내가 앞으로는 더 잘 쳐가지고 이런 공연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하니까.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공연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연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긴장되는 경험인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칭찬을 받음으로써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아이들이 보람, 뿌듯함을 느꼈다고 대답했다.

5) 캠프

아이들은 캠프를 연주 연습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 지현○ : (캠프에) 갔다 오면은 딱. 느껴지는거 같아요. 그 연습한 만큼
- 김한○ : 악기 합주하고, 그게 재밌었어요.
- 이진○ : 처음 갔을 때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연습만 했거든요. 두 번째 때는 연습도 하고 합주도 하고 그래서 발전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 정은○ : (캠프에서) 합주도 좋고 노는 것도 좋고 다 좋았어요.
- 김제○ : (캠프는) 많이 더웠어요.
- 김현○ : 캠프에 제가 밤늦게 가가지고 아침에 합주를 아침에 한 번 밖에 못했거든요. 엄청 아쉬웠어요.

캠프에서 연주를 많이 하고,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언급이 많았다. 캠프의 장점은 합주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김제○이의 경우는 캠프는 너무 덥다고 말 한 것으로 보아 연습이 많은 캠프의 단면을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캠프에서 연주 외의 활동을 통해서 다른 단원들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허영○ : 캠프 자체는 재미있는데 그때는 (이전 캠프를 말함) 다른 지역 애들이랑도 레크레이션 하면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계속 같은 지역끼리 합주만 하고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해요.

- 백가○ : (캠프에서 제일 재미 있던 거는) 저녁에 막 춤추던 거? (장기자랑)
- 김수○ : (친해지려면) 단합활동이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이인삼각 같은 거.
- 이준○ : 합창 때가 정말 재미있었던 거 같아요. (장기자랑)
- 이현○ : 맨 마지막에 장기자랑 같은 거, 제일 재미있었던 거 같아요.

현재 캠프 활동이 연습 위주이기 때문에 그 보다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생들의 위와 같은 의견은 올키즈스트라 활동이 연습활동이 대부분으로 학생들 간의 친해지는 계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칭찬

연주활동을 하면서 주변에서 받는 칭찬이 아이들에게 좋은 동기 부여가 되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칭찬을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았다.

〈동료〉

- 지현○ : 친구들은 신기해해요. 내가 뭐 그런 것도 하나 그러면서.
- 정은○ : 연주회 끝나고 친구들이 (많이 칭찬해줬어요.)
- 이다○ : 새 학기 되면은 막 소개 같은 거 하고 그런거 쓰잖아요. 특기에 드럼 쓰고. 몇 년 배웠냐고 그러면 3년 정도? 이러면. 그렇게나 오래 배웠어? (친구들이) 놀라고. 잘 치겠네? 그러면 잘 치지. 친구들한테 괜히, 나 드럼 잘 치거든. 이려고.

〈관객〉

- 김한○ : 뿌듯해요. 사람들이 박수쳐주니까.
- 허영○ :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연주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애기들은 아무거나 불러줘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병원에서) 지루하시잖아요. 근데 가면 되게 반겨주세요.

〈학교 선생님〉

- 허영○ : (학교) 선생님이 청와대 갔을 때 (청와대에서 초청 연주 한 것을 말함) 야, 스타네. 이런 식으로?
- 김수○ : 학교에서 이 악기 때문에 단소도 더 잘 불게 돼서 음악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엄마 아빠가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어요.
- 김현○ : 제가 국어시간에 자습시간, 악보를 본적이 있는데 쌤이 너 그거 전공할거냐고. 제가 이걸로 대학갈꺼라고 하니까 그럼 자기 시간에는 악보 보래요.

〈어머니〉

- 김제○ : (공연 후에 엄마가) 배우길 잘했다고.
- 양주○ : (부모님께 악기) 칭찬 받은 적 있는 거 같아요.
- 이다○ : (교회 공연에서) 잘한다고. 엄마는 가르친 보람이 있다고 그러고.
- 김지○ : (공연 보러 오셔서)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진짜 오랜만에. 처음. 처음 봤다고 하기에는 애매한가? 너무 신기한거예요. 아우. 내가 그 정도였나?

〈음악강사〉

- 김한○ : 면접 봤는데 소리가 더 나아졌다고 (칭찬해주셨어요.)
- 백가○ : 악기 잘했을 때 레슨 선생님이 칭찬해주셨어요.
- 이기○ : (드럼 강사 선생님과 센터 선생님이) 그냥 뭐 잘한다고 하시던데요…….
- 이진○ : (칭찬을) 제일 많이 해준 사람이 저희 튜바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해준 거 같아요. 갑자기 곡을 잘 불거나 좋은 소리가 날 때 잘한다고 너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2. 개인적인변화

1) 자신감 / 인내심

많은 학생들이 올키즈스트라 활동을 한 후에 자신감 / 인내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양적평가에서는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개별 인터뷰에서는 자신감, 자존감이 향상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1) 악기의 경험을 통해 다른 것에도 도전

- 지현○ : 자신감도 더 생기고 뭐, 생각하는 것도, 차분해지고, 인내심 같은 거 생긴 거 같고. (왜?) 악기를 하면서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그런걸 연습하면서 좀 참을성도 키우고 그 만두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해서. / 그만큼 (오케스트라 활동을) 꾸준히 한 게 있으니까 (기능검정 시험 보는 것에도) 꾸준히 할 수 있게 된 거죠. / (본인 연주 실력이) 4년 배운 것치고는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 김현○ : 악기를 배우기 전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면 아 저거 못한다고. (악기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학교나 공부방에서 뭐를 하라고 할 때 목표 같은 게 생기면 절대 포기는 안하겠다고 해보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최대한 그 목표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요즘은. / 이제 많이 연습도 이제 오래해보면서 아,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든지 길게 물고 늘어지면 하나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 공연했을 때 아, 이제 드디어 트롬본 소리가 들린다(고 센터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그 소리 들었을 때 제일 기뻐요. / (친구들한테 자랑한적 있는지?) 애들한테는 나 악기 배운다고. (유튜브에 올려진 연주) 영상 보라고. 제가 이 악기 한다고 대학 간다고 하니까 부러워해요.
- 백가○ : (음악을 하고 나서) 미술 같은 것에…….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 이다○ : 저 옛날에 드럼 칠 때 완전 못 쳐가지고 맨날 너 왜 이렇게 못 치냐고 이런 소리 들었는데 계속 하다보니까 늘잖아요. 느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공부를 하

고 있는데 그것도 맨 처음에는 안되었는데 갑자기 드럼 생각도 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드럼이 늘어서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생각을 바꾸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드럼은 딱 눈에 보이잖아요. 이만큼 느는 게.

(2) 남이 안하는 것을 한다는 것에 자신감

- 허영○ : 일단, 보통이어도.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선 그런 거니까……. 아, 그리고 엄마가 되게 지지를 많이 해주세요.
- 김수○ : 악기를 배우고 있을 때요.(자신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한다.) /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배우는 거 같아요. / 친구들은 이런 악기를 못배워가지고요. 자랑하고 싶었던 게 매일매일 있어요.
- 김한○ : 야구할 때 (내가 뭘 굉장히 잘한다고 느낀다.) / (호른의 장점은) 불기 어려운데 제가 부니까……. 악기들이 비싸니까. 그걸 (제가) 쓰고 있으니까.
- 이준○ : (공연에서) 막 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정말 잘 분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 아무래도 클라리넷이나 이런 거는 거의 흔하게 볼 수 없고 웬만한 사람들은 안부는 악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더 특별해보이고 그러다보니까 생활에도 좀 영향을 주는 거 같아요.
- 이현○ : (자신감이) 생긴 거는 좀 생긴 거 같아요. /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닌데요. 트럼펫 연주를 할 수 있으니까 남들이 못하는 거를. 트럼펫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내세우면 저는 트럼펫을 좀 볼 줄 안다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 이진○ : 약간 생긴 거 같아요. 자신감이. 음악에 대한 거를 하면 남이 모르는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 악기하기 전 에는요. 그냥 그런 거 하는 거 자체가 부러웠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악기를 불면은요. 공부도 그렇게 몰입할 수 있을 거 같아요. / (악기를 배우기) 전 에

는요. 아무생각도 없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데 제가 악기를 한 후로부터는 생각이 약간 달라진 거 같아요.

● 양주○ :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생활에서 하나가 더 늘었다는 거는 자신감이 는 거니까. 센터 애들은 좀 작은 애도 있잖아요. 저희보다. 개네들이 보면 좀 (악기 연주하는 우리를 다르게 보는 것) 그런 거 같아요.

● 김지○ : 드럼을 내가 치니까 3년, 4년 정도 배웠는데 못 치는 정도는 아니고 보통은 치잖아요. 칠 수 있으니까. 뭐, 자부심? 다른 애들은 악기를 이런 거 못 배우는 애들도 있고 하나만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고 드럼이라는 악기도 배울 수 있고 뭐 이런 악기도 배울 수 있고 이러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 같아요.

(3) 막연한 자신감

● 이기○ : (자신이 이거 좀 잘한다고 생각해본 적 있어?) 네. 그냥 뭐 음악 같은 거 할 때.

● 정은○ : (악기하고 나서) 그냥 다 열심히 하게 된 거 같아요. (이전보다 자신감이 생겼는지?) 네. (언제부터?) 상위밴드 하면서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연주활동을 하고 난 후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대답했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생겼고, 다른 친구들이 할 수 없는 악기를 연주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앞으로 음악을 전공하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으며, 연주활동으로 인해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어졌다거나, 무엇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2) 음악과 가까워진 일상생활

음악과 가까워졌다, 알게 되었다는 것도 학생들이 말한 울키즈스트라 활동 이후 자신에게 생긴 변화이다.

- 지현○ :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일상이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그 여러 노래 들으면서 뭐 재밌는 노래도 있고, 재즈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클래식 그런 것도 들으면서 감탄도 하고 혼자서, 그런 게 재밌는 거 같아요.
- 허영○ : 교회에서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말해서 반주를 하게 되었는데 어렵잖아요. 솔직히, 어, 하면 될 거 같다 이래서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클라리넷처럼) 음악 쪽으로 관련된 거라 그런지, 둘 다 손가락 돌리는 거니까 피아노가 잘돌아가면 클라리넷도 잘되고 클라리넷이 잘 되면 피아노도 잘되고……. 신기했어요.
- 이기○ : 드럼 박자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더 알 수 있었고 드럼도 더 잘 치게 된 것 같아요.
- 이준○ :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클래식을 배우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친구들은 지루하다, 자고 싶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곡이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시선으로 더 그런 거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가지고 좋은 거 같아요.
- 양주○ : 합주하면 다른 악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때 또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 이다○ : 시험기간이어도 저는 드럼 맨날 맨날 나가서 쳐요. (기분) 풀려고.

일상생활 속에서 음악과 가까워져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게 되었다든지, 클래식에 관심이 생겼다는 아이들도 있었다. 학교와 교회 등에서 더 흥미를 가지고 음악을 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3) 학교성적 / 생활

음악 성적이 올랐다는 학생이 다수이고, 다른 과목의 성적과 직접적인 연관은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성적이 전반적으로 오른 친구들도 있었다. 성적이 오른 친구는 자신의 성적과 올 키즈스트라 활동을 직접적 연관시키지 않았다.

(1) 음악과 학교 성적

① 학교성적이 오른 아이들

- 지현○ : 악기 연주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학교 공부보다는……. 그래도 음악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하니깐 (음악점수) 100점 맞아 봤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반등수도 오르고. (오케스트라 활동) 하면서도 그랬고 저 자신도 공부를 더 했고……. (왜 공부를 더 열심히 했는지?) 미래를 생각해서 잘해야겠다. 생각한 거 하고 또 악기 한거하고 서로 합쳐져서 열심히 한 거 같아요.
- 김수○ : (학교 성적)이 높아진 것도 많아요. 집중력 때문에 사회 점수도 20점, 40점 계속 오르고. (음악평가도) 보통 아니면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체로 잘함, 매우 잘함으로 올랐어요.

② 음악성적이 오르거나 여러 면에서 음악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아이들

- 이진○ : (악기와 공부)는 약간 연관성이 있는 거 같아요. 악기를 불면은요, 공부도 그렇게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한○ : 음악 수업이 재미있어졌어요. 음악수업 말고는 별 차이 없는 거 같아요.
- 이현○ : 트럼펫을 잘하니깐 공부도, 좀 더 해야겠다 해가지고 공부도 좀.(열심히 하게 되는 거 같아요.)
- 허영○ : (음악 때문에) 성적이 오르거나 그런 건 없고……. 어른들 생각으로는 악기하고 그러면 떨어질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 같아요. 아는 동생도 클라리넷 하다가 엄마가 공부하라고 뭐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자기의 몫이지 악기를 한다고 해서 떨어지거나 오히려 잘하게 되면 집중력 같은 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은 잘하게 되지,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같아요. 일곱 시간까지 연습한 적도 있어요. 열심히 할 때는. 아, 놀래가지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할

정도로……. 공부는 말고, 책 읽는 거라든가 그런 거는 늘긴 느는 거 같아요.

- 김제○ : (연주와 공부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 본적은) 전혀요. (음악 성적은) 음악 관련된 용어를 알게 되어서 (도움이 된 면은 있다.)
- 정은○ : (음악점수는) 진짜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진짜 어이없는걸 틀렸어요. (음악 성적에는 도움이 된 거네?) 네.
- 이준○ : (학교 성적이) 오르는 건 잘 모르겠는데. 떨어진 건 아니라고 봐요.
- 양주○ : 음악공부하고는 관련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그냥 학교 공부하고는 잘 모르겠어요.

③ 음악이 학습과는 연관이 없는 것 같다는 아이들

- 이기○ : (드럼을 배우고 나서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음악수업에는?) 별로요.
- 김현○ : (연주 활동을 한 이후에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지) 따로 별도의 그런 건 없어요.

(2) 음악이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

아이들 중에는 음악을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자신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진 것 같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아이들의 울키즈스트라 활동이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 정은○ :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악기 하나고 막 물어보고 막 사물함에 악보도 넣어놓고 이런 거예요. 자기랑 (연주) 하자고.
- 이진○ : (학교 선생님이 자신이 악기를 한다는 사실을 아셨을 때) 튜바가 뭐냐고. (자신을 보는 눈이) 약간 달라진 거 같았어요.
- 이다○ : 새 학기 되면 막 소개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쓰잖아요. 특기에 드럼 쓰고. 몇 년 배웠냐고 그러면 3년 정도? 이러면. 그렇게나 오래 배웠어?

3. 친구관계

대부분의 아이들이 올키즈스트라 활동 후에 외부에서 친구관계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대답했다. 반면, 올키즈스트라 내의 단원들과 친해지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올키즈스트라 내부에 또래친구가 없다거나, 친해질 기회가 없는 것이 이유였다.

- 지현○ : 오케스트라에는 또래가 없으니까……. (학교친구들보다 친하지는 않다.) / 사회에 나가면 학교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애들만 만나고 못 만나는 애도 있고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매주 한 번씩 만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 같아요. / 친해지는 게 오히려 오케스트라 활동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 같아요. 막 너무 친해져가지고 까불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는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런데 안 친한 거 보다는 친한 게 더 재미있을 거 같아요. 활기차고, 오고 싶어지니까. 애들 만나러.
- 허영○ : 친해지면 약간 시끄러워질 것 같기는 한데 친해져야지 호흡은 잘 맞을 것 같아요.
- 김현○ : (악기 하면서) 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랑 더 친해져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악기는 인맥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일단 무조건 어르신들이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 합주 외에도 단원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죠.
- 이준○ : (오케스트라 활동이 친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건 별로 상관없는 거 같아요. (단원들과는) 친해지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 같이 있을꺼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 김제○ : (단원들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친해지고 싶어?) 아니요. (단원들끼리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싫은 건 아니고. 어색할거 같아요.
- 김수○ : 합주할 때 쉬는 시간에 혼자 앉아있거나 아니면 혼자 다니니까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 백가○ : 합주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언니, 오빠들이 많아가지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조금. 생각했어요.

- 이기○ : (악기를 배우고부터 다른 사람이란 더 친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던 거 같아요.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 이진○ : 친구가 많은 편이에요. / (악기를 하고 친구가 더 많아졌는지?) 아니요.
- 양주○ : (오케스트라 다른 친구들과) 별로 얘기를 안 하니까. (같은 센터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악기 같이 배우는 애들끼리) 더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악기 불다 보면. 그런 점에서 그런(친해진) 거 같아요.
- 안석○ :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친구가 더 많아진 것 같은지?)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오케스트라 아이들과) 아직 말도 안 해봤는데……. 잘 지내야지 연주가 되겠죠?

4. 부모님과 관계

부모님과 관계는 아이들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연령이나, 성별, 지역에 따른 어떠한 일관성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단, 초등학생은 부모님과 대화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보인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진로를 음악으로 선택할까 봐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님이나 할머니와 친할수록 아이들의 연주활동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보인다(허영○, 김제○, 김한○ : 부모님 / 김수○, 백가○ : 할머니).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올키즈스트라 활동을 격려해주지만, 아이들이 장래에 음악관련 전공을 한다고 할까봐 우려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관심은 있지만, 스스로를 음악에 대한 문외한으로 생각해서 어떤 이야기를 아이들과 해야 하는지 주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부모님을 위한 음악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1) 부모님의 지지를 받는 아이들

- 허영○ : 엄마가 되게 지지를 많이 해주세요. 계속해라, 이거. 악기는 계속했으면 좋겠다

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니까……. 엄마도 일단 자랑스러워하는 거 같아요.

- 김제○ : (엄마가) 잘 배웠다고. (최근에 엄마랑 악기관련 된 이야기 나눈 것은) 레슨 안가냐고.
- 김수○ : 아빠하고 엄마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대화할 시간이 조금 밖에 없어요. 저가 오디션을 보기 전에 (어떤 악기를 할지) 고민이 되가지고 작은 아빠하고 할머니하고 얘기를 나눠서 플롯으로 결정된 거 같아요.
- 백가○ : (집에서 엄마 아빠랑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할머니한테 플롯 배운다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관심이 좀 많아요.
- 김한○ : (아빠랑 많이 얘기하는 편이야?) 네. (호른 배우는 거에 대해서 관심은) 보통 인거 같아요. (호른 잘 부는 거에 대해서 알면) 아빠가 칭찬할거 같아요.
- 이기○ : (부모님이랑 대화를 많이 하니?) 네. (드럼 배우는 거는 아시니?) 네. (드럼 관련해서 얘기해 본 적 있어?) 별로……. 엄마가 잘 배워. 그러신 적은 있어요.
- 이준○ : (부모님은 악기 배우는 것에 대해) 좋아하시죠. 아무래도 다른,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전공으로 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 같아요.
- 이현○ : 어쨌든 꽤 잘 분다고 그렇게 칭찬 받았던 적이 있는 거 같고요.

2) 전공을 할까봐 우려하는 부모님

- 지현○ : 사춘기 지나면서 뭔가 말할 거리가 없어서……. 그제 언제부터 습관이 되었어요. 말을 꺼내지 못해요. 서로 말할 거리가 없어서.(부모님이 본인 악기 배우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악기 쪽으로 나가는 생각은 가지지 말라고. 취미로 하라고. / 연주회 이번엔 오셨어요. 그냥 연주 끝나고 로비에서 만났을 때 잘했다. 그 얘기 한마디 하시고. /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셨던 적은) 청와대 초청공연 가서 (대통령하고) 단체사진 찍은 거 보여드렸더니 뿌듯해 하시는 거 같았어요.
- 정은○ : (악기 하는 것에 대해서) 아빠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빠가 내가 악기해서 뭐할꺼냐 돈도 못 버는데 악기 뭘 하나 그래서 고등학교도 악기 한다는 고등학교 한번 갔다 오겠다고. 그냥 함 어떻게 하나 보러가겠다고 (했더니, 아빠가) 가지 말라고 가서 악기 할 것도

아닌데 너 왜 그러냐 그래서…… (못 갔어요.)

3) 음악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는 부모님

- 김현○ : (부모님과 대화는) 아주 안 하는 편은 아니에요. (최근에) 엄마랑 이번에 만나서 악기 얘기했어요. 진로 얘기. (오케스트라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원래는 없었다가 제가 전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 뒤로 아빠도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고 엄마는 그냥 오케스트라까지는 관심 안가진 거 같아요. 그냥 저의 진로만 (관심) 가지는 거 같아요. (악기 한 뒤로 부모님과 더 많이 얘기하게 되었는지) 네. /아직 엄마 아빠가 저 악기 부는 거 한 번도 안 봤어요. 이번에(연주회 때) 외할아버지 팔순이셔서 어쩔 수 없이 못 왔고, 누나는 왔었어요. (누나가 연주회 때) 자기 울었다고. 이렇게 컸구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 이진○ : (평소에 부모님과) 얘기 많이 해요. (악기 배우는 것은) 알고 계세요.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 드렸어요. 어떻게 된 악기라고. 관심은 가지고 계시는데요. 뭐랄까. 약간. 그, 뭐라고 말해야 되지? 관심은 많이 가지시는데요. 그렇게 많은 관심은 없으세요. / (연주하는 거를) 볼 때는 잘한다고. 좀 나아졌다고. 달라 보인대요. (연주회에) 오실 때는 (칭찬) 해주시죠. 안 보셔도 약간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시고.
- 양주○ :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지?) 네. (악기 관련한 얘기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 (엄마가 악기에 배우는 거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죠. 뭐냐 이런 색소폰 하는 거 재미있냐? 어머니가 그런 거 물어보고. (부모님이) 그 부는 거를 악기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 안석○ : (부모님과 대화는 많이 나누는지?) 네. (악기 관련한 얘기 나누는 적은?) 네. 있어요. 엄마, 나 오디션 합격했대요. 그래서 아 잘됐네. 엄마 설명회오래요. 얘기하고. 합주 갔다 온 얘기 하고. / (엄마가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관심은) 어, 악기 배우고……. 관악단은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제가 그렇게 자세히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얘기하실 때 보면 열심히 꾸준히 연습 안하면 안 된다고…….

아이들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아이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지

현○이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연주회 와서 많이 감동하셨고 재단 담당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지현○이는 막상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한 것 같다. 차후에는 “부모님과의 관계” 면에 있어서는 부모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장래희망

음악활동을 하고 장래희망이 변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악기를 전공으로 결정하거나 (김현○) 악기 연주자가 되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음악이 관련된 일, 음악 상담사, 치료사, 악기를 다루는 교사 등등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지현○이 같은 경우는 전공을 하고 싶지만 너무 늦게 마음을 먹어 그냥 취미로 계속 하고 싶다고 하기도 하였다. 악기를 배운 것이 장래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아이들은 백가○, 이기○, 안석○인데 세 명은 모두 본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미만인 3기 아이들이다. 전반적으로 본 사업에 오래 참여한 아이들일 수록 음악과 연관된 장래를 고민해 본 것으로 보인다.

양적 평가 결과에서 보듯이,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초등생보다 중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사업에 오래 참여할수록 오히려 악기를 많이 접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의 진로를 확고하게 결정하기보다 더 고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 악기를 전공으로 결정하거나 원하는 아동

- 김현○ : (트롬본 전공할 예정) 일단은 그 꿈은 가지고만 있으면 그냥 내거로 실천이 안 되니까 제 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해봐야겠다고 이번에 생각했어요. (진로를 음악으로 결정한 시기는?) 상위밴드 (연주회) 하면서 끝날 즈음에 / 원래 사회복지사가 꿈이었는데 트롬본 다시 시작하면서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아, 이거 연습하고 싶다. 연주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음악강사) 쌤이랑 이야기 하면서 이제 정하게 되었죠.

- 정은○ : 훌륭한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 양주○ :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음악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걸 (악기를) 하면서 좀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음악 쪽으로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 같아요.

2) 음악이 장래희망에 영향을 미친 아동

- 허영○ : 회계 쪽도 가고는 싶은데... 뭐 악기 배우면서 음악치료사도 되고 싶은 것도 있고 계속 바뀌기는 했지만 일단 고등학교 와서 진로가 일차적으로 정해진 거잖아요(실업고를 간 것을 의미함). 만약 하게 된다면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심리치료사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거 같아요.
- 김제○ : (장래희망이) 맨날 바뀌어요. 악기나 음악으로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 김수○ : (장래희망은) 학교 선생님도 되고 싶고 플루티스트? 그런 것도 되고 싶고. 선생님이 되면 애들한테 (플루트를) 자랑스럽게 붙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본 적 있어요.
- 김한○ : (장래희망은) 야구선수..... (호른을 배우고 나서) 호른 연주하는 사람. 야구 선수 안 되면, 호른하려고 그래요.
- 이진○ : 아직 미정......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기계 만지는 걸로 해볼까 했는데. 요즘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왜?)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악기배운 이후로 달라진 것인지?) 전에는요. 아무생각도 없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데 제가 악기를 한 후로부터는 생각이 약간 달라진 거 같아요.
- 이준○ : 자연과학 연구원이에요. 제가 원래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클라리넷을 하면서 음악이 더 좋아져가지고 언제는 작곡가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은 뭘 해야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 적성이랑 흥미를 맞추어 보니까 자연과학 연구원 하게 된 거 같아요.
- 이현○ : (장래희망은) 제가 꿈이 배우인데요. 좀 많은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그랬는데. 트럼펫을 하니까. 트럼펫도 잘하고 공부도, 좀 더 해야겠다 해가지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게 됐어요.)

- 이다○ : 드럼 열심히 배워서 꼭 난타 공연 같은 거 안해도 막 뮤지컬 배우 같은 거 하고 싶어요.
- 김지○ :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의) 수준은 다 비슷비슷한데 난 다 좋은데 하나를 고르라니 너무 힘든 거 같고. 여기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여기에서 재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헛갈리는 거예요. 지금은.

3) 전공을 고민하지만 너무 늦게 마음을 먹어 취미로 하는 아동

- 지현○ : 자동차 정비, 1년 과정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일하면서 계속 악기를 하고 싶어요. (전공을 생각해 본적은 없는지?) 제가 마음을 너무 늦게 먹어서. 지금 뭐, 중학교 2, 3학년 정도 되었으면……. 전공했을 거 같아요.

4) 음악이 장래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아동

- 백가○ : (장래희망이) 간호사. 다른 고민은 별로 없어요.
- 이기○ : (장래희망은) 아직 잘 안정해졌는데. (드럼 잘 치는 것도 장래희망으로 해봐야겠다 생각 해본 적은 있어?) 아니요.
- 안석○ : 제가 꿈이 한의사거든요. (악기를 배우면서 진로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아니요.

6. 협동심

협동의 경우 아이들은 아직 제대로 된 협동이라는 경험을 안 해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협동이 잘 안 되었을 때 자신이 불이익을 보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협동에 대해 활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은 김현○, 이준○ 정도로 같이 열심히 안하는 아이들에 대한

생각도 표현하고 있다. 아이들이 협동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양적평가의 요인분석 결과 협동심 척도가 동일한 요인으로 아이들에게 인식되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반면 오케스트라는 대부분 협동이 필요한 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으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많았다.

1) 협동해본 경험

- 김현○ : (최근 협동을 해본 경험) 합주한 거요. (열심히 안하는 애들 보면) 화나면서 짜증이 올라오면서……. (악기 연습 못하면) 자기는 상관없는데 다른 애들이 피해보는게 너무 싫어요. 저는. 연습은 혼자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합주 같은 거 맞춰 볼 때는 같이 하는게 더 낫죠.
- 이준○ : 저희 반은 원래 그룹활동을 많이 하시는 편이라서. 그런 경우는 많죠. / 열심히 하지 않는 애들을 보면, 이게 다 같이 하는 건데 왜 재는 저렇게 생각이 없지, 한명만 망치면 자기도 점수 낮아지고 그런 건데 정말 저 아이는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 허영○ : 학교에서 칭찬 게시판 만드는데, 그냥 하면 다같이 하고 안하면 다같이 안하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그런 거는 없었던 거 같아요.
- 김제○ : 우리 중학교에서 음악제 하는데 춤하는 거 단체로 연습했어요. 다들 열심히 했어요.
- 김수○ : 학교에서 피구를 했는데요. 애들끼리 협동해가지고 2번이나 이겼어요.
- 김한○ : 게임이, 협동 플레이라는게 있어요.(다른건 생각 안나요)
- 백가○ : 친구들이랑 같이……. 줄다리기 할 때? 열심히 하는 애도 있고 열심히 안한 애도 있고. (열심히 안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별로. 모르겠어요.
- 정은○ : (최근 협동을 해본 경험) 철학? 무슨 토론하고 그래요.
- 이현○ : 교회에서요. 성탄절에 (발표회) 한번 했는데요…….
- 이진○ : 그냥 애들이랑 축구하고 그럴 때는 자기 개인보다는 협동심이 필요하잖아요.

- 양주○ : 협동 이런 거는 진짜 생각 안나요.
- 안석○ : (최근에 협동의 경험이 있는지?) 어……. 아니요.

2) 오케스트라와 협동

- 김수○ : 합주를 할 때 자기 잘한다고 빨리 하지 않고 그냥. 애들 맞춰가면서 하는 게 좋은 협동인거 같아요.
- 김한○ : (합주할 때도 협동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이유가) 맞춰서 들어오고. 한 악기가 실수하면 다 무너지니까 다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해야돼요.
- 백가○ : (합주에서 여러 명이 같이 해서) 좋은 점은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점은 어, 그게……. 틀릴 수도 있다?
- 김현○ : (합주가 같이해서 좋은 이유) 일단 악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악기이기도 하고. 같이 하면은 화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전 그 소리가 너무 좋거든요.(합주가 같이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은) 다른 악기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과 친구들. 그리고 노래가 나오는 거.
- 정은○ : (오케스트라에서) 다같이 해서 잘 했을 때가 좋은 거 같아요. (같이 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다른 애들이 틀려서 다시하거나 반복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본인 파트) 걸리긴 걸린단 말이에요. 그냥 썸썸이라고 (생각)해요.
- 이준○ : (합주가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거라서) 개인적으로 막 박자를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그렇지 않고 똑같이 잘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도 맞지만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의 박자에 맞추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협동심이나 그런 게 더 깊어지는 거 같아요.
- 이현○ : (오케스트라는 여러 명이 해서) 내가 혼자 소리를 낼 때보다 다같이 하는 게 소리가 더 듣기가 좋고 웬지 더 멋져 보여요. / (안 좋은 점은) 살짝 안 맞을 때나 그럴 때 좀 불편한 거 같아요.
- 이진○ : (오케스트라에서도) 협동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만약에 저는 완벽히 다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안 되었어요. 그러고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 양주○ : (합주를 할 때, 협력이 필요하다고 느껴본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서로 좀 덜 떨리고 그러니까. 그거 제가 들리면 소리가 이상해지니까, 그런 걸 좀 주의 깊게 보는 거 같아요.
- 안석○ : (관악단이 협동이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지 그런 생각. (여러 명이 함께 해서 좋은 점은) 약간 자극이 되는 거?
- 이다○ : (합주가 여러 명이 해서 좋은 점) 소리를 어울려서 내는 거.
- 김지○ : (합주가 여러 명이 하면서 힘든 점) 나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못해서 계속 할 때? 특히 저는 (베이스드럼이라서) 서서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앉아서 하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7. 소속감

오케스트라와 학교 중에 어디가 더 편한지에 대한 선호도는 정확하지 않다. 학교가 더 편안하기도 하고, 오케스트라가 더 편안하기도 했다. 소속감을 이야기하면서 친구들과 얼마나 친한지에 관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르기도 했다. 오케스트라에서 합주하는 것은 편안하고 좋지만 다른 단원들과 친하지 않아서 편안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듯하다. 단원들 사이의 친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 학교보다 오케스트라가 더 좋은 아이들

- 허영○ : (오케스트라는) 일단 분위기부터가 자유롭잖아요.
- 김한○ : (학교보다) 합주할 때.(더 마음이 편하다.)
- 김현○ : 편한 건 (학교나 오케스트라) 둘 다 똑같은데 재미있는 거는 합주, 오케스트라가 더 재밌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려웠는데 이제 곡도 연습하면서 애들이랑 친해지면서 가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토요일마다 무조건 강남 여기(상위관악단 연습, 합주 장

소) 연습하러 오는 게 일상이 되어서 좋아요.

- 정은○ : 처음에 저 진짜 어색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 혼자 앉아있고 뭐하는 건지. 그런데 허영○ 언니가 와서 막 언니랑 친해지고……. / (친해진 계기는?) 캠프. 아마. / (오케스트라 아이들이랑 더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 네. 많이 했어요. (단원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면) 어색하지만 좋을 것 같아요.
- 양주○ : (학교나 오케스트라나 편안한 정도는) 둘 다 비슷한데. (오케스트라가) 하면 할수록 편해지는 거 같아요. (관악단 친구들은) 더 많아져도 상관은 없어요.

2) 오케스트라보다 학교가 더 좋은 아이들

- 지현○ : 학교친구들을 오래보니까 학교 친구들이 (오케스트라 친구들보다) 더 편하죠.
- 백가○ : (학교와 오케스트라 중 마음이 더 편한곳은) 학교에서 할 때. (오케스트라 언니오빠들과) 잘은 못 지내고 있어요. (오케스트라 언니 오빠들과 더 사귀고 싶은지?) 별로…….
- 이현○ : (학교와 오케스트라 어디가 더 편한 지는) 잘 모르겠어요. / 처음에 합주만 받았을 때는 되게 어려웠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나아지는 거 같아요.
- 김수○ : 학교에 있을 때는 친구들을 만나서 기분이 좋은데, 그게 울키즈스트라에 가면 뭐가 아는 애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좀…….



올키즈스트라
사업성과 분석의
시사점

1. ‘동기부여와 몰입’은 올키즈스트라 사업의 중요한 성과이다.

- 1) 유사한 타 사업과 비교하여 올키즈스트라 사업이 ‘동기부여와 몰입’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본 사업 평가에 의하면, 올키즈스트라 사업에 의한 아이들의 변화 중 가장 현저한 효과 중 하나는 ‘동기부여와 몰입’이다. 음악사업에 3년 이상 참여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집단과 올키즈스트라 사업집단을 비교한 결과 올키즈스트라에 참여한 아동들이 더 우월한 동기부여와 몰입 효과를 보여 주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올키즈스트라 프로그램이 다른 유사 음악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아동들에게 음악을 배우는 동기부여를 가져오는데 보다 효과적이고, 프로그램에 몰입하게 하는 효과도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올키즈스트라 사업 내부의 성과비교에서도 사업 참여 년차가 높을수록 ‘동기부여와 몰입’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상위관악단 참여 아동들에게도 본 변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사업에 오래 참여하고, 상위관악단처럼 자원이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될수록 동기부여와 몰입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사업에 참여한지 1~2년 기간의 동기부여 하락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동기부여와 몰입’의 경우, 사업 참여 기간에 따라 일괄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참여 초기에 높았다가 1~2년차에 낮아졌다가 3년이 지나면 다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질적 평가에서도 나타나서 상당수의 아이들이 1~2년 사이에 슬럼프를 겪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슬럼프의 원인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1년이 지나면서 처음으로 악기를 잡았을 때의 신선함이나 새로움이 사그라지고 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아서¹⁶⁾ 슬럼프에 오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

16) 사업 만족도 결과 참고

한 슬럼프를 일단 극복하고 나면 더 높은 성취동기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이들의 사업 참여 지속율을 높이고 계속적으로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슬럼프의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원체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중요하다.

질적 평가에 따르면 1~2년 기간의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꾸준한 연습을 꼽은 아이들이 있었다. 연습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의 변화 정도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매일 연습을 하는 아이들이 ‘동기부여나 몰입’, ‘미래생각’ ‘소속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가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이 슬럼프를 겪는 이유가 ‘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아서’라고 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연습을 통하여 실력 향상을 경험하면 이후 더 높은 동기와 재미를 느끼는 것으로 보여 꾸준히 연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4) 합주, 캠프, 연주회가 모두 아이들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질적 평가에 따르면, 사업 참여 아이들이 레슨보다는 대부분 합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주가 아이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캠프도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 했으며, 연주회나 발표회를 통하여 아이들이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키즈스트라 사업 내의 이러한 합주, 캠프, 연주회를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아이들이 사업에 참여할수록 미래에 대한 생각은 많아지지만 진로성숙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할수록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고 그것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진로성숙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미래에 대한 생각'은 본 사업이 비교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본 사업에 참여기간이 길수록 높게, 연습횟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 위의 가설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진로성숙도'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경우, '미래생각'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질수록 진로성숙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질적 평가에서도 나타나듯이 아이들이 음악을 접하게 되면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진로성숙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본인들의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으로 오히려 발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사업 내에서 아이들이 음악과 관련된 진로 선택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제공, 진로지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3. 자존감이 양적 평가로 유의미한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질적평가 결과를 보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적 평가 변수들을 결정할 때 진행한 음악강사 및 지역사회기관 실무자 인터뷰에서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야기 된 변수가 '자존감'이었다. 음악을 통한 참여 아동들의 자존감 향상은 가장 대표적인 효과로 문헌연구에서나 경험적 근거에서나 나타나고 있는데, 본 양적 평가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동기부여와 몰입'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사업이 좀 더 진행되면 양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

또 한편으로 질적연구에서 많은 아이들이 본 사업을 통해 본인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향상, 주위의 격려 등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존감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객관적인 지표로 잡아낼 수 있는 방안을 향후 연구에서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4. 아직 친구관계나 부모님과의 관계로 사업성고가 확장되지는 못하였다.

올키즈스트라 사업이 본인의 자존감 향상, 동기부여 향상 등을 통하여 친구관계, 부모관계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확산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적 평가에서 친구관계와 부모관계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질적 연구에서도 참여 아동들이 본 사업을 통하여 친구관계가 확장되거나 부모와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한 것 같다.

이는 본인의 변화가 일어난 이후, 2차적인 변화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변수로 보이며, 부모와의 관계의 경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나 본 평가에서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여 부모와의 인터뷰 등 평가 방법을 좀 더 보완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동들의 친구, 부모나 가족을 위한 올키즈스트라 프로그램은 미미한 수준이며 정기 연주회 관람과 일부 지역 관악단과 상위관악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간담회가 전부이다. 부모와 가족을 상대로 올키즈스트라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들이 성취, 발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긴밀한 협조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아동들의 부모와 가족들이 올키즈스트라 프로그램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어떠한 형식으로 올키즈스트라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지 등에 관한 욕구 분석을 하여(Caspe et al. 2002) 추후에는 아동들과 그들의 부모나 가족들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올키즈스트라 프로그램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무엇인지 연구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평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부모들이 올키즈스트라 프로그램에 대해서 호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아동들이 장래 희망과 관련하여 음악 전공을 선택하는 데 대하여 부모님들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거나 공부에 시간을 빼앗길까봐 자신의 자녀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례들이

때 있었고 그 결과 도중 탈락 하는 아동들도 적지 않았으며 질적 연구의 몇몇 사례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Larson et al.(2006)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청소년이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문제와 관하여 부모와 갈등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독립성(자주성)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으로 “부터” 독립성을 찾는다고 보다는 그들 가족과 “더불어” 지속적인 가족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를 얻는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하여 알아냈다. 추 후에 질적평가에서는 아동들이 프로그램 참여나 자신의 진로 선택과 관련하여 부모와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올키즈스트라 프로그램 참여가 그들이 부모나 가족들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가족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5. 협동심은 척도는 오케스트라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척도로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키즈스트라 사업이 악기 레슨 하는 사업과는 다르게 오케스트라의 합주를 진행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케스트라에 참여함으로써 참여아동들이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협동심’을 뽑았다. 협동심으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요인분석에 따르면 동일요인으로 분석되지 않아서 본 사업에서 아동들이 성취할 수 있는 ‘협동심’의 본질을 나타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척도로 밝혀졌다.

질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협동’의 경험이 많지 않아 ‘협동’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케스트라 합주가 ‘협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오케스트라 사업을 통해 아동들이 성취할 수 있는 협동심의 개념 정립과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새롭게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오케스트라에 대한 소속감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케스트라에 대한 소속감 역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 다른 변수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본 사업의 참여기간이 길수록, 지역 관악단보다 상위관악단이, 연습횟수가 많을수록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질적 연구에 따르면, 매주 같은 장소에 모여 레슨과 합주를 진행하고 별도의 연주회와 캠프를 진행한 상위관악단을 제외하고는 지역관악단은 아직 높은 소속감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캠프나 합주 등에서 서로를 좀 더 잘 알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아쉽다는 응답과 연결되는 것으로 지역 관악단에서 좀 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 abstract graphic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consisting of numerous thin, curved lines in shades of gray and white that flow from the top right towards the bottom left, creating a sense of movement and depth.

IX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방안

1. 연구의 제한점
2. 연구의 의미
3. 향후방안

1.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올키즈스트라 사업집단과 비교집단이 통계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위의 일반현황에서도 나타났듯이, 올키즈스트라 사업집단과 비교집단의 연령분포와 사업참여기간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화 되어있는 학습사업과는 달리 재단의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음악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통계적으로 비교 가능한 아동들을 추출하여 설문을 돌리는 것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에 기인한다. 하지만 추후의 평가에서는 이러한 점을 최대한도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본 연구가 사업을 진행하는 [함께걷는아이들] 재단에서 직접 진행하여 참여하는 아이들이 응답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본 평가 연구가 외부 연구 집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한계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연구의 의미에서도 언급하듯이 재단에서 직접 진행하는데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선택하였다.

2. 연구의 의미

본 연구의 의미로는 첫째, 현재 한국사회에서 3년 이상의 장기간 지속사업이 많지 않고 더욱이 이러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사업평가는 이러한 점에서 4년 동안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지속해온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사업에 참여한 기간별로 아동들을 비교하여 성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복지시설을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그룹과의 비교집단을 통해 본 사업의 성과를 증명함으로써 대다수의 방과 후 프로그램 평가 연구들이 범했던 오류(Apsler 2007)를 피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비교집단 간 비교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연령대 별로 사업의 효과를 비교해 보고, 사업 참여 기간 차이 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사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리라고 추정되는 3

년 이상 참여 아동들만 따로 추려서 비교집단과 비교해 봄으로써 비교집단과의 통계적 이질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고 질적연구로도 뒷받침 될 수 있는 흥미로운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외부 연구자에 의한 연구평가가 아닌, 사업을 기획하는 주체가 직접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함께걷는아이들]이 본 평가 연구를 직접 진행한 이유는, 외부 연구자의 경우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 그리고 시시 때때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와 추가 요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재단에서 진행해 온 음악사업에 대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 목적을 직접 정의하고 그 목적 달성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척도를 찾아내서 평가해 보고 그 평가의 결과가 추후 사업계획으로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실행과 평가간의 긴밀한 연계와 피드백의 순환관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단 내부에서 직접 진행하였다.

3. 향후방안

본 평가연구는 올해로 시작되어 매년 지속될 예정이다. 본 평가연구의 향후방안으로는, 첫째, 2012년과 동일한 척도로 2013년도에도 진행하되, 보완되어야 할 척도들을 좀 더 보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 결과로 분석하지 못한 ‘협동심’ 척도를 2013년 평가에는 새롭게 개발하여 측정할 예정이며, 의미 있는 변수로 나온 ‘동기부여와 몰입’은 전체 척도를 모두 사용하여 측정해 볼 계획이다.

둘째, 본 사업이 2013년에 5년차에 들어가지만, 2013년에 새롭게 올키즈스트라 사업에 진입하게 되는 오케스트라가 있어 사업 참여 기간별로도 분석하지만 사전 / 사후로 분석할 예정이다.

사전, 사후의 시기는 2013년 한해로 측정할 경우 너무 짧기 때문에 18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2013년 3월에 사전측정, 2013년 3월에 사후측정을 진행하여 향상 정도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셋째, 올해는 비교집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음악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을 비교집단으로

두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음악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 음악사업에 참여하는 집단, 울키즈스트라 사업집단으로 좀 더 세분화하여 다양한 성과들을 도출할 예정이다.

넷째, 질적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비교집단도 아동 인터뷰를 진행하면 의미있는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참여아동의 부모인터뷰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비교집단이 본 사업 참여집단과 통계적으로 동질적인 비교집단 표본 추출을 위하여 본 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 이외에 좀 더 다양한 외부기관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영종 외(2008) [사회복지 성과측정 기법],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편.
- 정익중, 이봉주, 임진영, 황매향(2008). [교육소외 아동, 청소년의 교육요구 및 발달과정 분석을 위한 조사도구 개발 연구]. 서울 :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신효정, 이문희(2011) “진로성숙발달에 관한 4년 종단연구-스트레스, 공격성, 우울의 효과”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 연구, 제18권, 제27호
- 지은구, 장현숙, 정호미 공역(2007). [프로그램 평가와 로직모델] 학지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1). 인사이드 리포트 2011.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1). 한국형 엘시스테마의 개발과 확산 p.31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2). [2012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평가 효과측정 2차 연구] p.17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2). [꿈의 오케스트라 지식공유세미나 자료집] p. 61
- Anderson H. K. & Rickard N. S. (2007)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short-term effects of an active class-based music program on young adolescents’ self-esteem and anger expression”, Australian Journal of Music Education, 1, pp. 4-16.
- Anvari, S. H., Trainor, L. J., Woodside, J., & Levy, B. Z. (2002) “Relations among musical skills, phonological processing, and early reading ability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3(2), pp. 111-130.
- Apsler R. (2009) “After-school programs for adolescents: a review of evaluation research”, Adolescence, 44(173), pp. 1-20.
- Bilhartz, T. D., Bruhn, R. A., & Olson, J. E. (1999) “The effect of early music training on child cognitive develop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4), pp. 615-636.
- Bowles, S. A. (2003) “Tune up the mind: the effect of orchestrating music as a reading intervention”, Ph.D. dissertation.

Butzlaff, R. (2000) "Can music be used to teach reading?",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34, pp. 167–178.

Caspe M., Traub, F. & Little, P. (2002) "Beyond the head count : evaluating family involvement in out-of-school time", *Harvard Family Research Project's Issues and Opportunities in Out-Of-School Time Evaluation*, 4.

Chamberlain, J. R.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beat competency and reading abilities of third – and fifth –grade students", Ph.D. dissertation.

Chan, A. S., Ho, Y. C., & Cheung, M. C. (1998) "Music training improves verbal memory", *Nature*, 396, pp. 128.

Cheek, J. M & Smith, L. R. () "Music training and mathematics achievement", *Adolescence*, 34(136), pp.759–761.

Costa-Giomi, E. (1999) "The effects of three years of piano instruction on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3), pp. 198–212.

Costa-Giomi, E. (2004) "Effects of three years of piano instruction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school performance and self-esteem", *Psychology of Music*, 32(2), pp. 139–152.

Durlak, J. A., & Weissberg, R. P. (2007). *The impact of after-school programs that seek to promote personal and social skills*. Chicago, IL: 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Graziano, A. B., Peterson, M., & Shaw, G. L. () "Enhanced learning of proportional math through music training and spatial-temporal training", *Neurological Research*, 21, pp. 139–152.

Gromko, J. E. & Poorman, A. S. (1998) "The effect of music training on preschoolers' spatial-temporal task performanc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2), pp. 173-181.

Haley, J. A.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rumental music instru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fourth-grade students", Ph.D. dissertation.

Hallam, S. (2010) "The power of music: its impact on the intellectual, social and personal development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28(3), pp. 269-289.

Harris, E. (2011) "After school evaluation 101: how to evaluate an expanded learning program", Research Report of Harvard Family Research Project.

Hendricks, C., Robinson, B., Bradley, L., & Davis, K. (1999) "Using music techniques to treat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38(1), pp. 39-46.

Hirsch, B. J., Mekinda, M. A. and Stawicki, J. (2010) "More than attendance: the importance of after-school program qualit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5, pp. 447-452.

Ho, Y., Cheung, M., & Chan, A. (2003) "Music training improves verbal but not visual memory: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plorations in children", *Neuropsychology*, 17(3), pp. 439-450.

Hodges, D. & O'Connell, D. (2005) "The impact of music educ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Sounds of Learning* from http://performingarts.uncg.edu/sites/default/files/solproject_final.pdf Retrieved 28 August 2012

Judith M. Burton, Rogert horowitz, and Hal Abeles(2008) Learning in and through the arts: the question of transfer. *Studies in Art Education*. Vol. 41, no. 3

Kemmerer, K. P. (2003)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hours spent in general music class and reading skills in kindergarten through grade 3", Ph.D. dissertation.

Kinney, D. (2007)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short-term effects of an active class-based music program on young adolescents' self-esteem and anger expression", *Australian Journal of Music Education*, 5(1), pp. 4-16.

Larson, R. W., Pearce, N., Sullivan, P. & Jarrett, R. L. (2006) "Participation in youth programs as a catalyst for negotiation of family autonomy with connec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Lindbald, F., Hogmark, A., & Theorell, T. (2007) "Music intervention for 5th and 6th graders-effects on development and cortisol secretion", *Stress and Health*, 23, pp. 9-14.

Little, P., DuPree, S. & Deich, S. (2002) "Documenting process and demonstrating results : evaluating local out-of-school time programs", *Harvard Family Research Projects*

Little, P., M. D. & Harris, E. (2003) "A review of out-of-school time program quasi-experimental and experimental evaluation results" *Harvard Family Research Project Out-of-School Time Evaluation Snapshot*, 1.

Long, M. (2007) "The effect of a music intervention on the temporal organisation of reading skills", Ph.D. dissertation.

Moreno, S., Bialystok, E., Barac, R., Schellenberg, E. G., Cepeda, N., & Chau, T. (2011) "Short-Term Music Training Enhances Verbal Intelligence and Executive Function", *Psychological Science*, 22(11), pp. 1425-1433.

Piro, J. M. & Ortiz, C. (2009) "The effect of piano lessons on the vocabulary and verbal sequencing skills of primary grade students", *Psychology of Music*, 37(3), pp. 325-347.

Portowitz A., Lichtenstein, O., Egorova, L., & Brand, E. (2009) "Underlying mechanisms linking music education and cognitive modifiability", *Research Studies in Music Education*, 31(2), pp. 107–128.

Priscilla M. D. Little , Sharon DuPree, Sharon Deich (2002), "Documenting Progress and Demonstrating Results : Evaluating Local Out-of-School Time Programs", *Harvard Family Research Projects*, Number 3, September.

Rauscher, F., Shaw, G., Levine, L., Wright, E. L., Dennis, W., & Newcomb, R. (1997) "Music training causes long-term enhancement of preschool children's spatial-temporal reasoning", *Neurological Research*, 19, pp. 2–8.

Register, D. (2001) "The effects of an early intervention music curriculum on prereading/writing", *Journal of Music Therapy*, 38(3), pp. 239–248.

Rickard, N., Bambrick, C. & Gill, A. (2012) "Absence of widespread psychosocial and cognitive effects of school-based music instruction in 10–13-year-old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30(1), pp. 57–78.

Rickson, D. & Watkins, W. (2003) "Music therapy to promote prosocial behaviors in aggressive adolescent boys—a pilot study", *Journal of Music Therapy*, 40(4), pp. 283–301.

Roth, J. L., Malone, L. M., & Brooks–Gunn, J. (2010) "Does the amount of participation in afterschool programs relate to developmental outcom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5, pp. 310–324.

Ruppert, S. S. (2006) "Critical evidence : how the arts benefit student achievement", *National Assembly of State Arts Agencies*.

Shavelon, R.J., Hubner, J. J., & Stanton, G. C.(1976). Self-concept :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3), 407-441

Schellenberg, E. G. (2004) "Music Lessons Enhance IQ", Psychological Science, 15(8), pp. 511-514.

Schellenberg, E. G. (2009) "The impact of music on childhood and adolescent achievement", Social Science Quarterly, 90(1),pp. 4-21.

Scottish Government Social Research(2011). [Evaluation of Big Noise, Sistema Scotland]

Vaughn, K. (2000) "Music and mathematics",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34(3, 4), pp. 149-166.

Waller, G. (2007) "The impact of music educ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attendance rate, and student conduct on the 2006 senior class in one southeast virginia public school division", Ph.D. dissertation.

Weiss, H. B. (2004) "Understanding and measuring attendance in out-of-school time programs, Weiss, H. B., Harvard Family Research Project's Issues and Opportunities in Out-Of-School Time Evaluation, 7.

Whitehead B. J. (2001) "The effect of music-intensive intervention on mathematics score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h.D. dissertation.

Wright, R. (2007) "A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designing and evaluating community-based after-school art program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3(1). pp. 123-132.

<http://www.hfrp.org/publications-resources/publications-series/out-of-school-time-evaluation-snapshots/a-review-of-out-of-school-time-program-quasi-experimental-and-experimental-evaluation-results>

첨부목록

1. [함께걷는아이들] 소개
2. 아동설문지
3. 질적평가 _ 음악강사 질문지
4. 질적평가 _ 지역사회 기관 실무자 질문지
5. 질적평가 _ 아동질문지

1) 함께걷는아이들 설립배경

- 사회 양극화에 따른 빈곤문제, 가족기능 약화로 인한 방임, 입시위주 교육 등으로 인한 가출, 폭력, 자살 등의 아동·청소년 문제 대두
 - 아동 청소년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지원사업 부족
 - 대상자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지원사업 부족
 - 유연성 있는 공공 지원사업 부족
- ☞ 2010년 함께 걷는 아이들 출발

2) 함께걷는아이들 설립취지 및 미션

(1) 설립취지

-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교육, 문화, 정서, 자립 등의 통합적 복지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함.

(2) 미션

- 함께걷는아이들은 아이들의 인성, 지성, 감성의 성장을 돕는 문화, 예술,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 함께걷는아이들은 단발성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행
- 함께걷는아이들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사회 환경 구성을 위해 아동복지 실천 분야의 연구를 지속

3) 함께걷는아이들 함께해온 길

- 2009년 • 외부 위탁형태로 음악, 학습 프로그램 시행
- 2010년 •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창립
 - 함께걷는아이들 음악, 학습 프로그램 시행
- 2011년 • 기존사업 지속
 -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Bus 시행
 - Withus Wind Orchestra(상위관악단) 창단
 - 긴급지원사업 : '건강한 밥상'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정부보조금 미지원 아동그룹홈 운영비지원사업
- 2012년 • 기존사업 지속
 - 음악사업 "Allkidstra" 명칭 변경
 - 학습사업 "Allkidstudy" 명칭 변경
 - 긴급지원사업 : 정부보조금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사업
거리청소년 의료검진사업

4) 함께걷는아이들 주요사업

(1) 올키즈스트라(Allkidstra)

: All(모든)kids(아이들)의 오케스트라란 뜻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악기제공, 악기교육, 합주, 관악단 활동의 경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등의 통합적인 음악교육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올키즈스터디(Allkidstudy)

- : All(모든)kids(아이들)의 스터디란 뜻의 올키즈스터디는 교육의 기회가 적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으로 기초학습부진 초등학생을 위한 학습부진아동 지원사업과 중고등 학생을 위한 전문강사 파견사업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

(3) Exit BUS(움직이는청소년센터)

- : 학교와 가정이 아닌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을 거리에서 직접 지원하는 아동쉼터 사업으로 먹거리지원, 의료, 긴급상담, 시설연계 등 위기지원과 자립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4) 긴급지원사업

- : 아동청소년 관련 긴급한 사회적 이슈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
십시일밥 : 아동양육시설의 급식비 지원(총22개소, 기관당 최대 50명 지원)

(5) 신규사업

- : 문화외식사업 : 저소득소외계층 아동의 문화 + 외식 패키지 지원

[첨부 2] 아동 설문지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입니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성실하게 레슨받고, 연습하고, 합주하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함께걷는아이들입니다. 본 설문지는 앞으로 여러분이 더욱 기쁘고 행복하게 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시행하는 설문이니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솔직하게 대답해주세요.?

〈기본사항에 대한 질문〉

소속센터명		이 름	
학년(나이)	(세)	성 별	☐ 남 ☐ 여
레슨받는 악기는?		레슨 선생님의 성함	
레슨받은 기간은?	☐ 6개월미만(3기) ☐ 6개월~1년(3기) ☐ 1년~2년(2기) ☐ 3년 이상(1기)		

♥ 여러분의 평상시 느낌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시해주세요.

나에 대한 느낌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로 그렇다
1. 나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한다.					
2. 나는 잘 하는 것이 별로 없다.					
3. 나는 그냥 내가 좋다.					
4. 나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5.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6.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의 일은 해낼 수 있다.					
7.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느정도 능력 있는 애라고 생각한다.					
8. 나는 훌륭한 점이 많은 사람이다.					
9.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훌륭하다.					
10.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잘 해낸다.					
11.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연주를 잘 할 수 있다고 믿는다.					

12. 열심히 노력해서 연주를 잘하게 됐을 때 매우 기쁘다.					
13. 음악(악기)을 배우는 일은 내게 중요하다.					
14. 연주곡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끝까지 노력해서 반드시 해낼 것이다.					
15. 악기연습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골라서 한다.					
16. 정해진 레슨 / 연습 / 합주 스케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친구관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로 그렇다
1. 나는 친구가 많다.					
2.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귄다.					
3. 다른 애들이 나보다 친구가 더 많은거 같다.					
4. 나는 친구들과 쉽게 친해진다.					
5. 친구들이 나를 쉽게 좋아한다.					
6. 다른 애들이 나랑 친구가 되고 싶어한다.					
7. 내가 다른 애들보다 친구가 더 많은 거 같다.					
8.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짱이다.					
9.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					
10.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준다.					

부모님(보호자)와의 관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로 그렇다
1.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는 편이다.					
2. 부모님은 내가 뭘 하면 별로 기뻐하지 않고 실망하는 편이다.					
3. 나는 부모님을 좋아한다.					
4.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신다.					
5.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시는 것과 비슷하게 미래의 내 자식을 키우고 싶다.					
6. 나는 부모님과 많은 시간 같이 있다.					
7. 부모님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하다.					
8. 나는 부모님과 잘 지낸다.					
9. 부모님과 같이 있는 게 재미있다.					
10. 부모님은 나를 인정해주신다.					

진로성숙도 / 미래에 대한 기대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로 그렇다
1. 나는 아직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른다.					
2.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결정하기 어렵다.					
3.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를 선택하기는 힘들다.					
4. 나는 미래의 진로가 자주 바뀐다.					
5.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의 차이가 커서 결정하기 힘들다.					
6. 미래 진로 선택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7.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은 편이다.					
8. 나는 지나간 일보다 미래의 일에 더 관심이 간다.					
9. 나는 나의 장래 직업에 대해 자주 상상한다.					
10.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고 상상하곤 한다.					

협동심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로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친구들이랑 협동해서 뭘 같이하는 게 좀 많은 것 같다.					
2. 친구들이랑 협동해서 뭘 하는 게 좋다.					
3. 친구들이랑 협동해서 뭘 하는 건 참 힘들다.					
4. 친구들이랑 협동해서 뭘 하는 것보다 나 혼자하는게 더 잘한다.					
5.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협동할 때 더 잘한다.					
6. 친구들과 협동해서 일이 늦어지면 차라리 혼자하는 게 낫다.					
7. 친구들과 협동할 때 내 맡은 부분만 하는 편이다.					
8. 친구들과 협동할 때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 주면서 하는 편이다.					
9. 노력한 결과에 대해 같이 책임지는 것보다 혼자 책임지는 편이 더 좋다.					
10.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우리 팀에 피해가 간다면 꾸욱 참아야 한다.					
11. 친구들과 팀으로 무언가를 할 때, 나는 맡은 부분을 잘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12. 친구들과 팀으로 무언가를 할 때, 나는 친구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준다.					

♥ 다음은 '함께연주하는아이들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함께연주하는아이들' 프로그램에 얼마나 만족하나요?
☐ 1) 매우 불만족 ☐ 2) 불만족 ☐ 3) 보통 ☐ 4) 만족 ☐ 5) 매우 만족
2. '함께연주하는아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 1) 본인이 원해서
☐ 2)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라고 해서
☐ 3) 가족이 악기를 하라고 해서
☐ 4) 기타
3. 레슨 시간은 적절한가요?
☐ 1) 너무 길다 ☐ 2) 조금 길다 ☐ 3) 적절하다 ☐ 4) 다소 짧다 ☐ 5) 매우 짧다
4.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은 레슨과 연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나요?
☐ 1) 매우 그렇다 ☐ 2) 그렇다 ☐ 3) 보통이다 ☐ 4)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지 않다
5. 함께걷는아이들 담당 선생님은 여러분이 레슨과 연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나요?
☐ 1) 매우 그렇다 ☐ 2) 그렇다 ☐ 3) 보통이다 ☐ 4)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지 않다

♥ 다음은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6. 악기를 배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 1) 실력이 잘 늘지 않을 때
☐ 2) 친구들과 놓고 싶은 개인생활 등과 레슨, 합주 시간이 겹칠 때
☐ 3) 한 가지를 꾸준히 한다는 것
☐ 4) 연주하는 것이 재미가 없을 때
☐ 5) 레슨 선생님과 갈등이 있을 때
☐ 6)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을 때
☐ 7) 기타 ()

7. 악기 연습하는 횟수는?

- ☐ 1) 매일 (※ 얼마나 연습하나요?)
- ☐ 2) 주 1~3회 (※ 얼마나 연습하나요?)
- ☐ 3) 레슨받기 전과 후 잠깐 연습
- ☐ 4) 비정기적으로 연습함(연주회, 지역공연행사 등이 있을 때)
- ☐ 5) 연습없이 레슨만 받음

7-1. 7번 질문의 대답이 연습을 하지 않는 3~5번에 응답하였다면, 그 이유는?

- ☐ 1)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 ☐ 2)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 ☐ 3) 연습할 필요를 못 느껴서
- ☐ 4) 의지가 약해서
- ☐ 5) 기타 ()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로 그렇다
8.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계속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고 싶다					
9. 다른 친구들에게도 올키즈스트라 프로그램의 참여를 권하고 싶다					
10. 상위밴드에 실력이 된다면 지원하고 싶다					
11. 나는 악기를 배운 이후, 전보다 오케스트라 공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12. 나는 악기를 배운 이후, 공연을 관람하거나 참여하는 횟수가 증가하였다.					
13. 나는 악기를 배운 이후, 전보다 클래식 음악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 다음은 '레슨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로 그렇다
1. 선생님은 레슨 전에 시간 맞춰서 잘 오신다.					
2. 선생님은 개인 혹은 그룹별로 정해진 레슨시간을 다 채워서 레슨 하신다.					
3. 선생님은 레슨 요일이나 시간을 자주 변경하신다.					
4. 선생님은 레슨할 때 전화통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많이 하는 편이다.					
5. 선생님은 내가 잘 연주되지 않는 부분을 반복 하거나, 되짚어서 꼼꼼하게 레슨한다.					
6. 선생님은 한 주간 연습할 분량의 과제를 내주고 레슨 시 꼭 확인한다.					
7. 나는 레슨 선생님의 가르치는 방식이 좋다.					

7-1. 8번 질문의 대답이 '그렇지 않다' 라면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8. 나는 레슨 선생님과 같이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9. 나는 레슨 선생님에 대해 만족한다.					
9-1. 9번 질문의 대답이 '그렇지 않다' 라면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10. 선생님의 레슨방식은? ☐ 1) 개인별로 20~30분씩 레슨 ☐ 2) 수준별 2~3그룹으로 나누어서 시간별 레슨 ☐ 3) 모든 친구들이 다같이 1~2시간 레슨					

♥ 다음은 '합주'에 참여하는 친구들만 적어주세요.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로 그렇다
1. 우리 관악단은 공동의 목표가 있다.					
2. 내가 '우리 관악단이 이랬으면...' 하는 점을 다른 단원들도 똑같이 생각한다.					
3. 나는 관악단 친구들의 이름을 거의 다 안다.					
4. 나는 관악단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5. 관악단 친구들이 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인다.					
6. 나는 우리 관악단에 거의 있으나마나한 사람이다.					
7. 우리 관악단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다.					
8. 나에게 관악단의 멤버가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9. 우리 관악단원들은 서로 잘 못지내는 편이다.					
10. 나는 우리 관악단 활동을 오래도록 하고 싶다.					
11. 나는 우리 관악단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12. 나는 관악단으로부터 칭찬과 지지를 느낀다.					
13. 우리 관악단원들은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					
14. 나는 우리 관악단 내에 친구가 있다.					
15. 우리 관악단원들은 서로 도움을 준다.					

1. 강사 개인의 경험에 관한 질문

- 강사 본인이 이전에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했다거나, 혹은 오케스트라를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가? 악기 레슨 경험은?
- 본인이 그동안 음악 전공자로서 음악을 연주, 공부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면에서 음악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 그렇게 자신이 음악으로 인해 도움을 받거나, 변화된 부분이 우리 아이들에게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그렇고, 없다면 왜 없다고 생각되는지?
- 본인의 그러한 변화나 경험에 비추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변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2. 강사가 느낀 학생의 변화에 관한 질문

- 인지력
 -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인지적인 부분(꼭 학업성적이 아니더라도 언어능력이나 사고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구체적인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 자기표현능력
 - 악기를 연주하고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것이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도움을 준다면 어떤 면 때문에?
 - 악기 레슨, 오케스트라 활동, 감상 수업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기회가 있는가? 기회가 별로 없다면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아

이들에게 필요하다고 보는가?

● 자존감, 자아효능감, 자신감

- 본 음악사업이 아이들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본 사업의 어떠한 부분에 아이들의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가? 자존감이 높아진 사례가 있다면?

● 협동심

-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협동심(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미친다면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는가? 협동심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된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 오케스트라에 참여함으로써 개인, 혹은 단체 활동에서 생기는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는가?
- 아이들을 가르칠 때 협동심을 강조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때 그렇게 하는가?

● 사회성, 관계성

- 본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회성이 향상 된다면,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는가? 사회성이 향상된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 본 사업안에서의 아이들의 관계(단원간의 관계, 선후배간의 관계, 강사와의 관계 등)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관심을 기울이는가? 그러한 기회가 있는가, 없는가?
- 레슨이나, 오케스트라 활동 시 아이들의 집중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고 생각하는가?

● 자기관리능력, 책임감

- 본 사업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게 되거나 요구되는 일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

- 본 사업이 아이들의 자기관리능력(시간엄수, 감정조절, 일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떠한 부분 때문인가? 자기관리능력이 향상된 사례가 있다면?
- 우리 아이들이 음악(악기)을 배우고 오케스트라 활동을 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그런 것을 실제로 얻은 사례가 있다면? (우리 사업 내에서, 혹은 외부라도)

3. 아이들이 연주에 임하는 태도와 실력에 관한 질문

- 사업에 오래 참여한 아이들(1기)과 이제 막 사업에 참여한 아이들(3기)와의 연주 실력 이외의 확연한 차이가 있다면?
- 학생들의 연주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보는가? 향상되었다면, 개인레슨, 오케스트라, 캠프, 공연 관람 중 어느 부분이 아이들 연주 실력 향상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 시간이 지날수록 개개인의 학생들이 오케스트라로 합주를 하도록 이끄는 것이 용이해지는가? 팀워크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가?
-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연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런가?
- 아이들이 연주하는 것을 즐긴다고 생각하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연주를 즐기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반대인가?

4. 기타질문

-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인의 변화(인식, 행동, 태도)가 있다면?
- 본 사업이 일반 다른 음악사업(악기레슨, 오케스트라 사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 이전에 오케스트라를 지도해 보았거나, 악기 레슨을 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이나, 악기 레슨을 받을 때 이전 본인이 경험하였던 아이들과 다른 점이 있는가? 그러한 차이는 단순히 아이들의 개인차라고 보는가, 아니면, “함께 걷는 아이들”만의 어떠한 공통점이 존재하는가?
- 본인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연주 기술 이외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 있다면?
-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그러한 문제는 보통 아이들을 레슨하거나, 오케스트라를 진행하면서 흔히 느끼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만의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하는가?
-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경우는 언제였는가?
- 본 사업이 아동의(심리, 정서, 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더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본 사업이 아동 가족의 변화(아동에 대한 관심 증가, 아동에 대한 신뢰도 증가, 관계 개선, 음악에 대한 관심 증가 등)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있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그런가? 아직 그러한 부분이 미미하다면, 앞으로는 가능한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본 사업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음악지원의 새로운 모델이 되어 음악 관련된 정책이나 다른 관련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좀 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1. 아이들의 참여 태도에 관한 질문

- 본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할 때, 처음 아이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 우리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즐겁게 참여한다고 보는가? 어떠한 면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었는가? (참여에 불성실한 아이들 때문에 곤란을 느낀 적이 있는가?)
-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에서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악기의 연주, 강사와의 만남, 합주 경험, 공연 관람, 단순히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방학 동안의 캠프 참여 등등) 좋아하지 않는 활동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각각의 이유는?

2. 아이들의 발달에 관한 질문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아이들의 변화)

- 아이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기 이전과 참여한 이후로 아이들에게 어떠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는가?
(악기연주와 오케스트라 활동이 아이들의 인지적, 정서적인 부분과 사회적 부분 등에 영향을 구체적으로 물어본다)
- 인지력
 -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학업성적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는?

- 사고력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험한 적이 있는가?

● 자기표현능력

- 아이들이 본 사업에 참여한 이 후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표현을 더 잘 하게 된 경우가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는?
-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자기표현을 더 한다고 생각하는가?

● 자존감, 자아효능감, 자신감

-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하는가?
- 본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 이후에 아이들의 자신감이 상승하였다고 보는가? 어떠한 구체적인 사례를 목격하였는가?
- 오케스트라에 활동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대체적으로 자신감이 높다고 생각하는가?
- 구체적으로 본 사업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아이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가? (레슨, 합주, 공연 관람, 캠프 참여 등등)
- 아이들이 합주를 할 때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하는가?
- 본 사업을 통해 자존감이 높아진 경우가 있다면, 그 아이의 높아진 자존감이 아이의 다른 면(학업, 학교생활, 친구관계, 가족관계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협동심

-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협동심(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미친다면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는가?
- 오케스트라에 참여함으로써 아이들이 자신만의, 혹은 단체 활동에서 생기는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는가?

● 사회성, 관계성

- 본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회성이 향상 된다면,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는가? 사회성이 향상된 구체적인 사례는?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 본 사업 내부에서의 관계에서 받은 영향이 사업 외부적인 관계(학교, 가정,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는?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낀다거나, 친구관계나 가족 관계가 원활해진 경우를 보았는가?)
- 본 사업에 참여한 이후에 아이들이 학교나 교우관계, 혹은 가정생활에서 더 적극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 자기관리능력, 책임감

- 본 사업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게 되거나 요구되는 일은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는가?
- 본 사업이 아이들의 자기관리능력(시간엄수, 감정조절, 일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떠한 부분 때문인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는?
-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본 사업의 여러 가지 활동 (레슨이나, 오케스트라, 공연 관람 등등)에 참여하는데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여 아이들이 활동을 하도록 이끄는 일이 수월해진다고 생각하는가?

● 진로성숙도

- 본 사업이 아이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사업 이후 아이들이 본인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거나, 하고 싶은 일이 생기거나, 하고 싶었던 일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 이상의 변화를 아이들의 학부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감지한 적이 있는가?

3. 기타질문

-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인의 변화(인식, 행동, 태도)가 있다면?
-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는가?
-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경우는 언제였는가?
- 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긍정적, 부정적 영향 모두)
- 지역사회 안에 본 관악단 사업이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아직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미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 본 사업이 아동의 (심리, 정서, 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더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본 사업이 아동 가족의 변화 (아동에 대한 관심 증가, 아동에 대한 신뢰도 증가, 관계 개선, 음악에 대한 관심 증가 등)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있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그런가? 아직 그러한 부분이 미미하다면, 앞으로는 가능한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지역사회 안에 본 관악단 사업이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관심, 저소득층의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 공평한 문화예술환경 조성 등)을 미치는가? 아직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미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 본 사업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1. 자존감 관련

- 내가 무언가를 잘한다고, 혹은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떤 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 (앞의 질문이 긍정적일 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이 본 음악사업에 참여한 것과 연관이 있는가? 본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전보다 자신이 좀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져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 본 음악사업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칭찬 받은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에게 언제?
- 함께 걷는 아이들에서 악기를 연주하게 되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새로운 악기를 연주한다는 점이 좋은가? 새로운 악기를 연주하게 되어서 어떤 점이 좋은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기한 악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니면, 안 해보던 새로운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 친구들이나, 부모님, 혹은 학교 선생님에게 자신의 오케스트라 활동이나, 악기 연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랑하고 싶은가? 또 그런 적이 많은가?
-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악기를 연주하고부터 공부가 더 재미있어진다고나, 성적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학교 전반적인 성적은 어떤가? 음악 성적만 보면 어떻게 되었는가? 별다른 점을 느끼지 못하였는가? 그렇지 않다면, 공부와 악기 연주는 별개라고 생각하는가?
- 함께 걷는 아이들에서 악기를 배우는 것을 학교 담임선생님이 알고 있는가? 안다면, 학교 선생님의 반응은 어떤가? 학교 담임선생님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 악기 연주를 하면서 학급이나 동네 친구들이(자신이 연주하는 사실을 알거나, 연주하는 것을 본 적인 있는 친구들의 경우)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 연주를 하면서 얻은 자신감이 다른 쪽으로 연결되어서 매사에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

2. 동기부여 / 몰입관련

〈동기부여관련 양적 설문지 질문문항〉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연주를 잘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열심히 노력해서 연주를 잘하게 됐을 때 매우 기쁘다.

음악(악기)을 배우는 일은 내게 중요하다.

- 악기 배우는 게 재미있는지?

(아이들이 느끼는 악기 연주의 '재미'가 참여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지. 친구가 좋아서 참여하다가 연주와 악기가 좋아졌든지)

- 악기 연주가 재미가 없었거나, 재미없어진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 (1기아이들 중심 질문) 처음 울키즈 오케스트라에서 악기 연주를 했을 때부터 생각해보면, 언제부터 악기 연주가 재미있어졌는가? 처음부터 즐거웠는가? 아니면, 중간에 재미없다가 다시 재미있어진 경험을 해보았는가?

- 연주가 지겹고 힘든 경우가 있었다가 다시 좋아진 경우라면 그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는가? (강사요인? 연습? 연주회? 캠프? 공연관람? 친구나 선배 권유? 등의 구체적인 예를 학생이 말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 물어본다.)

- 연주가 지겹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놔두고 지켜봐주는 것이 좋은지. 옆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 악기 연주나, 합주, 특히 공연을 위해 힘든 것을 참고 열심히 해서 보람을 느낀 적이 있는가? 그러한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신에게 유익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점이 그러한가?

- [캠프] 캠프에 참여했던 것이 어땠는가? 좋았다면, 어떤 면에서 좋은가? 왜 그런가?
- [레슨 / 합주] 개인 레슨과 합주랑 어떤 활동을 더 선호하는가? 이유는?
[공연] 공연을 할 때 뿌듯함을 느껴본 적인 있는가? 왜 그런가?
[연습] 악기를 배우면서 언제 실력향상이 된다고 느끼는가? 연습이 자신의 악기 실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레슨, 합주, 연습하면서 동생들을 가르쳐줄 때 등등 어떤 때 실력이 많이 향상된다고 느끼는가?
- 설문지 질문에서 “악기연습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골라서 한다(첫 페이지 15번)”라고 한 항목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답을 했는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장소를 선택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인지, 장소가 상관없을 정도의 몰입인지 파악)
- 어려운 과제를 받았을 때나, 아니면, 자유롭게 연주할 때, 어떤 때 더 연주에 몰입하게 되는가?
- 연주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활력이 생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은 의욕이 여러 면에서 생겼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 본 사업에 선생님의 권유로 무심코 들어왔다면,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가입 동기 때문에 활동이 힘들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점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들어온 것이 잘했다고 믿는가? 똑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들어오겠는가? 다시 가입한다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것 같은가?
- 결석을 했다면, 그 이유는 주로 무엇 때문이었는가? (다른 학원에 가야 해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연습을 하지 않아서 혼날까봐, 혹은 자신이 없어서?.....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 조심스럽게 이유를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 한다. 단, 답변에 힌트는 주지 않도록 한다.)
- (상밴이 아닌 아이들) 상위 밴드에 들어가고 싶은가? 이유는?
- (상밴아이들) 상위밴드의 어떤 활동이(어떤 부분이) 악기 연주가 재밌어 지고 악기가 나에게 중요해 지는데 가장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3. 또래관계

-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편인지? 친구가 많은지? 많다면 어떻게 해서 친구가 많아졌다고 생각하는가?
- 실제로 울키즈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면서부터 주변 친구들이 많아졌다거나, 친구들을 더 잘, 그리고, 쉽게 사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 음악사업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지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 악기 연주를 멋지게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아무 생각이 없는가? 아니면, 멋지다고 생각하는가? 친해지고 싶다고 느끼는가? 호감을 느끼는가? 본 사업단 참여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는가?

4. 부모관계

- 평소에 부모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가? 그렇지 않은가?
- 부모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면, 원래부터 그랬는가? 아니면, 최근에 그러는가?(초등과 청소년이 다른지 유념)
- 부모님과 최근에 이야기를 한 것 중에 기억나는 소재가 있는가? 가장 최근에 부모님과 나눈 대화는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가?
- 악기를 배우면서 가족과 악기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본적이 있는지? 언제, 누구와, 어떠한 얘기를 나누는지?
- 부모님이나 가족은 내가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지?
- 오케스트라 활동을 한 후부터 부모님과 이야기 거리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부모님이 내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생각하는가?
- 집에서 가족들이 내가 악기 연주를 잘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호적인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가? 별다른 관심이 없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5. 진로성숙도, 미래생각

- 장래 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래 희망을 정하고 그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런가? 왜 그렇지 않은가?
- 앞날에 대한 진로를 결정했는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 악기를 배운 이후 진로에 대한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는지? 새로운 악기를 배우고 연주에 자신에 생기면서 내 생활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가? 자신의 새로운 소질을 개발했다고 생각하는가? 앞으로 음악 관련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싶다고 느끼는가? 나도 무엇이든지 시작하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6. 협동심

- 최근에 협동해서 무언가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 있다면 어떤 일인지? (오케스트라 밖에서 / 오케스트라 내에서)
- 모두 열심히 참여했는지?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가 있었다면 그 친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 일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일은 혼자 하는 것이 낫고, 혹은 어떤 일은 친구들과 협력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가?
-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일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언제 그랬는가? 어떤 점이 그러했는가?
- 오케스트라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는 일인데 그래서 좋은 점과 싫은 점이 있다면?

7. 소속감 (3기 단원 제외 항목)

- 학교 교실에 있을 때와 오케스트라에 있을 때와 어느 때가 더 마음이 편하고 좋은가?
-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걷는 아이들 활동이 수월해진다고 느끼는가? 왜 그런가?
- 현재 소속된 관악단 친구들과 잘 알고 지내는가? 관악단에서 배울 것이 많고 관악단에 있으면 편하고 즐거운가?
- 그렇다면 그렇게 된 계기가 있는지?
- 오케스트라에서 더 많은 친구들과 사귀고 싶은가? 더 친해지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 연주하는 시간 외에도 친구들과 함께 친해질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가?
(친해지면 오히려 오케스트라 활동에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집중 등에 방해가 될 것 같은가?)
- (기타) 함께 걷는 아이들 활동에 만족하는가?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좋지 않은가?

연구진

조 희 경 • 울키즈사회실천연구소 소장

이 혜 진 • 울키즈사회실천연구소 부소장

유 원 선 • 울키즈사회실천연구소 선임연구원

허 인 영 •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2012 Allkidstra 사업성과 보고서

발 행 일 2013년 2월 27일
발 행 처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발 행 인 조순실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27번지 서초타운트라팰리스 801호
전 화 02. 522. 7935
팩 스 02. 522. 7930

Ⓢ 본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